

2014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러시아학 연구의 학적 체계화와 전망”

사회과학세션
학문후속세대 대학원생 세션
한양대 HK 연구사업단 세션

- 일시 2014년 3월 22일(토요일), 13:00~18:20
- 장소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화상회의실(7층), 628호, 631호(6층)
- 주최 한국슬라브학회,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주최 | **KASS** 한국슬라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Studies

APRC 아태지역연구센터
Asia-Pacific Research Center

후원 |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차 례

사회과학세션 : 러시아 조선 산업과 시베리아 사회 경제학

- ◆ 투르시아 조선해양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한러 협력에의 함의
..... 이상준 (국민대) 3
- ◆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고용시장 환경 비교 분석
- 치타,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市를 중심으로
..... 이영형 (한림대) 13
- ◆ 러시아 지역별 주민 ‘삶의 질’의 변화와 비교
..... 최우익 (한국외대) 37

학문후속세대 대학원생 세션 : 유라시아의 정치 안보와 철도 인프라

- ◆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 : 나잔-하산 프로젝트(TKR-TCR 철도) 경제, 정치적 함의연구
..... 김진우 (한양대) 41
- ◆ 카스피 해 연안 5개국 해군 군비경쟁 실태 및 향후 전망
..... 양봉현 (한양대) 59
- ◆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 고찰
..... 조문정 (한양대) 73

한양대 HK 연구사업단 세션 : 러시아 대외 정책 및 극동러시아 사회문화

- ◆ 강대국’으로의 복귀?: 푸틴시대의 대외정책(2000-2014)
..... 강봉구 (한양대) 85
- ◆ 러시아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 김영진 (한양대) 87
- ◆ 근현대 한국 지식인들의 바이칼 인식 -한민족 기원 논의와 관련하여-
..... 이평래 (한양대) 105

2014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사회과학세션

러시아 조선 산업과 시베리아 사회 경제학

사회자: 장덕준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발표 1

이상준 (국민대)

러시아 조선해양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한러 협력에의 함의

발표 2

이영형 (한림대)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고용시장 환경 비교 분석
- 치타,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市를 중심으로

발표 3

최우익 (한국외대)

러시아 지역별 주민 '삶의 질'의 변화와 비교

러시아 조선해양 산업 현황 및 발전전략: 한러 협력에의 함의*

이상준 (국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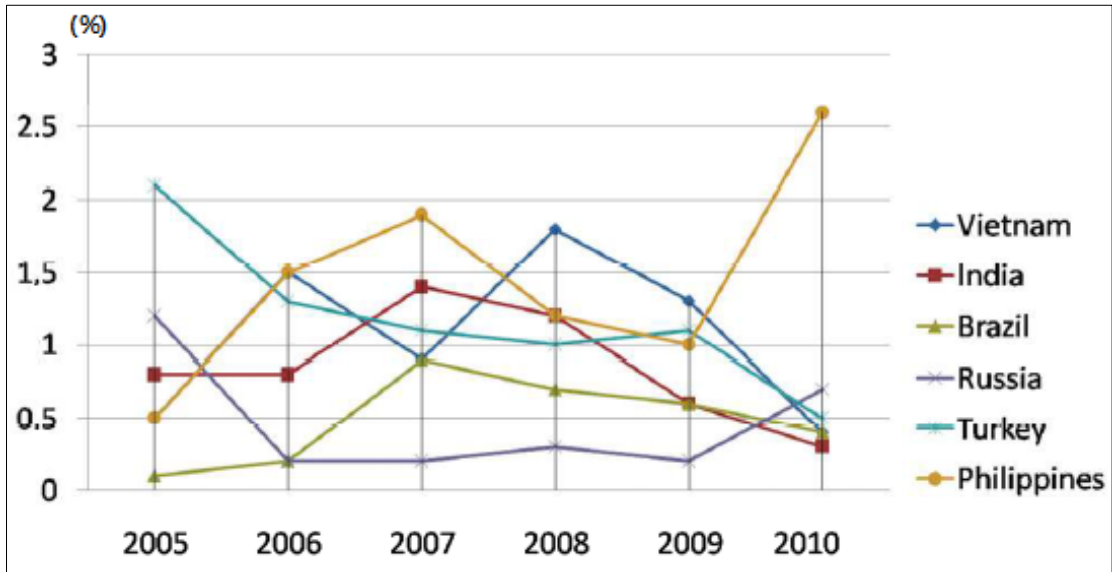
1. 서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조선 산업은 러시아 정부의 정책 지원 부족과 조선 산업 내 투자 부진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 및 관리미비 등으로 급격하게 추락하였다. 오늘날 러시아 조선 산업은 내수용 선박의 5~10% 정도만 건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히 1990년대 방위산업의 군함 발주가 전체 발주량의 60% 수준에 이르렀는데 비해 오늘날에는 전체 발주량에서 10% 이하로 감소한 것도 조선 산업 위축의 중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세계 조선해양시장에서의 수주비중은 0.5% 내외로 쇠락하였으며 대부분 건조하는 선박의 규모는 1만 톤 급 이하 중소형 선박이다. 또한 2011년에는 석유제품운반선 26척, 해양지원선 등 총 30척을 수주하였지만 2012년에는 석유제품 운반선 5척, AHTS(Anchor Handling Tug Supply vessel) 2척 등의 해양지원선 수주에 그치고 있는 등 부진한 실정이다.

선박 건조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0.5% 내외로 신흥 조선국 가운데 하위 그룹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조량 기준 2012년 31척, 12만 GT로 나타나고 있어 척당 규모가 약 3,800GT 정도이고, 전체 건조량 가운데 러시아에서 건조되고 있는 대형선박 1척 규모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2013년은 140대의 선박(약 5십6만5천톤)을 건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생산능력의 30-50%에 불과한 수준이며 그로 인하여 러시아 조선업의 생산 효율성과 재정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2011년 40개 조선소의 총 수입은 1,770억 루블(약 59억달러)에 불과하고 대부분 조선소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평균적으로는 -2.1%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조선산업의 군수비중은 약 77%로 수출의 약 82.6%로 군수부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 상선부문은 양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이다.

* 이 글은 초고이며 참고문헌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인용을 금합니다.

<그림 1> 러시아 및 신흥조선국들의 수주량 기준 세계시장점유율



<표 1> 러시아의 주요 조선지표 변화 추이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척	만GT	만CGT	척	만GT	만CGT	척	만GT	만CGT
1998	19	8	12	10	6	7	66	34	45
1999	5	3	4	19	8	12	57	32	41
2000	17	3	7	13	7	9	67	27	39
2001	29	14	19	18	4	7	78	35	47
2002	24	7	12	29	12	16	68	29	42
2003	15	16	17	21	9	14	68	38	47
2004	29	25	26	26	13	15	85	55	63
2005	43	45	48	27	12	15	95	86	92
2006	24	10	13	33	19	24	86	75	78
2007	34	16	20	35	18	22	103	72	70
2008	29	8	13	32	14	18	102	68	67
2009	14	1	4	24	8	12	86	57	53
2010	41	16	22	31	18	17	97	38	50
2011	47	19	25	31	8	13	114	60	66
2012	12	9	11	31	12	16	81	38	48

자료: IHS Fairplay

러시아 조선 산업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생산 침체와 그에 따른 투자 부족; 낙후된 기술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러시아 조선소의 장비, 캐스팅, 도크 장치의 감가상각률은 각각 70%, 75%, 65%임); 낮은 노동생산성 및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경영능력의 비효율성; 혁신을 이끌 만한 동기부여의 부재와 부패의 심각성(특히 군수분야); 높은 세금과 관세분야의 주먹구구식 행정체계(부패로 연결); WTO 가입이후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제한; 새로운 조선소 건설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들의 지체; 국영 통합조선소가 외국 조선기업과 효율적인 파트너십 결정이 지연 등이다.

<표 2> 러시아 주요 조선소의 총 건조실적

조선소	총 건조 실적		주요 건조 선종
	척	CGT	
Krasnoy Sormovo	205	1,099,928	다목적선, 제 품운반선, 일반화물선, 탱커 등
Volgograd S.Y.	126	629,516	다목적선, 제 품운반선, 일반 화물선, 여객선 등
Baltic Shipyard	31	343,750	쇄빙선, 일반화물선, 화학제품운반선, 로팍스 등
Astrakhan	163	234,843	일반화물선, 어선, 준설선 등
Okская Shipyard	26	168,557	다목적선, 석유/화학제품운반선
Yantar Shipyard	37	148,007	다목적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여객선 등
Nevsky S.B.	9	44,185	일반화물선, 예인선 등
Zelenodolsk	8	37,970	제 품운반선, 어선, 탱커 등
Third Internat.	3	14,999	화학제품운반선, 예인선

자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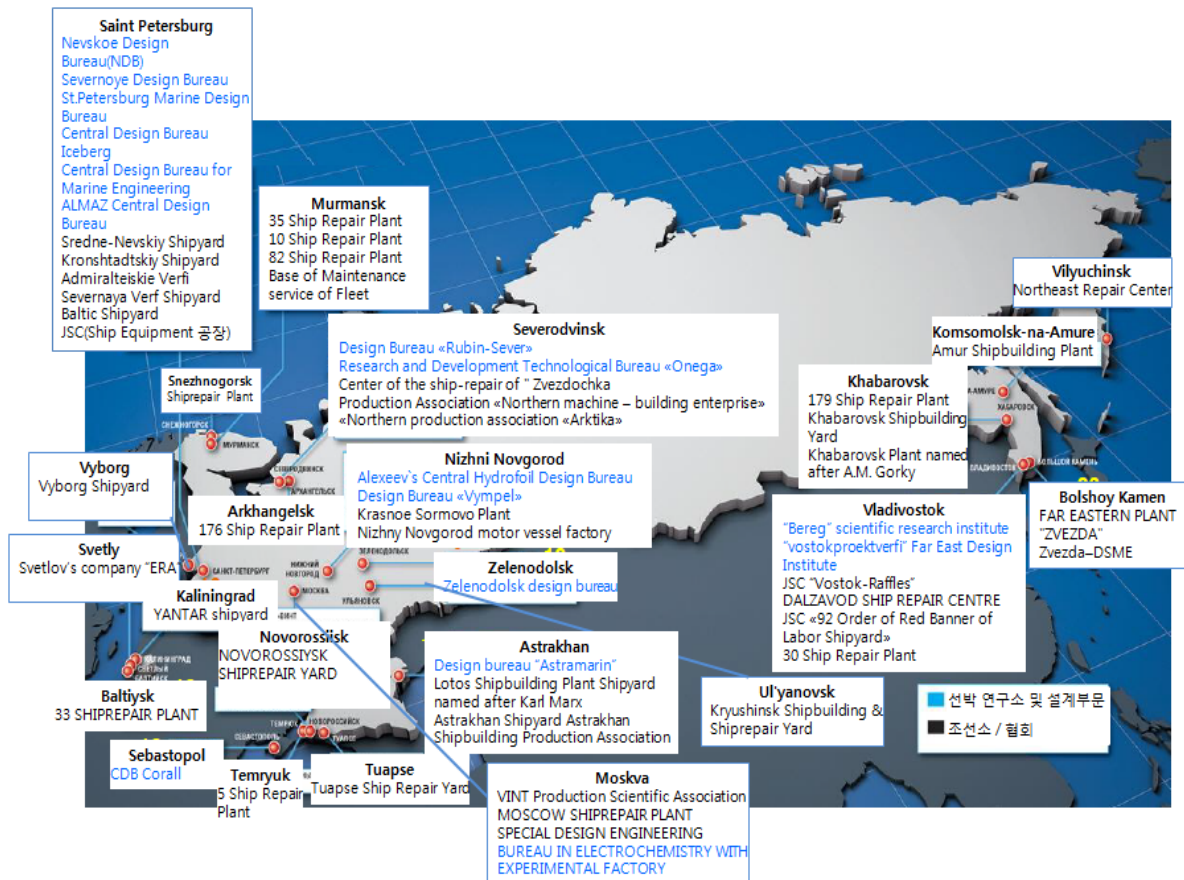
2. 러시아 푸틴 정부의 조선 산업 육성 정책의 배경과 최근 동향

1) 푸틴 정부의 조선 산업 육성 정책의 배경

러시아 선박 회사들은 매년 선박 구입에 10억불 이상을 지출하지만 러시아 조선업체의 점유율은 6% 내외이다. 이는 러시아 조선 산업이 러시아 선사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집권 2기말인 2007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국영 통합조선공사(OSK,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을 설립할 것으로 대통령령(2007년 3월 21일 대통령령 No. 394)으로 지시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 7일에는 러시아 연방령 No. 305-FZ를 통하여 러시

아 조선 산업과 해양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는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제조업 경제특구 수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 러시아 주요 조선소의 입지지역(USC 중심)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2020년까지 러시아 정부는 4조4천4백억 루블(약 1,480억 달러)을 투입하여 군사용 선박과 특수선박(쇄빙선, 예인선, 북극 운행과 관련된 해양설비)을 건조하고자 한다. 러시아 조선 및 해양산업의 발전전략에 따르면 2020년까지 러시아는 26척의 쇄빙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핵추진 쇄빙선 110MW 한척, 60MW 5척이다. 그리고 230 탱커 및 40척의 가스선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1,400척의 선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 조선업체들은 현재와 비교하여 5배의 이상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상당수 주문은 군사적인 목적의 선박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조선 산업의 발전이 북극 지역의 자원개발과 개발자원의 운송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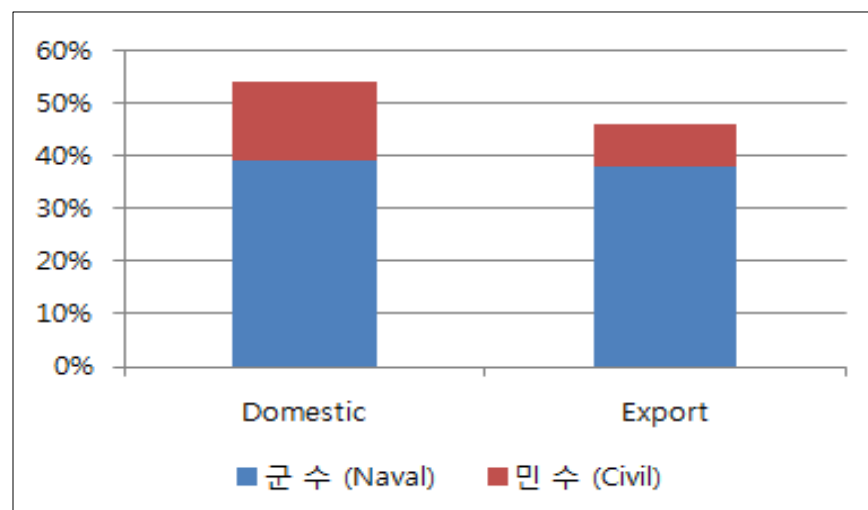
북극해 연안 지역에 위치한 탄소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북극 항로(NSR: Northern Sea Route)를 통하여 발트해와 백해에서 극동지역까지 연결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쇄빙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적절한 인프라를 구비한 중간 기착항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결빙 기간에도 어둠을 헤치고 해상운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와 장비, 운송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시기에 20척이 넘는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조선 산업 침체시기를 거치면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지만(Rosaomflot) 방사선 물질 누출 사고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전한 원자력 쇄빙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을 건조하기 위하여 약 1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북극해를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가장 넓은 러시아는 1년 내내 쇄빙선이 필요한 항로가 많은 관계로 강력한 성능의 쇄빙선이 필요하다.

2) 푸틴 정부의 조선 산업 발전 전략 2030 주요 내용 (2007년 9월 6일 승인)

조선 산업 발전 전략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 군사력 증강 및 북극 지역의 대륙붕 자원개발에 있으며 주요 수단으로는 민수 조선 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 및 구조조정이다. 이를 통하여 군수용 선박산업 육성 및 북극해 지역 자원 및 운송로 개발에 필요한 특수선박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조선 산업 육성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그림 3> 러시아 조선 산업의 군수비중 현황



2007년 통합조선공사가 설립된 후 러시아 민간조선 분야의 기업의 80%이상이 통합되었다. 극동지역에서는 베레그연구소(주), 달자보드 조선소(주), 니콜라예브스키아무르 조선소(주), 아무르 조선소(주), 즈베즈다 조선소(주), 하바로브스크 조선소(주), 30 선박수리소(주), 92 선박수리소(주), 178 선박수리소(주), 179 선박수리소(주), 군장비 수리 및 폐기 극동지역센터(주)가 통합조선공사에 포함되었다.

<표 3> 러시아 조선 산업의 구성

구분	러시아 전체	St.Petersburg 지역
선급, 생산자 단체 등	10	7
설계업체, 연구소 등	50	20
기자재 업체	150	50
조선소(신조, 수리)	70	20

자료: INTSOK (2009)

그러나 극동 러시아의 조선소들은 군함이나 잠수함 등 군용 선박의 건조에 특화되어 있어 정부 발주에 따라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륙붕 개발에 따른 특수 선박(드릴쉽,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부유식 원유생산 저장장치FPSO)의 수요가 증가하고 등록된 선박들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교체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조선 산업은 철강 산업,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업연관효과가 높지만 노동생

산성이 낮은 실정이다.

조선 산업은 제 1 단계 (2013-2016), 제 2 단계 (2017-2025), 제 3단계 (2026-2030)로 구분되어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다. 제 1단계에서는 조선 산업 유지, 제 2단계는 조선 산업의 현대화, 미래형 선박 건조, 제 3단계에서는 모든 종류의 선박 시리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조선 산업의 생산규모를 2011년에 대비하여 1.4배 증가시키고 2030년까지는 생산규모는 3.2배, 생산성은 4.5배 증가시키고자 한다. 또한 어획고를 배가시키기 위하여 2020년까지 1,342억 루블(약 42억불) 투자하여 562척의 어선을 새로이 건조할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는 2030년 러시아 조선 산업의 건조 규모는 2,000척, 2조3천억 루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80%이상의 선박은 러시아 대륙붕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선박이 될 것이다. 또한 2020년까지 조선 산업의 생산규모를 2011년에 대비하여 1.4배 증가시키고 2030년까지는 생산규모는 3.2배, 생산성은 4.5배 증가시키고자 한다.

<표 4> 2030년까지 필요한 선박 수요

선박종류	단위
FLOATING DRILLING RIGS	34척
PLATFORMS	55척(430억불)
해양연구탐사선	39척
탱커	58척(95억불)
쇄빙선	46척(40억불)
LNG 탱커	27척
해상 터미널	2/43억불
서비스 선	93(9억불)
LNG 플랜트 및 터미널	39.5 mn.t/yr (8억5천만불)

3) 러시아 조선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

러시아의 조선 및 해운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의 배경에는 자국의 중공업 발전을 모색하려는 의도 이외에도 자국 에너지의 원활한 수출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포함한다. 에너지 자원 수출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이지만 주요 수출국이 유럽 등 향후 수요가 줄어들고 에너지 수입원 다양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시아 및 태평양으로의 수출 확대를 적극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선 및 해운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항만을 통한 물류 시스템 확보, 선대 확충, 조선소 현대화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2011년 제정된 조선 및 해운업 육성 관련 법안에서는 러시아 조선소들을 산업특별구역으로 분류하여 2020년까지 10년간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재산세 및 토지세의 감면, 연금 및 의료 보험료 납입 면제받았으며 선사들도 러시아에서 건조된 선박의 운영에 따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실제 선사들이 발주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평균 20년이었던 것을 12년 수준으로 크게 감소시켜 러시아 조선소로의 발주가 늘어나는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보호주의는 외국 조선업체의 벌크선 수주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만 탱커, 컨테이너, LNG, 해양플랜트 등 특수선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세부 단계별로 실행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자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조선 산업 육성을 진행하고 있어 해외의 발주를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WTO 가입이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있어(계약 비용의 80%까지 신용 제공) 러시아는 WTO에서 제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 지원은 VEB 은행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선박발주를 하고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산업 전체가 과잉생산능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의 조선소를 구조조정하고 통합하는 움직임이 있다. 예컨대 USC의 Vyborg 인수, 극동의 달자보드 조선소 파산 등이다.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분야의 자금지원은 <국가 기술기반발전 2007-2011>, <민간조선소 발전 2009-2016>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약 1,500억 루블, 약50억불). 반면 선박발주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발주하여 지원되는 경우도 있지만(293억 루블, 약 9.8억불) 가스프롬, 로스네프티, 소브콤플로트 등 국영회사들이 발주하여 지원해주는 경우가 더욱 많다(1조 7천억 루블, 약 566억불).

현재와 같은 추세로 조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조 도크가 추가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예산으로 건조할 선박의 수가 560척인데 러시아 조선소가 가진 생산능력으로 150척은 현 상황에서 러시아 국내에서 건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 양성, 기술적인 열세 극복, 금융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선업의 전반적인 장기 침체의 여파로 러시아 조선 산업의 육성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정책 기조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국 조선 업체의 對러시아 진출 현황 및 협력방안

1) 한국 조선업체의 러시아 진출 현황

삼성중공업은 2009년 2월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러시아 세친 부총리 일행과 조선업 현대화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는데 양해각서는 신사업 개발 및 공동투자 프로젝트 추진, 설계기술 공동개발, 생산능력 확대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USC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러시아는 전국을 북부와 서부, 극동 3개 권역으로 나눠 대표 조선소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9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협력을 시작하였다. 2010년 7월 설립된 러시아 현지 합작회사인 즈베즈다(Zvezda)-DSME사와 공동으로 그해 10월 러시아 국영해운총국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사와 원유운반선 및 정유운반선 총 12척(러시아 현지제작 분 및 옵션 포함)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 규모는 약 8억 달러). Zvezda-DSME를 통한 건조협력 추진 예정인데 야말 프로젝트용 쇄빙 LNG선 건조 slot 약정하였다. 또한 2013년 11월 로스네프트와 조선협력 MOU 체결하고 즈베즈다 역량 초과분을 DSME가 수주(LNG선 약 13척)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09년 7월 러시아 OPK의 조선소 현대화 사업 참여 MOU 체결하였다. 러시아측이 북극 지방 LNG 유전 개발을 진행할 경우 현대중공업이 LNG선과 해양시추 장비 등을 수주한다는 전제로 체결한 것으로 향후 선박 수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MOU 체결 이후 러시아 프로젝트 지연으로 답보 상태이다.

STX조선해양은 2010년 8월 러시아 국영 USC와 MOU 체결하였고 조선소 이전지원·극지선박 기술센터 공동설립 등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STX가 USC 산하 어드미랄티(Admiralty)조선소 이전에 대한 설계 및 건설지원, 인력 트레이닝, 조선소 운영 노하우 전수뿐 아니라 STX 핀란드 헬싱키 조선소에 극지선박기술센터(Arctic Shipbuilding Technology Center)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STX그룹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상태인 관계로 USC 관련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이다.

2) 한러 조선 산업 협력방안: 입체적인 협력 전략 및 제도 마련

첫째, 조선업체의 對러시아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환경 조성을 위하여 Financing 지원 및 프로젝트 보증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러시아 거래수단 확대 지원(거래대금의 현물 상환시 관련기관 연계 처리 지원 등)이 필요하고 러시아 유동성 부족시 LNG 등으로 대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협력의 단계별 전개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특히 러시아의 후방산업, 인프라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한 로컬 콘텐츠 요구는 사업의 추진을 방해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극동지역은 한국에서 추진 중인 원양 및 연근해 어선 개발 프로젝트 활용 고연비 어선의 건조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중소 조선업체의 협력을 확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러시아 해외 발주 내항선의 일정 부분을 한국에 발주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섯째, 러시아 권역별로 조선 산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극동지역에서는 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표 5> 극동지역의 조선산업 단지 조성 계획

주요 단지	중심 조선소	주요 건조예정 선종
Amur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 조선소	군용(잠수함) 및 민간선박 건조
Khavarovsk	하바롭스크 조선소	소형 민간 및 군용선박 건조
Vostok	연해주 보스톡 조선소	대형 대륙붕 탐사용 해상플랫폼 제작
Zvezda zone	연해주, 신규	최대 25만톤급까지의 가스운반선 건조

여섯째, 한국과 러시아의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협력기반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선박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출입은행(KEXIM), 무역보험공사(K-sure)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산업은행(KDB), 정책금융공사(KoFC) 등이 선박금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도 VEB 은행을 통하여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표 6> 한국 수출입은행-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구분	세부 내용
규모	· 한국 수출입은행-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VEB) 공동 10억 달러
지원방식	· 지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출금융, 선박금융 등을 활용 · 양 기관간 공동 금융지원
지원대상	·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 석유화학정유, 자원, 인프라, 조선, 환경 등 프로젝트 · 극동-시베리아 지역 등 우선 고려

<표 7> 한국수출입은행-러시아 Sberbank간 중장기 금융지원 협력 MOU

구분	세부 내용
설정 한도금액	총 15억 달러(기설정 7억 달러 포함)
지원방식	전대자금 대출, 보증, Two-Step 복합금융 대출 등
대상지역 및 협력분야	러시아·CIS 지역 및 제3국 등을 대상 플랜트, 선박, 인프라,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분야 등

마지막으로 한러 경제과학공동위원회 산하에 한러 조선해양산업 협력위원회 신설하여 주기적으로 양측의 요구 사항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확인, 러시아 측의 중복 요구 및 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 방지노력이 필요하다.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고용시장 환경 비교 분석

- 치타,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市를 중심으로 -*

이영형 (한림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방법
3.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노동시장 환경 분석
 - 1) 치타市의 노동시장 환경
 - 2) 울란우데市의 노동시장 환경
 - 3) 이르쿠츠크市의 노동시장 환경
 - 4) 크라스노야르스크市의 노동시장 환경
4.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기업체 구조 분석
 - 1) 치타市의 기업체 구조 및 현황
 - 2) 울란우데市의 기업체 구조 및 현황
 - 3) 이르쿠츠크市의 기업체 구조 및 현황
 - 4) 크라스노야르스크市의 기업체 구조 및 현황
5. 끝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유럽에 무게 중심을 두어 왔던 러시아의 지역 개발 정책은 러시아의 유럽 지역이 성장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도시들은 자연스럽게 유럽 지역에 형성되었고, 동일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모여드는 결과를 낳았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市에 인구가 집중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러시아 제3의 도시이며 시베리아 최대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市는 서시베리아에 위치해 있고, 그 뒤를 잇는 옴스크市 역시 서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다.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모여드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개발정책의 원인과 결과로 작용된다. 동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순위는 러시아의 유럽 지역과 서시베리아 다음으로 밀려나 있다. 노동시장 역시 이에 준한다.

* 본 연구는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2S1A2A 3049289).

동시베리아를 대표하는 도시는 자바이칼 크라이의 치타市, 부랴트 공화국의 울란우데市, 이르쿠츠크州의 이르쿠츠크市,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크라스노야르스크市¹⁾ 등이다. 이들 동시베리아 지역은 경제지리학 측면에서 서부러시아와 동부러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서시베리아는 유럽러시아의 경제구조에 편입되어 발전을 거듭해 왔고, 현재의 극동러시아(특히, 극동지역)는 러시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동시베리아는 어느 쪽의 경제관계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극동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동시에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베리아에 해당되는 자바이칼 지역의 개발과정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본 글은 동시베리아 지역 연구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고용시장 환경에 기초해서 동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를 비교 관점에서 분석한다.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단위체의 하나인 사회 현상(특히, 인적자원 등)을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을 노동시장 환경에 접목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역 연구가 아니라, 노동시장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역 연구이다.

본 연구는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고용시장 환경을 분석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만족하고 있는 한국의 관심을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얻은 결과와 함께, 시베리아의 개별지역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상기 4개 연방 주체의 주도(州都)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작업은 동시베리아 경제권에 대한 심화 연구,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략적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의 전략적 동시베리아 정책과 국내 기업체의 차별화된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된다. 필자가 2014년 2월 초순에 15일 동안 동시베리아의 대표적인 도시인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주도인 크라스노야르스크市, 이르쿠츠크州의 주도인 이르쿠츠크市, 부랴트 공화국의 주도인 울란-우데市, 자바이칼 크라이의 주도인 치타市를 방문했다. 현지에서 실시 조사한 내용과 지역 내 전문가들과의 면담에서 얻은 결과물을 취합하고,²⁾ 현지 개별 지역 단위의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최신 자료³⁾를 분석하면서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노동시장 환경을 비교 분석한

1) 크라스노야르스크市는 시베리아 제3의 도시이다.

2) 현지에서 면담한 지역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 있는 시베리아연방대학교의 라주토(Лазуто Н.В.), 이르쿠츠크市에 있는 러시아 법학(재판) 아카데미 동시베리아 지부의 스테파넨코(Степаненко Д.А.) 학술분과 부총장 및 헤가이(Хегай А.В.), 그리고 치타市에 있는 자바이칼 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동양학과의 아브라모바(Абрамова Н.А.) 교수 등이다.

3) 본 글에서 활용되는 지역 통계청 자료는 아래와 같다.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иркутского район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3);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 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гионы СФО.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Иркутск 2013 (Иркутск: 2013);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다. 수도(州都) 이외의 도시가 개발되는 경우도 있지만,⁴⁾ 필자가 직접 실지조사를 마친 개별 주체의 중심도시 만을 대상으로 한다.



현지 방문 기간 동안 실시된 지역전문 면담,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담화, 그리고 지역 통계청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고 경제 현상에 대한 연구는 상기 지역의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기초되어 이루어진다. 짧은 시간, 그리고 소수 몇몇 사람과의 미팅에서 얻은 결과가 지역적 성격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지조사를 통해 정리된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지역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Иркутск: 2013);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года (Улан-Удэ: 2014); Город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лан-Удэ: 2013);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Крайний север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районов 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 (Чита: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 (Чита: 2013); Прогноз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Чита: 2013);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Город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Чита: 2013);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기타 지역 단위의 통계청 자료 십여 권.

- 4) 특히, 부랴트 공화국과 자바이칼 크라이의 남부지역이 중국 및 몽골과 연결되어 남부 국경 도시[예를 들어, 자바이칼 크라이의 크라스노카멘스크(Краснокаменск)市와 보르자(Борзя)市]가 개발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개별 주체의 중심지 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3.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노동시장 환경 분석

1) 치타市の 노동시장 환경

자바이칼 크라이의 주도인 치타市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6,074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치타市의 전체 인구는 33만 1천 8백 명이다.⁵⁾ 동일 市의 크기가 534km²인 점을 감안한다면, 인구밀도는 1km² 당 6.2명이다.⁶⁾

[표3-1-1] 치타市 인구 수(1월 1일, 명)

		2011	2012	2013
치타市 전체		325,233	327,423	331,346
행정지역별	중앙 지구	113,314	113,278	113,404
	인고진스키 지구	76,034	78,020	79,546
	젤러즈노다르즈니 지구	49,752	50,792	52,007
	체르노프스키 지구	86,133	85,333	86,389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с. 14.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타市의 전체 인구는 미미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망자에 대해 출생아 수의 증가 현상과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 수가 유출 인구보다 많은 사실 관계에 기인한다. 치타市 전체 인구가 증가된다는 사실은 노동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치타市 전체 인구수에서 노동 가능 인구는 65% 정도에 달한다. 이들을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의 경우 70%, 여성은 59.9%이다. 그리고 치타市 고용국에 등록된 2012년 평균 노동자 수(소기업체 제외)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다. 이들 노동자들이 지역 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몇몇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평균 노동자 수에서 가공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5,190명이고,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분배 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6,528명이다.⁷⁾

[표3-1-2] 고용 및 실업자 수(소규모 기업체 제외)

	2010	2011	2012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등록 노동자 평균(겸직 및 미등록 노동인구 제외), 천명	98.9	100.5	100.5
국가고용기관에 등록된 실업자(년 말, 명)	2,312	2,261	1,521
실업자 중 여성, 명	1,425	1,542	949
실업 수에 대한 %	61.6	68.2	62.4

5) 자바이칼 크라이의 전체 인구는 2013년 1월 1일 현재 1095.2천 명이다.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 (Чита: 2013), с. 17.

6)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с. 5.

7)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Город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Чита: 2013), с. 15 참조.

국가고용등록기관에 신고 된 기업의 노동자 수요 (년 말, 명)	754	1,210	938
---------------------------------------	-----	-------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с. 21.

치타市 노동자의 임금은 업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012년 기준 노동자의 임금에서 가공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6,374 루블이었고,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관련 사업체에 종사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1,016 루블이었다.⁸⁾ 그리고 자바이칼 크라이에 소속된 개별 지역 단위의 평균 임금 수준에서는 모고차(Могоча, 35,189 루블) 지역의 그것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치타市였다. 치타市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다.

[표3-1-3] 치타市 노동자의 평균 임금(루블)

	2008	2009	2010	2011	2012
명목 가산 임금 평균	18,134	19,772	24,581	27,315	31,286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с. 6.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바이칼 크라이에 소속된 주요 도시 단위에서 치타市 노동시장 환경 변수가 차지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인구 30.3%, 노동자 수 31.6, 그리고 고정자본 투자 20.6%이다.⁹⁾

[표3-1-4] 자바이칼 크라이 주요 도시의 노동시장 환경(소기업 제외)

	인구(2013.1.1 기준)	노동자 월평균 임금(루블)	고정자본 투자(천, 루블)
치타	331346	31286	11886190
발레이	12051	18349	19629
보르자	30308	25939	398923
크라스노카멘스크	55418	27129	3507233
페트로프스크-자바이칼스키	17840	22263	158359
모고차	13626	35189	1086236
네르친스크	14945	18756	164859
스레첸스크	6678	15802	30104
힐록	11311	29465	788192
실카	13535	22113	186147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Город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Чита: 2013), с. 6, 7.

8) Забайкалкрай стат, *Город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Чита: 2013), с. 16 참조.

9) Там же, сс. 10, 11.

2) 울란우데市の 노동시장 환경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市는 모스크바市에서 동쪽으로 5,532km 지점의 동시베리아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3,500km 떨어져 있다. 2013년 1월 현재 부랴트 공화국의 전체인구가 97만 1천 8백 명이며, 이들 중에서 41만 6천 1백 명이 동일 공화국의 수도인 울란우데市에 거주하고 있다.

[표3-2-1] 울란우데市の 인구 변화(1월 1일, 천명)

지역	2011	2012	2013
부랴트 공화국(전체)	971.5	971.4	971.8
울란우데市	405.9	411.6	416.1

Бурятстат,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54.

울란우데市の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사망자 수에 비해 출생자 수가 많아 자연 증가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자연증가 현상에 더해 동일 지역으로의 이주 현상이 가해지면서 울란우데市の 전체 인구는 미미하지만 증가되고 있다.

[표3-2-2] 울란우데市の 이민 현황(명)

	유입(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출(차 지역으로)			이민 증감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전체	10,891	13,812	14,891	7,061	9,625	12,669	3,830	4,187	2,222
지역내부	7,290	9,028	9,177	2,940	4,449	6,231	4,350	4,579	2,946
지역간	3,406	4,480	5,537	4,079	5,120	6,348	-673	-640	-811
국제이민	195	304	177	42	56	90	153	248	87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9.

울란우데市 소재 기업체에 고용되어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가고용기관에 공식 등록된 노동자들의 분포 상황을 보면, 울란우데市の 산업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동자들이 특정의 산업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울란우데市的 산업 구조가 발달된 것은 아니지만, 빈약한 상황 속에서 다양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3-2-3] 울란우데市の 산업 영역별 평균 노동자 수(명)

		2010	2011	2012
전체		111,782	110,332	109,186
경제 활동 영역	농업, 산림 경제	744	1544	913
	어업, 양어(업)	156	135	131
	가공생산	21,309	20,824	20,341

별	음료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2,754	2,928	2,776
	섬유 및 재봉 산업	105	53	94
	출판 인쇄 활동	244	247	238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184	119	126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설비 생산	1,702	1,719	1,670
	수송기관 및 설비 생산	13,501	13,415	13,264
	전력, 증기 및 뜨거운 물 생산 및 배급	7,227	7,734	7,665
	건축	2,845	3,031	3,096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 품 수리	2,595	2,776	3,534
	호텔 및 식당	1,506	1,414	1,284
	운송 및 통신	6,358	6,481	6,682
	금융 산업	3,641	3,642	3,728
	부동산 매매, 임대, 기타 서비스 제공	7,258	7,676	7,520
	국가 행정 및 의무사회보장	21,199	19,922	18,277
	교육	18,177	17,282	17,097
	보건 및 사회봉사 제공	13,922	13,778	14,214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4,648	4,570	4,472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12.

울란우데市 노동자들은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울란우데市의 경제 상황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도시의 그것보다 빈약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다른 주체의 중심 도시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부랴트 공화국의 평균 임금보다는 높게 책정되고 있다.

[표3-2-4] 울란우데市 노동자의 평균 월급

	월평균 명목 가산 임금, 루블			실질 가산 임금, 전년 대비 %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부랴트 공화국	17999.7	19924.0	23100.7	104.6	101.3	110.0
울란우데 市	18837.0	21904.6	24728.0	97.0	108.0	107.1

Бурятстат,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125.

울란우데市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산업 분야 및 업종별 차이를 보인다. 섬유 및 재봉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제일 낮다. 반면에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그것이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수산 및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2-5] 울란우데市 경제 영역별 노동자의 평균 월급(루블)

		2010	2011	2012
전체		21,284	23,670	27,180
경 제 활 동 영 역	농업, 산림 경제	16,558	10,734	22,273
	어업, 양어(업)	15,013	18,247	18,728
	가공생산	21,614	24,520	27,542
	음료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20,167	21,733	24,419
	섬유 및 재봉 산업	4,214	4,712	4,976
	출판 인쇄 활동	15,827	16,773	21,055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25,242	24,313	25,259
	전기 기계 및 전기설비 생산	19,759	21,512	24,290
	수송기관 및 설비 생산	23,887	26,678	30,137
	전력, 증기 및 뜨거운 물 생산 및 배급	23,891	26,341	28,832
	건축	23,563	25,404	27,516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 품 수리	16,898	18,651	21,462
	호텔 및 식당	10,768	11,665	12,850
	운송 및 통신	23,336	26,720	28,679
	금융 산업	41,807	45,035	51,696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기타 서비스 제공	23,614	25,858	27,977
	국가 행정 및 의무사회보장	28,019	30,480	38,060
	교육	13,329	14,654	17,024
	보건 및 사회봉사 제공	15,537	17,757	21,675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4,774	16,563	19,312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14.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가장 높고, 교육과 숙박업을 비롯하여 전통산업(농업, 산림, 수산업, 섬유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섬유 및 재봉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그것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동시베리아의 기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울란우데市의 노동시장 환경 역시 좋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내 실업자 문제와 연결된다. 정부기관에 공식 등록된 실업자 수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비공식 실업 및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수준을 감안한다면 동일 지역의 노동시장이 다른 도시보다 열악한 실정이다. 국가고용기관에 등록된 울란우데市의 실업자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 실업자들 중에서 실업 보조금을 수령 받고 있는 정도를 밝힌다.

[표3-2-6] 울란우데市の 실업자(년 말, 명)

	등록된 실업자 수			이들 실업자 중 실업 보조금 수령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전체	3,760	2,871	2,244	3,417	2,611	2,112
16~29세	1,270	835	622	1,193	775	598
여성	2,328	1,804	1,396	2,115	1,629	1,315
근무 불능자 (장애인, 노약자 등)	559	430	315	453	384	263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11.

3) 이르쿠츠크市の 노동시장 환경

바이칼 호수를 끼고 있는 이르쿠츠크는 국내에 많이 알려진 지역이다. 이르쿠츠크州의 주도가 이르쿠츠크市이다. 동일 지역의 인구 변화 양상은 다른 연방 주체와 마찬가지로 중심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르쿠츠크州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지만, 동일 州의 중심 도시인 이르쿠츠크市の 인구는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 상황은 이르쿠츠크 지역의 노동시장이 이르쿠츠크市에서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3년 이르쿠츠크市 인구의 자연증가 현상은 계속되었다. 2013년의 출생자 수는 9,288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7,170 명이었던. 2,118 명의 인구 증가가 있었다. 2012년의 그것은 9,167명과 7,154명이었고, 그 결과 인구증가 수는 2,013명이었던. 그리고 2013년의 이르쿠츠크市 인구 증가는 이민 현상에서도 나타났다. 2013년에 이르쿠츠크市로 이주해 온 사람은 19,641 명이었고, 외부로 유출된 인구는 14,960 명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면, 이민 수는 +4,681명으로 나타난다.¹⁰⁾ 그 결과 2013년 1월 1일 현재, 이르쿠츠크市の 전체 인구는 60만 6천 명을 넘어섰다.

[표3-3-1] 이르쿠츠크市の 인구(1월 1일, 명)

지역	2011	2012	2013
이르쿠츠크州	2,427,900	2,424,355	2,422,026
이르쿠츠크市		597,846	606,137

Иркутскстат,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Иркутск: 2013), с. 3.

상기 인구들 중에서 30%가 넘는 19만 여 명이 중 및 대기업에 고용되어 이르쿠츠크市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13년 12월 기준 이르쿠츠크市的 중견 및 대기업에서 근무한 노동자 수는 19만2천7백 명이었다.¹¹⁾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된 수치이다. 이들 노동자들의 12월 평균 임금 수준은 4만 루블이 넘는다. 2013년 임금을 평균하면 3만6천 루블 정도에 달하다.

10)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 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с. 37.

11) 15인 이하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소규모 기업체 제외.

[표3-3-2] 이르쿠츠크市의 노동환경(2013년 기준)

	절대치		전년동기 대비 %	
	12월	1~12월	12월	1~12월
평균 노동자 수(중 및 대기업), 천 명	192.0	192.7	100.5	101.1
등록된 공식 실업자 수, 시기 말, 명	1,447	비교조사 불가	88.1	비교조사 불가
월평균 명목 임금(중 및 대기업), 루블	40,152	36,160	112.9	111.7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 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с. 3의 재정리.

2013년 11월 기준으로 이르쿠츠크市 노동자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이르쿠츠크市가 동시베리아의 대표적인 교육 중심 도시로 성장해 왔고, 그러한 교육정책의 결과 보다 많은 교육기관이 위치하도록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표3-3-3] 이르쿠츠크市 노동자의 산업 영역별 근무 현황(기준: 2013년 11월)

	노동자, 명	비율(%)	
		전체 대비	2012년 11월 대비
전체	192,020	100	100.5
농업, 사냥, 산림 경제	426	0.2	100.5
유용광물 채굴(취)	120	0.1	78.9
가공생산	22,359	11.6	98.8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3,450	1.8	100.2
섬유 및 재봉 산업	249	0.1	95.0
피혁 제조, 피혁 제품, 신발 생산			77.1
목재 가공 및 목재제품 생산	242	0.1	109.0
셀룰로스-제지 생산; 출판 인쇄 활동	454	0.2	89.4
화학제품 생산	686	0.4	106.5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875	0.5	91.7
야금(금속) 및 금속제품 생산	668	0.3	109.9
기계 및 설비 생산(무기 및 타악 생산 제외)	1,413	0.7	89.0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기기 장치 생산	962	0.5	99.5
수송기관 및 설비 생산			101.2
기타 생산	558	0.3	79.6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6,830	3.6	104.6
건설	11,344	5.9	109.7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수단,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 품 수리	14,959	7.8	113.9
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를 통한 상업 활동, 그들의 기술적 서비스 및 수리	1,780	0.9	136.2
도매상 (대표자를 통한 상행위 포함, 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 활용한 상업 활동 제외)	6,445	3.4	105.9
기타 다양한 형태의 상업 활동; (개인)일상 생활용품 수선	6,734	3.5	117.4

호텔 및 식당	3,148	1.6	98.7
운송 및 통신	22,641	11.8	99.6
(포함) 연락(관계)	5,315	2.8	97.5
금융 산업	8,395	4.4	101.2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서비스 제공	18,749	9.8	99.7
(포함) 학술연구 및 작업	4,228	2.2	97.4
국가 행정 및 군사안보 보장; 의무사회보장	24,773	12.9	98.8
교육	27,676	14.4	94.5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24,279	12.6	100.0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6,318	3.3	102.2
(포함) 휴양 및 오락, 문화 및 스포츠 기관 활동	3,974	2.1	102.9

보기: 노동자 15인 이상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했며, 외국 겸직 자 수는 제외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 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сс. 19-20.

4) 크라스노야르스크市的 노동 시장 환경

2013년 1월 1일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전체 인구는 2백84만6천6백여 명에 달한다. 크라스노야르스크市가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주도이다.¹²⁾ 시베리아 연방지구에서 노보시비르스크와 옴스크市에 이어 제3의 도시로 성장했다.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동쪽으로 약 4,100km 떨어져 있다. 크라스노야르스크市는 동시베리아의 대규모 공업 및 문화 중심지이다.

지역 통계청의 전망치에 따르면, 2013년 12월 1일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전체 인구는 2852.0 천 명이다. 2013년 초의 그것보다 5천 5백 명이 증가된 수치이다.¹³⁾ 그리고 크라스노야르스크市的 전체 인구는 1035.2천 명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초의 그것보다 1만8천 명이 증가된 것이다.¹⁴⁾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 수는 29만 9천 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된 수치이며, 2013년 10월에 비해 0.2% 감소된 수치이다.¹⁵⁾ 그리고 2013년 12월 말 현재 3천 6백 명의 시민이 국가 고용기관에 미취업 상태로 등록되어 있다. 공식 실업자 수는 2천 3백 명이고, 2천 1백 명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¹⁶⁾

2013년 11월 기준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市 노동자의 월평균 명목가산임금은 36823.6 루블이다. 전년 동기 대비 8.7% 상승된 수치다. 2013년 10월의 그것에 비해 1.1% 상승되었다.¹⁷⁾ 그리고 2013년 1-11월 평균 임금은 34,830.6루블로 집계되었다. 산업 영역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주요 도시는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 노릴스크(Норильск), 아чин스크(Ачинск), 예니세이스크(Енисейск), 칸스크(Канск), 레소시비르스크(Лесосибирск), 미누신스크(Минусинск), 두딘카(Дудинка) 등이다.

13)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 135.

14)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 57.

15) 노동자 현상 분석에 관련된 수치는 국가고용기관에 등록된 자료에 기초되며, 계산된 평균 노동자 수치는 15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회사(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Там же, с. 49.

16) Там же, с. 51.

17) Там же, с. 44.

[표3-4-1] 산업 영역별 노동자의 월평균 명목가산임금(사회적 성격의 지불 제외)

		2013년 11월			2013년 1~11월		
		루블	비율(%)		루블	비율(%)	
			2012년 11월 대비	2013년 10월 대비		2012년 1~11월 대비	도시 평균
경제 활동 영역 별	전체	36,823.6	108.7	101.1	34,830.6	111.3	100
	농업, 사냥, 산림 경영	28,793.0	101.1	104.1	25,929.0	96.8	74.4
	어업, 양어업)	...	118.1	116.9	...	106.9	...
	유용광물 채굴(취)	96,897.8	108.3	99.2	98,002.9	103.7	2.8p
	연료-에너지 유용광물 채굴(채취)	100,668.3	107.6	99.2	99,520.5	101.1	2.9p
	연료-에너지를 제외한 유용광물 채굴(취)	81,231	111.4	99.0	91,760.2	117.6	2.6p
	가공 산업	32,432.4	108.1	98.2	31,852.1	112.9	91.4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29,484.3	106.4	100.7	29,197.3	108.9	83.8
	섬유 및 재봉 산업	7,710.6	129.2	100.5	7,540.8	146.5	21.6
	피혁 제조, 피혁 제품, 신발 생산	...	106.6	135.3	...	107.7	...
	목재 가공 및 목재제품 생산	8,370.0	100.0	96.9	8,995.1	111.2	25.8
	셀룰로스-제지 생산; 출판 인쇄 활동	23,769.9	104.0	96.0	23,376.2	109.7	67.1
	화학제품 생산	26,456.8	104.7	92.3	29,389.9	106.6	84.4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14,947.7	109.6	95.7	14,772.7	117.9	42.4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32,309.1	110.4	91.7	33,538.2	110.6	96.3
	야금(금속) 및 금속제품 생산	37,305.9	107.4	100.1	36,764.6	107.3	105.6
	기계 및 설비 생산	33,709.8	120.5	100.1	31,431.7	119.5	90.2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기기 장치 생산	44,011.1	100.4	102.5	39,543.1	117.1	113.5
	수송기관 및 설비 생산	36,149.1	104.7	96.1	35,145.5	112.9	100.9
	기타 생산	25,990.5	116.5	101.0	23,894.6	109.6	68.6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41,343.1	102.1	99.5	40,750.0	106.8	117.0
	건축	34,395.1	111.6	99.5	32,588.4	109.5	93.6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 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용품 및 개인 용품 수리	26,453.4	109.4	96.7	26,033.2	110.0	74.7
	호텔 및 식당	19,628.6	108.7	99.6	19,141.1	107.4	55.0
	운수 및 통신	38,940.8	105.7	94.6	38,712.5	107.6	111.1
	금융 활동	56,166.6	117.6	116.5	52,937.2	106.0	152.0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시설 제공	42,555.1	101.0	97.6	42,260.0	108.1	121.3
	국가 행정 및 군사안전보장; 사 회보장	52,196.4	114.2	102.7	47,572.4	116.0	136.6
	교육	28,166.0	118.9	106.2	23,877.7	120.0	68.6
	보건 및 사회봉사 제공	28,919.0	111.9	104.5	26,627.4	120.0	76.4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적 서비 스 제공	29,430.2	112.5	100.4	26,799.2	113.5	76.9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с. 45-47.

크라스노야르스크市 경제활동에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2013년 1-9월 기준으로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역 내 조직체(기업체 등)에서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 22,368명에 달한다. 가공생산, 도소매 및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영역에 외국자본이 집중적으로 도입되는 모습을 보 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지역 내 노동시장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가 된다. 외국자본 이 유치된 산업 영역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현지 노동자 상황을 정리한다.

[표3-4-2] 외국자본 참가 조직체의 평균노동자 수(해외 겸직 자 제외, 2013년 1-9월)

		노동자 수	전체 대비 %
전체		22,368	100
경제 활동 영역 별	농업, 사냥, 산림 경제	...	...
	유용광물 채굴(취)	349	1.5
	가공생산	6593	29.5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1124	5.0
	목재 가공 및 목재제품 생산	...	...
	셀룰로스-제지 생산; 출판 및 인쇄 활동	...	...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	...
	야금(금속) 및 금속제품 생산	...	...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기기 장치 생산	...	...
	기타 생산	195	0.9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2082	9.3
	건설	2573	11.5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수단,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 품 수리	5004	22.4
	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를 통한 상업 활동, 그들의 기술적 서비스 및 수리	293	1.3
	도매업 (대표자를 통한 상행위 포함, 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 활용한 상업 활동 제외)	1980	8.9
	소매업(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를 통한 상업 활동 제외; (개인)일상 생활용품 수선	2731	12.2
	호텔 및 식당	462	2.1
	운송 및 통신	1393	6.2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서비스 제공	3644	16.3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137	0.6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30	0.6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с. 27-28.

4.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기업체 구조 분석

1) 치타市の 기업체 구조 및 현황

지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현재 자바이칼 크라이에 등록된 전체 기업체 수는 16,150개이다. 상기 등록된 기업체들 중에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수선업(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용품 및 개인 활용 물품의 수리)이 전체의 24.9%;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관련 사업 및 시설 제공이 14.3%; 그리고 건설업이 9.3%이다.¹⁸⁾ 물론, 이러한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주도인 치타市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타市の 기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4-1-1] 치타市 기업체 수(1월 1일, 수)

		2010	2011	2012	2013
치타市 전체		8,175	8,479	8,052	8,438
행정구역별	중앙 지구	4,958	5,117	4,825	5,099
	인고진스키 지구	1,492	1,541	1,508	1,560
	젤러즈노다르즈니 지구	903	950	914	941
	체르노프스키 지구	817	868	802	837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с. 52.

치타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8,438개(2013년 1월 기준) 기업체들 중에서 외국 소유인 191개를 제외한 모든 기업체에 대한 관할권이 러시아에 있다. 그리고 러시아 소유 기업체들의 절대다수가 개인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표4-1-2] 치타市 기업체의 소유형태 분류(1월 1일)

		2010	2011	2012	2013
전체 기업체 수		8,175	8,479	8,052	8,438
러시아 소유	전체	7,945	8,234	7,794	8,158
	국가 소유	506	487	479	467
	지방자치 소유	254	252	223	219
	개인 소유	6,497	6,906	6,568	6,942
	소비협동 조합 소유	11	10	7	9
	사회 및 종교단체 소유	567	481	430	431
	혼합 러시아 소유	110	98	85	88
외국 소유		135	149	177	191
러시아와 외국의 공동 소유		95	96	81	89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с. 54.

러시아 중앙정부의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 개발정책이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자

18)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 (Чита: 2013), с. 149.

바이칼 지역의 행정 중심지인 치타市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동일 지역에 다양한 조직체(기업체 등)들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치타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를 업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모습이 보인다.

[표4-1-3] 업종별 기업체 수 현황(1월 1일, 수)

		2010	2011	2012	2013
전체 기업체 수		8,175	8,479	8,052	8,438
경 제 활 동 영 역 별	농업, 사냥, 산림 경영	213	219	219	212
	어업, 양어(업)	5	5	5	5
	유용광물 채굴(취)	83	92	104	123
	가공 산업	525	550	478	499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40	40	42	47
	건축	1,048	1,102	1,049	1,109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용품 및 개인 활용 물품의 수리	2,472	2,399	2,384	2,457
	호텔 및 식당	153	155	153	179
	운수 및 통신	535	593	599	647
	금융 활동	209	212	211	238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시설 제공	1,460	1,585	1,563	1,654
	국가 행정 및 군사안전보장; 의무사회보장	179	175	164	158
	교육	277	284	282	299
	보건 및 사회봉사 제공	187	190	188	202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적 서비스 제공	763	668	607	605
	가정관리형 서비스 제공	2	2	2	2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제 활동	15	2	-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сс. 53-54.

결국, 치타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는 8,440개 정도에 달한다. 이들 기업체의 업종별 분류에 의하면 치타市의 고용시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치타市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는 동일 지역의 사회경제 및 개발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경공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건축 및 부동산 관련 수익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러한 현실이 치타市의 노동시장 환경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하나가 될 것이다.

2) 울란우데市의 기업체 구조 및 현황

울란우데市는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이며, 면적은 377km²이다.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울란우데市의 인구는 41만 6천 1백 명이다. 참고로, 동일 시기의 부랴트 공화국 전체 인구는 97만 1천 8백 명이다.¹⁹⁾

울란우데市에 중앙백화점을 비롯한 몇 개의 소규모 백화점이 있지만, 지역 경제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다. 울란우데市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에 부랴트 공화국 경제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부랴트 공화국 지역발전 фонд>가 위치해 있고, 창업 및 자금조달(은행)관련 기관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울란우데市에 위치한 기업체 수는 1만 2천개에 육박할 정도이다.

[표4-2-1] 울란우데市의 기업체 현황(1월 1일)

	2011	2012	2013
부랴트 공화국	18,943	18,950	18,733
울란우데 市	11,480	11,607	11,650

Бурятстат,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277.

* 소규모 기업체 포함

울란우데市 기업체의 소유 형태별 분류를 알아본다. 울란우데市의 전체 기업체들 중에서 평균 84%가 개인 소유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의 소유를 제외한 개인 소유 기업체의 재무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울란우데市 기업체의 소유 형태를 보면, 국가소유가 4%, 지방자치기관 소유 2.3%, 개인소유 84.3%, 그리고 기타 소유 형태가 9.4%로 집계되었다.

[표4-2-2] 울란우데市 기업체의 소유 형태별 분류(연말, 수)

	2010		2011		2012	
	수	%	수	%	수	%
전체	11,480	100	11,607	100	11,650	100
국가 소유	503	4.4	469	4.0	466	4.0
지방자치 기관 소유	288	2.5	279	2.4	268	2.3
개인 소유	9,573	83.4	9,783	84.3	9,825	84.3
기타	1,116	9.7	1,076	9.3	1,091	9.4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28.

울란우데市 전체 기업체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게 되면, 지역 경제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울란우데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의 다수가 건축(건설업), 운송수단을 비롯한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울란우데市의 산업 및 고용구조를 짐작하도록 하며,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역 개발을 위한 자금 투자에서 건설(건축) 영역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기계설비 및 교통관련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부동산관련 투자가 전체 투자의 32.8%에 달했다. 그리고 운송 및 통신 영역에 15.6%가 투자되었다.²⁰⁾ 이러한 현실이 자연스럽게 건축 및 운송관련 기업체의 형성 및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19) Бурятста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Бурятия 2013 (Улан-Удэ: 2013), с. 33.

20)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с. 29-30 참조.

[표4-2-3] 울란우데市 기업체의 경제활동 영역별 분류(연말, 수)

		2010	2011	2012
전체 기업체 수		11,480	11,607	11,650
경 제 활 동 영 역 별	농업, 산림 경영	298	298	297
	어업, 양어(업)	6	6	5
	유용광물 채굴(취)	113	134	137
	가공 산업	834	856	839
	전력, 증기 및 뜨거운 물 생산 및 배급	86	94	91
	건설	1,450	1,437	1,513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용품 및 개인 활용 물품의 수리	2,979	2,936	2,864
	호텔 및 식당	365	351	373
	운수 및 통신	872	902	888
	금융(재정) 활동	240	250	277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기타 시설 제공	2,493	2,596	2,592
	국가 행정 및 의무사회보장	180	176	176
	교육	381	390	394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222	238	248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956	939	952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с. 27.

3) 이르쿠츠크市의 기업체 구조 및 현황

2013년 1월 1일 현재 이르쿠츠크市의 인구는 60만 6천 1백 37명이다.²¹⁾ 참고로, 동일 시기의 이르쿠츠크州 전체 인구는 2백 42만 2천 명이 조금 넘는 수치를 보인다.²²⁾ 이르쿠츠크市의 행정 중심지는 키로프 광장 주변이다. 키로프 광장을 중심으로 이르쿠츠크 州의회 및 州행정부, 그리고 市행정부와 市의회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州행정부 및 州의회 바로 옆에 러시아 에너지 회사가 자리하고 있다. 원유 및 가스, 그리고 석탄에 기초된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르쿠츠크市에 있는 지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초 이르쿠츠크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기업체 수(본사에서 독립된 기업 활동 기관 포함)는 3만 2천 8백 개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에 비해 4.9%인 1545개 회사가 증가된 것이다. 이들 중에서 다수 기업체들은 도매 및 소매업, 일상생활 용품 수선(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용품 및 개인 활용 물품의 수리), 그리고 건설(부동산) 관련 상업 활동에 관계되었다.²³⁾ 이르쿠츠크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기업체의 업종별 분류는 아래와 같다.

21) 현지인들은 이르쿠츠크市 전체인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 상주인구 60여만 명에 더해, 유동인구 20만 명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 Иркутскстат,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Иркутск: 2013), с. 3.

23)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 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с. 33.

[표4-3-1] 이르쿠츠크市 기업체의 업종별 분류(2014년 1월 기준)

		기업체 수	
		개	전체 대비 %
전체 기업체 수		32,796	100
경 제 활 동 영 역 별	가공 산업	2,397	7.3
	건설	4,035	12.3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용품 및 개인 활용 물건의 수리	11,004	33.6
	운수(수송) 및 통신	2,425	7.4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시설 제공	6,707	20.5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1,957	6.0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 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с. 33.

이르쿠츠크市 기업체의 소유 형태별, 그리고 업종별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일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밝힌 바 있는 이르쿠츠크市 전체인구, 노동가능 인구, 임금 등에 관련된 내용을 상기하고, 이에 이르쿠츠크市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의 소유 형태별, 업종별 내용을 첨가한다면 동일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을 파악하는 작업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4-3-2] 이르쿠츠크市 기업체의 소유 형태 및 활동 영역별 분류(지점 포함; 개)

		전체	소유형태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유		개인 소유		공동 러시아 소유	
			전체	동일 형태 기업 수 대비 %	전체	동일 형태 기업 수 대비 %	전체	동일 형태 기업 수 대비 %
전체 기업체 수		32,796	1,023	3.1	29,892	91.1	229	0.7
영 역 별	농업, 사냥 및 산림 경 영	734	12	1.6	691	94.1	6	0.8
	유용광물 채굴(취)	205	1	0.5	188	91.7	-	-
	가공 산업	2,397	17	0.7	2,289	95.5	16	0.7
	전력, 가스 및 물 생산 및 배급	141	11	7.8	118	83.7	10	7.1
	건설	4,035	11	0.3	3,950	97.9	7	0.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 생활 및 개인 용품 수리	11,004	22	0.2	10,746	97.7	22	0.2
	호텔 및 식당	752	12	1.6	718	95.5	-	-
	운수 및 통신	2,425	64	2.6	2,309	95.2	20	0.8
	금융(재정) 활동	877	5	0.6	750	85.5	40	4.6
	부동산 매매(거래), 임 대, 시설 제공	6,707	124	1.8	6,414	95.6	77	1.1
	교육	690	330	47.8	338	49.0	4	0.6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541	106	19.6	395	73.0	7	1.3
	기타 공익, 사회 및 개 인 서비스 제공	1,957	65	3.3	907	46.3	19	1.0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 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с. 34.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르쿠츠크市 기업체의 소유 형태 및 활동 영역은 동시베리아의 다른 도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에너지 관련 산업은 국가소유로 남겨져 있지만, 다양한 기업체들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개인 기업체의 활동 분야 역시 동시베리아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가공 및 서비스 산업, 그리고 건축(부동산 관련 포함) 관련 기업체가 보다 많다.

4) 크라스노야르스크市의 기업체 구조 및 현황

2013년 12월 1일의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 전체인구는 2백85만2천 명이고, 중심도시인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 거주하는 인구는 1백만 3만 5천 2백 명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산업 및 인구 분포를 보면 크라스노야르스크市로 집중된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2014년 1월 1일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체 수는 전체 5만 7백 개를 넘는다. 이들 전체 조직체들 중에서 러시아 소유가 전체의 98.6%에 달한다. 이들 러시아 소유물들 중에서 개인 소유가 93%이다.

[표4-4-1] 크라스노야르스크市 조직체의 소유 형태별 분류(2014년 1월 1일 현재)

		조직 수	비율(%)	
			전체	2012년 대비
전체		50,734	100	106.8
러시아 소유	전체	50,018	98.6	106.7
	국가 소유	701	1.4	106.9
	연방 소유	396	0.8	111.9
	러시아연방 주체 소유	304	0.6	101.0
	지방자치 기관 소유	590	1.2	99.5
	개인 소유	47,102	92.9	107.0
	사회 및 종교단체(연합) 소유	1,330	2.6	101.9
	소비협동조합 소유	21	0.0	87.5
	혼합 러시아 소유	268	0.5	100.8
	국가협동조합 소유	2	0.0	66.7
	외국 거주 러시아 시민 소유	4	0.0	66.7
외국 소유		449	0.9	117.2
러시아와 외국의 공동 소유		267	0.5	106.8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 25.

지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체 수는 5만 7백 개를 넘어섰다. 이들 중에서 4만9천8백 개의 조직체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없는 개인 사업주로 계산된 수는 2만9천 8백 개이다.²⁴⁾ 50,734개 중에서 상업 조직인 법인은 45,138개(88.9%), 비상업조직인 법인이 4,731개(9.4%), 그리고 법인 권한 없이 형성된 조직-법적 회사가 865(1.7%)이다.²⁵⁾

24)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 23.

25) Там же, с. 24.

[표4-4-2] 크라스노야르스크市 조직체의 경제활동 영역별 분류(2014년 1월 1일)

		수	비율	
			전체	2012년 대비
전체 기업체 수		50,734	100	106.8
경 제 활 동 영 역	농업, 사냥, 산림 경영	959	1.9	100.7
	어업, 양어(업)	15	0.0	93.8
	유용광물 채굴(취)	207	0.4	111.9
	가공 산업	4,321	8.5	105.0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230	0.5	108.0
	건축	5,977	11.8	109.4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 상생활 용품 및 개인 활용 물품의 수리	17,907	35.3	106.2
	호텔 및 식당	941	1.9	111.5
	운수 및 통신	3,729	7.3	111.8
	금융 활동	1,060	2.1	105.7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시설 제공	10,607	20.9	105.7
	국가 행정 및 군사안전보장; 사회보장	290	0.6	122.9
	교육	912	1.8	101.4
	보건 및 사회 서비스 제공	956	1.9	107.1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2611	5.1	106.8
	가정관리 활동	6	0.0	100.0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с. 23-24.

상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도출된다. 전체 기업체 수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및 개인 용품 수선에 관련된 사업이 전체에서 30%를 넘고, 건축 및 부동산[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시설 제공 포함]관련 업종 역시 30%를 넘는다. 이들 업종이 지역 내 노동시장 환경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동시베리아의 다른 도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미미한 정도의 수치상 차이가 있을 뿐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市의 노동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는 동일 지역 통계청 및 지방정부가 동일 지역으로 유입되는 외국의 유통자본에 대해 갖는 관심이다. 2013년 10월 1일 현재, 크라스노야르스크市 영토 내에서 외국 자본이 참여하여 결성된 조직체 수는 236개였다. 이들 조직체들이 상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외국자본 유입이라는 단순 변수만을 본다면, 지역 내 노동시장 환경이 다른 도시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외국 자본이 참여하여 결성된 조직체 역시 도매 및 소매업을 포함하는 자동차 운송 기관, 오토바이, 일상생활 및 개인 용품 수선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건축 및 부동산[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시설 제공 포함]관련 업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업종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표4-4-3] 경제활동 영역별 외국의 유통자본 참가 조직 수(2013년 1-9월)

		조직 수	전체 대비 %
전체		236	100
경 제 동 역 영 역	농업, 사냥, 산림 경제	1	0.4
	유용광물 채굴(취)	3	1.3
	가공생산	20	8.5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 식료품 생산	4	1.7
	목재 가공 및 목재제품 생산	1	0.4
	셀룰로스-제지 생산; 출판 및 인쇄 활동	1	0.4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1	0.4
	야금(금속) 및 금속제품 생산	1	0.4
	전기 설비, 전자 및 광학 기기 장치 생산	1	0.4
	기타 생산	3	1.3
	전력, 가스, 물의 생산 및 배급	6	2.5
	건설	12	5.1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운송 수단, 오토바이, 일용품 및 개인 활용 품 수리	110	46.6
	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를 통한 상업 활동, 그들의 기술적 서비스 및 수리	15	6.4
	도매업 (대표자를 통한 상행위 포함, 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 활용한 상업 활동 제외)	55	23.3
	소매업(자동차 운송 수단 및 오토바이를 통한 상업 활동 제외; (개인)일상 생활용품 수선	40	16.9
	호텔 및 식당	8	3.4
	운송 및 통신	22	9.3
	부동산 매매(거래), 임대, 서비스 제공	46	19.5
	보건	4	1.7
	기타 공익,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제공	4	1.7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сс. 26-27.

5. 끝맺는 말

러시아의 동시베리아에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자바이칼 크라이의 치타市, 부랴트 공화국의 울란우데市, 이르쿠츠크州의 이르쿠츠크市, 그리고 크라스노야르스크 크라이의 크라스노야르스크市 등 4개 도시의 고용시장 환경을 조사 및 분석했다. 이들 도시의 노동시장 환경을 보면, 러시아 중앙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정책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대상지역으로 선택된 4개 도시가 갖는 수치상의 문제를 단순 비교하면서 노동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작업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모스크바에 가까운 도시일수록 노동시장 환경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인구 수, 등록 기업체 수, 그리고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 수준에서 그러하다.

[표5-1]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의 주요 노동시장 환경 비교

	치타	울란우데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인구수(2013년 1월)	331,346	416,100	606,137	1,035,200 (12월 추정치)
등록된 기업체 수(2013년 1월)	8,438	11,650	32,796 (2014년 1월)	50,734 (2014년 1월)
평균 노동자 수(천 명)	100.5	109.2	194.4	299.0
평균임금(2012년 말, 루블)	31,286	27,180	36,160 (2013년 기준)	34,830.6
국가교통기관에 등록된 공식 실업자 수(2012년 말, 명)	1,521	2,244	1,447	2,300 (2013년 12월)

상기 4개 도시의 노동시장 환경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기업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제조업(가공 산업 등) 및 관련 서비스 산업, 지역 개발정책의 원인과 결과로 파생된 건설 및 주택관련 사업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 4개 도시의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상기 특정 산업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이들 기업체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상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진출 전략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중앙정부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동시베리아 주요 도시(치타市, 울란우데市, 이르쿠츠크市, 크라스노야르스크市)에 대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베리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개별 도시 차원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동시베리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출 영역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종합 건설(이르쿠츠크 등을 비롯한 주요 관광시설 및 관련 인프라 건설, 차별화된 건축자재 및 단열재 시장 진출, 철도 및 도로 신축 및 증축사업, 서비스 시설을 갖춘 중저가 호텔 사업, 항공 노선 개발 및 부대시설 사업 등) 영역으로의 진출, 현지에서 생수관련(식수로 사용 가능한 바이칼 호수의 물, 지하 온천수, 가스가 있는 지하수 활용) 사업체 운영, 그리고 동시베리아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도로 상황 악화 및 기후 환경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에의 진출이다.

둘째, 개별 도시 단위에서 추진할 사업 영역 탐색이다. 이르쿠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市의 시장 규모 및 진출 조건 등은 비교적 양호하다. 한국 기업체의 진출은 이들 지역의 자원 활용에 기초된 기술 지원 사업이 유익해 보인다. 따라서 진출 환경(특히, 자원의 생산 및 가공, 그리고 유통 구조)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소 및 중견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재산업에 대한 진출 역시 필요하다. 현지의 산림자원이 목재 생산을 자극하고 있으나,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가공기술이 미흡하다. 따라서 목재 가공업을 중심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 이영형, 『러시아, 정치체제 구축과 발전전략 II. 정치과정, 개발정책, 안보정책』 (서울: 엠애드, 2012).
- 이영형, 『시베리아 지역연구: 공간에 대한 인식과 가치』 (서울: 엠애드, 2013).
- 이영형, “시베리아 및 극동연방지구 개황,” 최태강 엮음, 『러시아의 중앙·지방관계와 시베리아의 지방화 탐색』 (서울: 엠애드, 2013).
- В.Г.Глушковой и Ю.А.Симагина (Под ред.), *Федеральные округа России. региональная экономика* (Москва: КНОРУС, 2013).
- Бурятстат, *Бурятия 2013.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Улан-Удэ: 2013).
- Бурятстат, *Города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 Бурятстат, *Крайний север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 Бурят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еспублики бурятия.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года* (Улан-Удэ: 2014).
- Бурятстат, *Улан-Удэ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Улан-Удэ: 2013).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Города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Чита: 2013).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Прогноз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Чита: 2013).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муниципальных районов и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 (Чита: 2013).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байкальского края. 2013* (Чита: 2013).
- Забайкалкрайстат, *Чита в цифр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сборник* (Чита: 2013).
- Иркутскстат, *Иркут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гионы СФО.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3).
-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иркутской области.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 Иркут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Иркутск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13 года* (Иркутск: 2014).
- Иркутскстат,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Иркутск 2013* (Иркутск: 2013).
- Иркутскстат, *Числ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 муниципальным образованиям* (Иркутск: 2013).
-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города Красноярска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 Красноярскста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в 2013 году* (Красноярск: 2014).



러시아 지역별 주민 ‘삶의 질’의 변화와 비교

최우익 (한국외대)

2014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학문후속세대 대학원생 세션
유라시아의 정치 안보와 철도 인프라

사회자: 김영진(한양대)

발표 1

김진우 (한양대)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 : 나진-하산 프로젝트(TKR-TCR 철도) 경제,
정치적 함의연구

발표 2

양봉현 (한양대)

카스피 해 연안 5개국 해군 군비경쟁 실태 및 향후 전망

발표 3

조문정 (한양대)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 고찰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 나진-하산 프로젝트(TKR-TSR 철도) 경제·정치적 함의연구

김진우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목 차

- I. 서 론
- II.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 중앙아시아 중심
- III. 나진-하산 프로젝트
- V. 결 론

I. 서 론

유라시아는 전 세계 육지면적의 40%로 세계 인구의 약 71%가 살고 있고,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는 세계 최대의 단일 대륙이다. 많은 국가들이 유라시아 협력을 주장하며 다양한 체제와 역사·문화를 지닌 아시아와 유럽 각국이 포괄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유라시아 협력의 우선적 분야에 있어 최근 재부상 되는 실크로드의 개념은 교통·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중요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유라시아 관련된 실크로드의 재부상은 기존의 철도 중심이었던 철의 실크로드와는 다른 해상·항공·도로·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의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써 다양한 국제수송 회랑 구축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중단철도(TKR)와 대륙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를 기본 축으로 하여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에서의 기존 철의 실크로드 당시의 철도 인프라의 중요성은 현시점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한반도 분단이 유라시아 교류협력에 있어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상황이다. 하지만 2013년 9월 22일 남·북·러 3각 산업 중 하나인 TKR(한반도중단철도)-TSR(시베리아횡단철도) 연계 시범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의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재개통식과 2013년 11월 1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방한에서의 한·러 양국 나진-하산 프로그램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한반도 남·북간 신뢰회복과 경제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견인하는 핵심 과제를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륙횡단철도 인프라의 핵심 지역인 중앙아시아 철도망 중심으로 유라시아 관련 철도망의 현황과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에서의 TKR-TSR 연계 일환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연결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과 정치적인 합의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유라시아 철도망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중앙아시아의 철도 인프라 현황과 프로젝트에 대해 기존연구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다양한 유라시아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주는 경제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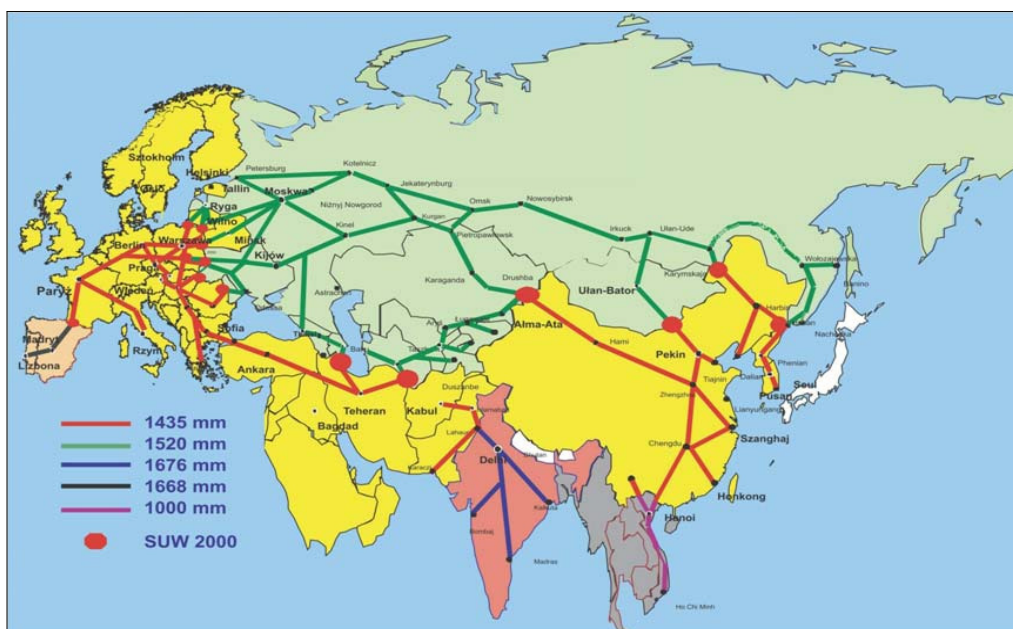
II.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 중앙아시아 중심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에서의 많은 국가들은 대륙횡단철도의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대륙횡단철도 인프라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크다. 이는 유라시아의 동서와 남북의 교차점의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각국 간 철도로 연계가 되어 있고 러시아와 연결 및 카스피 해 선박 운항 역시 운송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운송체계는 역내통합이나 국제교역의 관점에서 보면 연계망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낙후되어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각국 간 연계는 되어 있지만 분리된 독립국가들 간 국경 통과에 따라 생기는 통과(transit)의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많은 소비가 되는 것과 역내 인접 국가들과 외부 국가들을 연결하는 일부 대륙 간 연계망이 존재 하지만 일부 단절 구간(missing link)이 존재하고 CIS에 포함되지 않는 인접국가들(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터키 등)이 직접 연결되는 운송로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을 비롯한 북한, 중국, 폴란드, 서유럽 등 약 58%는 표준궤(1,435mm)를 구축하고 있지만 러시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카자흐스탄, 몽골 등 약 23%는 광궤(1,520mm)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광궤로의 구축은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 중심인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주요간선으로 발달되어 있어 개별 국가의 내륙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중앙아시아의 철도망은 19세기 러시아제국에서부터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때 이미 구축되었다. 카스피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 카자린스크 철도 (Kazalinsk Railway),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이다. 세 가지의 루트로 구축된 철도는 영국의 북진을 차단하고 동부지역에 위치한 중국과의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다. 세 개의 철도는 중앙아시아 철도망에서 지형학적으로 유라시아의 실크로드으로써의 동서관문에 위치하였다. 지경학적으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들 간에 있어 밀과 목화를 가용할 수 있었고 에너지 자원의 패권을 확립하는데 있어 큰 몫을 하였다. 하지만 세 개의 철도망들은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또는 접경지역 간의 발전보다는 소련과 중앙아시아 양자 간 수송 인프라 건설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철도망들은 역내와 인접국 수송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낙후가 되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림1. 러시아 중심의 1520 국제철도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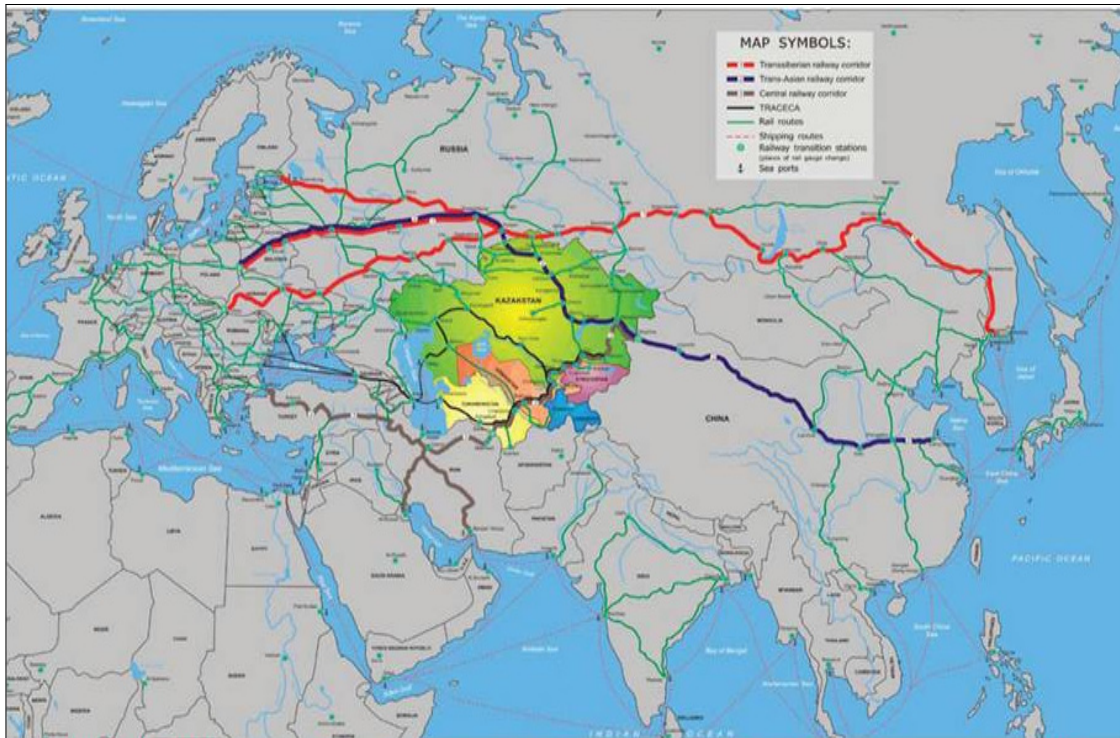
<자료. 세계 각국의 철도 궤간, 철도산업정보센터, 2012.02.01>

현재 유라시아 철도 인프라에 있어서 지역협력과 여러 국제기구들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을 기준으로 한 철도 인프라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며 중요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철도 인프라에 있어서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루트는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중심으로 된 프로젝트, 아시아횡단철도사업의 북·남부노선, TRACECA 프로젝트이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국제 교통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중앙아시아의 국가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요성이 돋보인다. 카자흐스탄 경우에는 국제 교통 인프라 개발에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역내에서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이에 [그림3]에서처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국제 교통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있다.1)

1) 북부노선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서유럽-중국, 한반도, 일본을 연계하는 것이며, 남부노선의 경우 중국-동남아를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연계하는 것이다. TRACECA는 흑해와 코카서스, 카스피해 중심으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계하는 것이며, 남북노선 북부유럽과 걸프 연안국을 연계하는 것이다. 중앙노선은 내부를 연계하는 노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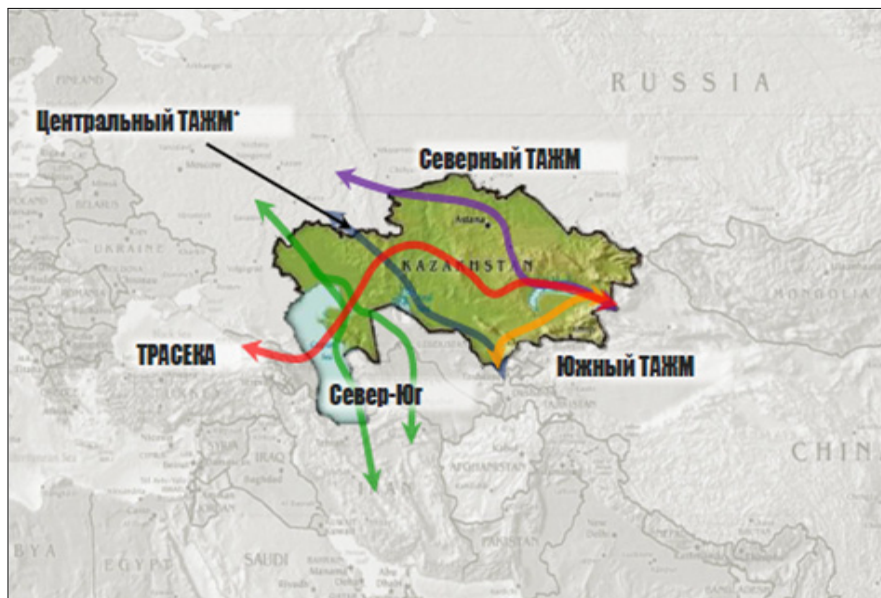
[표1]의 정리 되어 있듯이 국제 교통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향후 정책의 성공여부가 새로운 실크로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림2. Main Euro-Asian Corridors]



<자료.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eurasia²⁾>

[그림3. 카자흐스탄 중심 국제철도 회랑 프로젝트]



<자료. <http://www.group-global.org.ru>>

2)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eurasia, SAM REVIEW, September 2013

[표1. 국제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구분	CAREC	TRACECA	Asian Highway/ Trans-Asian Railway
주체	ADB	EU	UNESCAP
목적	중앙아시아 지역의 교통인프라 경쟁력 향상	유럽-코카서스-카스피해- 중앙아시아 연결 교통망 건설 (Great Silk Road)	아시아 대륙의 교통인프라 발전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
대상국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불가리아, 이란, 몰도바,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터키, 러시아 등 32개국
총 노선	도로: 47,100km 철도: 36,800km	-	도로: 55개 루트, 140,000km 철도: 114,000km
완공시기	2020년	2015년	-

위와 같은 프로젝트들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철도망 구축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는 목적지, 화물의 종류, 철도요금 설정방법, 계절성에 따라 TSR과 TCR의 경쟁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TCR로 연계가 되었을 경우 여러 국가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다 국가를 경유하면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취약함에 있어 TSR의 경제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 많은 편이다.

Ⅲ. 나진-하산 프로젝트

2.1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개요와 진행상황

북한에 위치한 나진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북·러·중 간의 인프라 및 물류 협력에 있어 중요하다. 이에 남·북·러 3각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³⁾ 제3부두와 나진-하산 철도 54km의 개보수 및 화물 수송용 화차(wagon)를 확보한 후 부산-나진 간 해상 수송을 거쳐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경유하는 컨테이너 물류수송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⁴⁾

3) 러시아는 2011년 9월부터 과학생산연합 항만사가 북한 나진항 터미널 건설에 참여하여 나진항 터미널은 2,000TEU 급 컨테이너선 통과화물의 철도 연계수송을 위해 구축하였다. 1단계에서 개보수 예정 부두의 총 연장은 500m로 해당 부두에는 크레인 런웨이를 비롯한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건물 등이 건설되며, 화물터미널 건설은 러시아철도공사 건설사, 과학생산연합 항만사가 작업에 참여한다.

4) 황진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북한해양수산저널 제1권 창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06, pp.281-29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두 개의 서로 독립된 사안들이 나진을 중심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복합 프로젝트이다. 독립된 사안 중 하나는 철도사업으로서 TKR-TSR 연결의 일환이자 시범사업(pilot project)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다. 다른 하나의 사안은 나진항을 통하여 북한의 철도와 연결하고, 나아가 두만강-하산을 경유하여 TSR과 연결함으로써 남·북·러 간 해륙복합운송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을 내포하는 것이다.⁵⁾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199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철도협력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발전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본 철도협력의정서에서 양국은 해상·철도 국제복합운송과 철도직결수송에 협력하며 TSR을 통해 화물·승객 수송을 발전시키는데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북한 통과수송의 허락을 받아 하산역을 개방 특구로 지정하며 한국은 남북철도연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하산역의 기술검토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전제했다. 이후 2001년 2월 한국과 러시아의 두 정상은 한반도를 통과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에 합의를 하였으며, 2003년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러 철도기관과 공동연구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2004년 4월 말 모스크바에서 남·북·러 3자 철도 전문가들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회의는 3국간 현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지만 기존의 양자 간 협력체제에서 삼자간 협력체제로 제도적 틀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제2차 3자 철도전문가회의는 열리지 못하며⁶⁾ 관심이 차츰 줄어들었다가 2004년 7월 초 북·러 국경철도협력회의를 통해 나진-하산 간 철도개량 문제 협의와 2005년 7월 북한과 중국이 합작투자자 나선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나진항 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나진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⁷⁾

북·러 간 '나진-하산 철도 현대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 되면서 2006년 3월 16~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북·러 철도 운영자회의가 개최 되었고, 이를 통해 북·러는 나진-하산 구간의 철도 개량 사업에 합의하였고, 남·북·러 3자는 TKR-TSR 연계를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동의했다.

2007년 6월 18일 모스크바에서 한국철도공사(KORAIL)와 러시아철도공사(RZD)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동시에 사업 실행을 위해 실무협상을 진행 할 한국 측 컨소시엄 주체인 루코로지스틱스(RUCO Logistics. Co., Ltd)와 러시아철도공사(RZD)간 '한·러 합작 물류회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⁸⁾ 그러나 두 개의 양해각서에도 남·북·러 연계 물류사업은 제대로 진

5) 성원용,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에너지 협력', The 20 Years of Korea-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2010.11, pp.245-272

6) 2013년 11월 13일 푸틴대통령의 방한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MOU의 내용에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 개최 추진을 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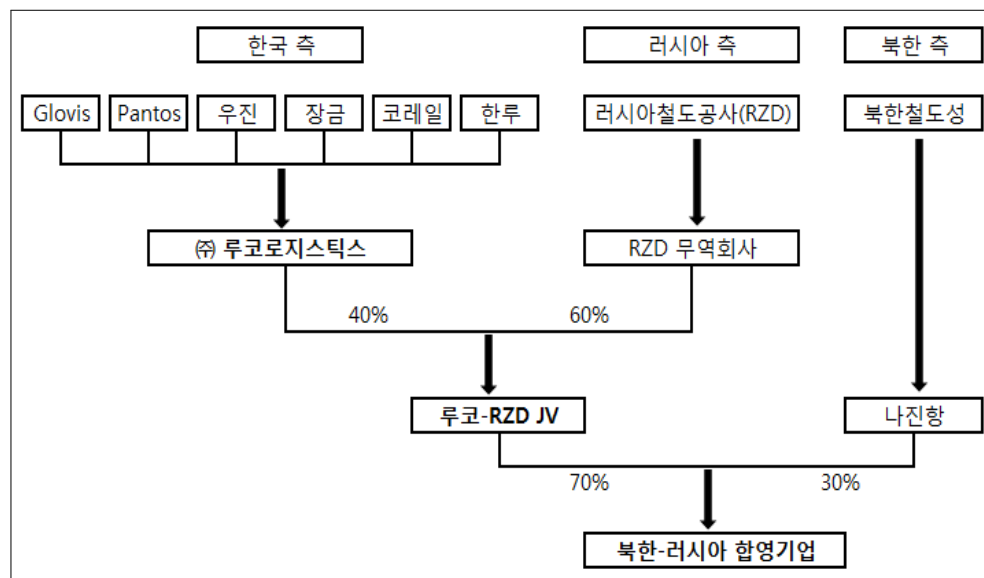
7) 성원용,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에너지 협력', The 20 Years of Korea-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2010.11, pp.245-272

8) 루코는 경쟁력 높은 해상운송 서비스 정보 및 관리 능력을 제공하고 가격 경쟁력 및 서비스 quality 유지에 충분한 정도의 물동량(규모의 경제 창출)의 확보를 한다. RZD는 경쟁력 높은 TSR운임을 제공, 운송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wagon의 확보와 운송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노하우를 확보 한다. 한국(루코)와 러시아(RZD)의 합작인 루코-RZD 조인트 벤처는 동아시아와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각국의 화물을 운송하는 가

행되지 못했다. 한편, 2008년 4월 24일 러시아철도공사(RZD)와 북한 철도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북·러 합작회사를 나선경제특구에 설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철도의 개보수와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러시아 철도무역상회와 나진항은 합영기업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4일 북·러 간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착공식을 친선각에서 가졌다.

철도 개보수 사업은 2011년 8월 1차 완료되어 시범운행이 실시되었고, 2013년 9월 22일 나선 특별경제구역에서 하산과 북한의 나진항을 잇는 철도 재개통식이 열렸다. 관련 공사비는 55억 루블(약 1억 7천만 달러), 나진항 현대화 공사에는 35억 루블(약 1억 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러시아가 모든 사업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⁹⁾

[그림4.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업구조]



<자료. 민족 21¹⁰⁾ 재인용>

RZD는 그동안 나진-하산(52km) 구간 본선과 나진-나진항(2km) 지선 등 전체 54km 구간에 양국의 선로 방식 차이에도 대차교환을 할 필요 없이 열차가 신속하게 운행 할 수 있도록 러시아식 광궤(1520mm)와 한반도식 표준궤(1435mm) 방식 선로가 나란히 놓인 복합궤를 새로 깔았다. 또한 과거 시속 30~40km에서 60~70km로 열차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30개의 구조물(교량 18개, 수로 12개)과 총 4.6km 길이의 3개의 터널 공사도 완공했다.¹¹⁾

장 경쟁력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사업자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새로이 구축된 경쟁력 높은 SBU를 기반으로 현재의 해상 운송 시장을 돌파하는 것을 기능을 한다.

9) 임아름·한성대, '러시아, 하산 - 북한 나진 간 철도 재개통', 해외철도동향자료, 한국철도협회, 2013.10.14

10) 성원용, 심충진단 '남북관계 개선 없는 '3대 신(新)실크로드 건설'은 헛구호', 민족21, 2009.01.01

11) 엄구호, 특집2. 한국의 나진-하산 철도 사업 참여의 함의와 전망, 월간교통, 2014.01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매년 10만 TEU 이상의 화물을 TSR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두만강-나진 구간의 통과능력은 1일 12열차의 왕복이며 물동량은 400만 톤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철도 현대화와 함께 나진항 3호 부두에서 낡은 설비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3척의 선박 접안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 새 설비를 설치하는 부두 확장 및 보강 사업을 통해 RZD는 터미널 처리용량을 연간 40만 TEU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60만 TEU까지 증대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13일 푸틴 대통령의 방한 시 맺은 양해각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RZD의 (주)러시아 철도무역상회와 북한의 나진항이 각각 70%와 30%의 지분으로 공동 설립한 ‘나선콘트란스’라는 합작회사의 러시아 지분 중 절반인 약 34%의 지분을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세 기업이 획득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투자금은 약 2,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진-하산 간 철도 54km 구간 현대화, 2008년 북-러간 합의로 49년간 임대된 나진항 3호 부두 및 나진구 일대 21km 면적에 대한 개발·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¹²⁾

2.2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한국은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TKR-TSR 연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부산(남한) ~ 나진(북한) ~ 하산(러시아) ~ TSR을 이용한 국제컨테이너 운송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가 향후 TKR-TSR 연결 사업으로 발전해 나아갈 때 어떠한 경제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한국과 유럽 교역권 간 운송 경로를 보았을 때 운송은 크게 철도운송 부문과 해상운송부문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철도운송 부문은 [그림5]와 같이 TKR의 구간을 크게 3구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구간의 경우 부산항을 기점으로 경부선을 이용하여 서울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노선이다. 2구간의 경우 광양항을 기점으로 호남/전라선을 이용하여 두만강에 이르는 노선이며, 3구간은 부산진을 기점으로 동해선을 이용하여 두만강에 이르는 것이다. 1구간의 경우 신의주에서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된 후 TSR과 연결되며,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의 국경을 지나게 되어 환적이 많아져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2구간은 노선 길이는 1,353km로 단절된 구간의 총 사업비는 795억 원이며 3구간은 1,300km로 단절된 구간의 총 사업비는 750억 원이다.¹³⁾ 이에 3구간이 TSR과 바로 연결되며 거리가 짧고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점에서 경제성이 있음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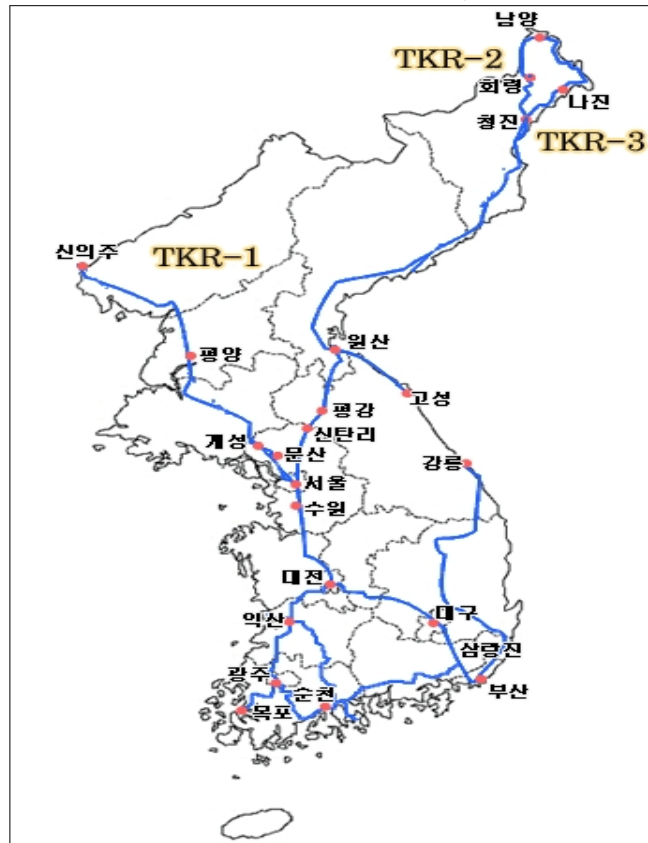
TSR은 총 연장이 9,288.2km로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 이르쿠츠크 ~ 울란우데 ~ 노보시비르스크 ~ 옴스크 ~ 스베르들로프스트 ~ 모스크바까지 연결된 노선이다.¹⁴⁾

12) 엄구호, 특집2. 한국의 나진-하산 철도 사업 참여의 함의와 전망, 월간교통, 2014.01

13) <http://dae6.tistory.com/entry/TKR>, <http://www.pressian.com/newsService> (검색일: 2013.11.26)

14) 참고 [그림6]

[그림5. Trans-Korea Railway route]



<자료. 프레시안>

[그림6. TSR 노선]



<자료. 동북아·북한 교통물류15>

15) 이옥남, '러시아 TSR 운영실태 진단 및 시사점_1',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제2013-15호, 2013.08

TSR은 동쪽으로 북한, 중국, 몽골과 하산, 그로테코보, 자비아칼스크, 나우시카역 등을 통하여 연계, 서쪽으로는 CIS(독립국가연합), 유럽연합과 이어져있다.¹⁶⁾

해상운송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는 부산을 기점으로 수에즈를 통과하여 유럽에 이르는 경로로서 동북아시아 지역과 유럽 간 물류 운송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운송 경로이다. 둘째는 부산을 기점으로 북극해를 통과하는 경로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북극해의 얼음이 녹아 가능해진 항로이다. 향후 북극해를 통과할 경우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약 7,000km가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줄어들어 절반 정도 운송기간이 단축 될 것으로 알려진 항로이다.

[표2. 수즈에운하와 북극항로 비교]

구분	기존 항로		북극 항로		단축 효과	
	경로	거리	경로	거리	거리	시간
부산-로테르담	수에즈	20,000km ²	북극해	13,000km ²	7,000km	10일

<자료. 부산발전연구소¹⁷⁾>

TKR-TSR사업의 가장 큰 경제성은 수송시간 및 비용절감이다.¹⁸⁾ 한국과 러시아간의 철도·해상운송의 경로들을 살펴보면 [표3]와 같이 크게 6가지의 세부 경로 시나리오가 나온다.

[표3. Transportation routes]

Route No.	Transportation route
Route 1	TKR-TSR
Route 2	Busan-Vostochny-TSR
Route 3	Busan-Vladivostok-Vostochny-TSR
Route 4	Busan-Vanino-TSR
Route 5	Busan-Suez-Europe-Berlin
Route 6	Busan-Arctic Ocean-Europe-Berlin

6가지의 세부 경로를 운송거리, 운송시간, 운임, 추가비용이라는 분석의 요소 등에 비추어 [표4]을 참고하여 보면 경로 1인 TKR-TSR이 가장 경제적인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는 거리는 경로 2, 총 운송시간은 경로 6, 운임은 경로 2와 3, 추가 비용은 경로 1이 우위를 보이는데, 경로 1, 2, 3의 거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경로 2, 3은 운임에 비해 총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로 6은 운임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거리, 시간, 운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로 1이 가장 경제적인을 도출 할 수 있다.

16) 러시아철도공사, www.rzd.ru

17) 최지국,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 부산의 역할', 부산발전연구소, 2011

18) 시간과 비용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최경훈 외 4명, 'TKR과 연계한 TSR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2, pp.345-351을 참고하여 재인용

[표4. 수즈에운하와 북극항로 비교¹⁹⁾]

구분	운송거리(km)	운송시간(DAY)	운임(USD)	추가 비용(USD)
Route 1	12,481(3)	26(2)	4200 / 7000(3)	-
Route 2	12,002(1)	46.5(5)	3900 / 7000(1)	1116 / 1243
Route 3	12,004(2)	47.5(6)	3900 / 7000(1)	1116 / 1243
Route 4	12,681(5)	33(3)	4300 / 7400(4)	1116 / 1243
Route 5	20,945(6)	35(4)	5500 / 9000(5)	1116 / 1243
Route 6	12,645(4)	20(1)	Undecided(6)	1116 / 1243

나진-하산 프로그램은 한국에 있어 유라시아 교통, 물류 협력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로서 남·북·러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TKR-TSR 연결사업의 동력을 부여하면서 3국에게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TKR-TSR이 연결로 인해 수출입 산업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국(남한)은 해상운송에만 의존하는 물류 시스템의 개편과 동북아 물류 허브 건설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다. 북한도 유럽지역의 수출 통로를 확보한 것은 물론 연간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철도 운임 수입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낙후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한국 투자가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되고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통과 운임을 받게 되며 연해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과 육상 수송 루트 개척을 통해 수출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절감, 3국간의 경제적 이익 등에서의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물류수요의 확보, 기술적 문제, 국경 통과에 따른 국가 간 협정 체결 등 소프트웨어부분에 의한 요인 등으로 회의적인 분석도 존재한다.

당초 나진-하산 물류 수요는 극동발 유럽통과 화물, 중국 동북3성의 동해 출구 화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수출입 화물, 나진-선봉 경제 특구인 북한 자체의 화물 등에서 발생 할 것으로 예상했었다.²⁰⁾ 하지만 중국의 훈춘~나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에 대한 가속화로 인해 물류수요에 많은 변동이 예상 되고 있는 바이다. 물류수요 변동이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본 프로젝트 성공 여부가 컨테이너 수송 산업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19) 운송거리의 경우, 부산을 출발점으로 유럽행 화물의 주요 중착점 중 한 곳인 독일의 베를린을 정하여 스에즈와 북극해 경로는 운송거리에 유럽항구에서 베를린까지의 철도운송 거리가 포함되어있다. 운송시간의 경우, 부산에서 러시아 극동항만까지의 운송시간은 TKR과 선박을 이용한 운송시간과 큰 차이가 없으나 통과 및 환적에 소요되는 시간이 변수로 작용한다. 운임은 계산을 TKR의 경우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의 철도운임에 따라 운임을 책정하였으며, TSR은 컨테이너당의 운임을 적용하였다. 추가 비용은 러시아에서의 통관 및 환적이 발생하는 등의 일에서 생기는 비용을 의미한다.

20) 황진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북한해양수산저널 제1권 창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06, pp.281-294

훈춘과 약 50km 떨어진 북한 나진항은 부동항이자, 천혜의 심수항으로 인근 자루비노·포시에트항의 얕은 수심, 노후화된 항만시설, 중·러 간의 복잡한 통관 및 높은 육로 운송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항만이다. 또한 나진항은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을 할 수 있는 경로로서 움직임이 더 활성화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나선경제특별구 470km² 지역의 공동개발관리를 체결한 상태이며, 훈춘~나진항까지의 고속도로 건설도 구상과 나진항의 1호, 4~6호 부두(미개발)의 장기이용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현재는 운영이 임시 중지된 상태이지만 2011년부터 나진항 1호 부두를 통해 나진항~닝보·상하이 항로를 개통하여 2012년 5월까지 약 10.4만 톤의 석탄이 동 항로를 통해 운송되었다. 또한 현재 나진항 1호 부두를 임대 중인 훈춘창리 해운물류회사가 2014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나진항~닝보·상하이 컨테이너 항로 개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나진항은 중국 동북지역의 중요한 무역항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²¹⁾

TKR-TSR 연결 사업에 있어서의 신호방식, 차량의 하중, 건축 한계 등의 철도시설의 기술적 차이로 인한 차량의 통과에 있어서의 문제가 존재하며 국경통과에 따른 세관 등 실질적인 국가 간 협정 체결 등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상호국가들 간에서의 수송책임, 열차운영, 요금 등의 여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소프트웨어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제철도망의 수송 경쟁력을 확보하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서의 국제 철도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수송시간과 요금 그리고 수송의 신뢰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기존 해상운송의 의존성을 줄이며 내륙운송에서의 시간, 거리의 단축의 효과가 있었으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보완 및 3국간의 편중된 협의보다는 주변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향후 교통인프라 구축에서의 상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2.3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정치적 함의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지역협력과 공동체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패권적 경쟁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실익우선의 원칙에 따른 지역적 경제협력체 구축이라는 국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관계에 따라 세계에서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 남북한과 양안 관계 등 협력과 통합의 반대 개념인 대립과 긴장 관계가 지속되면서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²²⁾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닌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펼치면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지역 환경 속에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속에서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 김세원 외 1명, '중국 물류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제13호-10호, 2013.09.23

22) 권영경,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추세에 비추어 본 남북경협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2호, 2003, pp.275-298

하지만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대남 위협 고조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 강경 입장으로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남북한과 동아시아의 상호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의 협력 방안 모색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동북아 평화 및 세계평화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 이는 본 프로젝트가 나진선봉지역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 지역이 환동해에²³⁾ 있어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²⁴⁾

환동해는 역사적으로 러일전쟁과 중일전쟁의 중심지였으며, 현재에도 남북 간 분쟁, 독도 등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정치·안보적 갈등 지역이다. 하지만 환동해권에 연결한 각국은 자국의 동북아 전략과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협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고 핵개발 문제 등으로 분쟁의 중심에 있는 북한 중심의 발전과 협력이 되는 본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은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실현 할 수 있다.



<자료. 부산일보²⁵⁾>

23) 참고 [그림7]

24)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역할', BDI(부산발전연구원) 포커스, 2013.11

25) '떠오르는 환동해권, 부산이 중심도시이다', 부산일보, 2013.11.15

러시아는 1994년 ARF²⁶⁾에 가입을 하고, 1996년 ASEAN(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대화 파트너가 되었으며 2004년에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부터는 ASEAN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으며, 2010년에 ASEAN 국방장관회의에 가입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 Europe Meeting)²⁷⁾에 가입했으며 201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EAS(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²⁸⁾에 참석하면서 1990년대부터 동아시아에서 국제 협력의 다자 틀 참여 확대를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자회담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의 조정을 통한 영향력 행사에 머물렀으며 동남아시아에서의 다자 기구 참여도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서구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²⁹⁾ 짜간코프(A. Tsygankov)는 축소된 탈소비에트 국가를 위장하기 위해 사실은 유럽에 초점을 두면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서 글로벌 파워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러시아의 전략이라고 하며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을 비판하며 최근 중·러관계 발전도 미국을 견제하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강한 것이지 지역 공유 이익의 확대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주장하였다.³⁰⁾

블랭크(S. Blank)는 러시아의 다극주의 개념은 글로벌 다극성, CIS에서의 러시아의 우월성 유지, 새로운 동지를 만드는 지역적 관여 등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³¹⁾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다극성 주장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유럽과 유라시아에서 독립적 균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러시아의 중국과의 협력은 주로 글로벌 차원의 반미이지 지역적 차원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의 다극성은 러시아가 중국에 동조해야 하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많은 제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통합은 경제적, 정치적, 안보,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지역 역사적 유산, 영토문제, 이념 문제 등으로 하여 주로 경제적 통합만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³²⁾ 하지만 러시아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

26)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 Forum)는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 변화에 맞추어 아·태 지역내 안정적 질서를 구축하고, 환경·테러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94년 출범한 지역협력체이다.

27)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ia Europe Meeting)으로 EU, ASEAN, NAFTA와 같은 지역내 국가들간 협력체가 아닌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간 대화 및 협력의 장이다. ASEM은 경제분야 협력을 주로 취급하는 APEC과는 달리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3대 이슈를 다루는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속력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협상 기구는 아닌, 회원국 정상들이 중요한 국제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포괄적인 관심사를 논의해나가는 열린 기구이다.

28) EAS(동아시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는 2005년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의 원회원국과 2011년 미국과 러시아가 신규 가입하며 총 18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ASEAN+3(한·중·일) 체제와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9) 엄구호,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극동개발 한·러 협력 전략',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Entry Strategy, 2013

30) Tsygankov, A.P, 'Russia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Encyclopedia, Vol. 10, Hoboken (NJ), 2010

31) Stephen Blank, 'A (Multi) Polar Bear? Russia's Bid for Influence in Asia', Global Asia vol.7, 2012

32) 엄구호,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극동개발 한·러 협력 전략',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적 연계성은 아직 미약하여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약할 수밖에 없다.³³⁾ 러시아의 이러한 위치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아시아 이웃들과의 연계성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러시아 극동이 “러시아의 동아시아의 창”이라는 인식이 이웃 국가들에게 심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의 현 동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서방의 평가는 아직 긍정적이지 않으나 극동개발에 있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아시아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극동 지역 진출 강화 중인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2008년 한국은 러시아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 시켰지만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으며,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성공적 협력 사례를 만들지 못하였다. 하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한·러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한국 기업의 극동 진출 기회의 마련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남·북·러 공동 사업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로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여 안정과 긴장완화에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한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평화적인 접근을 하면서 동북아 안정과 긴장완화에 계기가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측면이다.

경제평화란 경제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 또는 상태를 말하며, 이에 따른 목적은 국가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여 상생 공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활동 과정에서의 억압, 착취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 생태계의 파괴 등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즉, 경제평화는 국가 간의 경제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³⁴⁾ 천안함 사건이후 이른바 5.24조치를 통해 개성공단(신규투자 금지)을 제외한 모든 남북 경협 중단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11월 13일 푸틴 대통령 방한에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MOU를 체결³⁵⁾은 5.24조치의 빗장을 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남북 경제 협력 측면에서 5.24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크고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과 남북한 간의 소통, 개방으로 교류하여 함께 번영하는 보다 평화적인 관계로 관계를 개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ast and Korea' Entry Strategy, 2013

33) 1998년에 가입하여 2012년 정상회담까지 유치한 APEC에 있어서도 양자간 FTA 논의에 밀려 APEC의 교역자유화에 대한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APEC 주요국들은 아직은 러시아를 매력적인 FTA 또는 EPA의 대상국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34) 장영권, '나진-하산 경제평화 모델과 성공 전략', 한국일보, 2013.11.23

35) MOU의 주 내용은 한국 내 물류업체 컨소시엄과 러시아 철도공사 간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협상 시행, 나진-하산 경유 TSR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 실행, 제2차 남북러 철도운영자회의 개최 추진이다. 아직 본 프로젝트의 참여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현장 실사 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로 인하여 러시아 극동의 철광과 석탄이 철도를 통해 운반되고, 선박을 통해 포항까지 운송되는 국제복합물류운송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유라시아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특히 중앙아시아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중국과는 상이하게 목적지, 화물의 종류, 철도요금 설정방법, 계절성에 따라 TCR과 TSR의 경쟁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 이에 향후 어떤 식의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이 될 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라시아 철도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만큼 현재 한반도에서 중요한 지역은 나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진은 TKR(한반도종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MGR(몽고횡단철도) 주요 세 가지 철도가 만나는 거점으로 한반도와 러시아의 극동과 연결, 중국의 동해 진출의 통로이기도 하며 동북아시아의 내륙운송 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동북아의 천연자원 및 자본과 노동의 결합을 촉진하는 역내 경험의 토대로도 제공될 것이라는 점 등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으로 경제성이 다른 어떠한 루트보다 있다. 향후 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시장에서 어떠한 요인이 경제·정치적인 측면에 파급효과를 가져 올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이 남·북·러 3각 사업에 있어서 북한의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수준이 결정되는 것 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북아 체제 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교 대상으로서 러시아의 전략적 위상과 의미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지역주의 형성의 여러 제약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러시아가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형성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일 후 동북아 다자안보 질서 형성에서 한반도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현실적일 것이다.³⁶⁾

이런 맥락에서 남·북·러 3국가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보협력에 있어서 러시아가 수행할 수 있는 중재자, 균형자, 전략적 협력자로서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현실화하여 남·북·러 3국가의 전략적 대화와 소통 그리고 전략적 조율을 강화해야 하며, 동북아 경쟁구도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재평가하고, 바람직한 동북아 질서 미래에 대한 유사한 전략적 입장을 역내 다자적 안보질서 구축의 기초로 정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같은 러시아의 극동·동시베리아 개발전략 및 아태지역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지역 협력의 프로젝트들을 국제화하여 실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36) 엄구호,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극동개발 한·러 협력 전략',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Entry Strategy, 2013

참고문헌

- 권영경,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 추세에 비추어 본 남북경협 발전방향',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2호, 2003, pp.275-298
- 김세원 외 1명, '중국 물류 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연구센터 제13호-10호, 2013.09.23
- 김석환, '한반도 철도 르네상스와 물류 강국, 문화대국의 꿈', 한국철도기술지, 2012.11
- 김정현, '환동해지역 레짐 형성 가능성 고찰: 지역민의 협력·갈등의식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2012 HK 1차 국내학술대회, 2012
- 배정호,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 2011
- 성원용, '남북관계 개선 없는 '3대 신(新)실크로드 건설'은 헛구호', 민족21, 2009.01.01
- 성원용, '한국과 러시아의 철도-에너지 협력', The 20 Years of Korea-Russia Relations: Accomplishments and Prospects, 2010.11, pp.245-272
- 엄구호,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과 극동개발 한-러 협력 전략',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Russian Far East and Korea' Entry Strategy, 2013
- 엄구호, 특집2. 한국의 나진-하산 철도 사업 참여의 함의와 전망, 월간교통, 2014.01
- 임아름·한성대, '러시아, 하산 - 북한 나진 간 철도 재개통', 해외철도동향자료, 한국철도협회, 2013.10.14
- 이옥남, '북러간 연계 수송인프라 운영현황 분석',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 연구센터 제 2012-06, 2012.03
- 이옥남, 'TSR 운영실태 분석에 따른 TKR 연계 가능성 진단',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제2012-09, 2012.04
- 이옥남, '러시아 TSR 운영실태 진단 및 시사점_1',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제2013-15, 2013.08
- 장영권, '나진-하산 경제평화 모델과 성공 전략', 한국일보, 2013.11.23
- 전일수, 'TKR-TSR 연결과 경제적 의미', 유라시아연구, 2004.06
- 최경훈 외 4명, 'TKR과 연계한 TSR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012, pp.345-351
- 최지국,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 부산의 역할', 부산발전연구소, 2011
- 황진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이용한 남북관계 진전방안', 북한해양수산저널 제1권 창간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06, pp.281-294
- '유라시아 관문도시 부산의 역할', BDI(부산발전연구원) 포커스, 2013.11
- Interregional cooperation In eurasia, SAM REVIEW, September 2013
- Stephen Blank, 'A (Multi) Polar Bear? Russia's Bid for Influence in Asia', Global Asia vol.7, 2012
- Tsygankov, A.P, 'Russian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Encyclopedia, Vol. 10, Hoboken (NJ), 2010
- Дэниэл Ширф, Соглашение позволит южно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обойти запрет на прям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КНДР, 2013.11.15
- [http:// www.rzd.ru](http://www.rzd.ru), 러시아철도공사
- <http://www.rzdtv.ru/2013/11/11/rossiya-zainteresovana>, РЖД Обзор СМИ радио и ТВ

[http://www.rzdtv.ru/2013/11/11/rossiya-zainteresovana-v-uchastii-yuzhnoy-korei-v-proekte-po-razvitiyu-zhelezn
oy-dorogi-hasan-radzhin/](http://www.rzdtv.ru/2013/11/11/rossiya-zainteresovana-v-uchastii-yuzhnoy-korei-v-proekte-po-razvitiyu-zheleznoy-dorogi-hasan-radzhin/), РЖД Обзор СМИ радио и ТВ

http://www.pressian.com/newsService/quickView/QuickMain_u.asp?article_num=30060510180547&s_menu=,
프레스리안, 경제, '미래로 가는 대륙철도, 그 꿈과 현실', 2006.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0427180101&Section=, 프레스리안, '남북철도 연
결, '대륙철도'의 꿈', 2007.04.29

<http://www.minjog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8>, 민족21, '남북관계 개선 없는 '3대 신(新)실크
로드 건설'은 헛구호'

http://www.krlove.net/biz/snr_biz.php, (주)겨레사랑, '남-북-러 연계물류사업'

[http://dae6.tistory.com/entry/TKR%ED%95%9C%EB%B0%98%EB%8F%84%EC%A2%85%EB%8B%A8%EC%B2%A0%EB%8F%84%EC%9D%84-%ED%86%B5%ED%95%9C-%EB%8C%80%EB%A5%99%
ED%9A%A1%EB%8B%A8%EC%B2%A0%EB%8F%84%EC%9D%98-%EC%99%84%EC%84%B1](http://dae6.tistory.com/entry/TKR%ED%95%9C%EB%B0%98%EB%8F%84%EC%A2%85%EB%8B%A8%EC%B2%A0%EB%8F%84%EC%9D%84-%ED%86%B5%ED%95%9C-%EB%8C%80%EB%A5%99%ED%9A%A1%EB%8B%A8%EC%B2%A0%EB%8F%84%EC%9D%98-%EC%99%84%EC%84%B1),
'TKR(한반도중단철도)을 통한 대륙횡단철도의 완성'

카스피 해 연안 5개국 해군 군비경쟁 실태 및 향후 전망

양봉현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목차

- I. 서론
- II. 군비경쟁 분석의 이론적 배경
 - 1. 군비경쟁의 개념
 - 2. 군비경쟁의 원인 분석
- III. 카스피 해 연안 해군 군사력 및 군비 경쟁의
과정 분석
 - 1. 러시아
 - 2. 이란
 - 3. 아제르바이잔
 - 4. 카자흐스탄
 - 5. 투르크메니스탄
 - 6. 군비경쟁의 과정 분석
- IV. 결론

초 록

카스피 해는 세계 최대의 내해로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등 5개국에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은 확인된 원유매장량만도 약 400억 배럴로 전 세계 매장량의 5%에 이르며, 잠재매장량은 2,600억 배럴이며 천연가스의 잠재매장량은 217조 입방미터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카스피 해 석유의 60~70%는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게 되면서 경계 획정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접 5개국의 입장은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보는 시각과 호수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 국가가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향후 경계 획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카스피 해에서의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독립 국가들의 해군 창설 및 이란의 구축함 도입, 러시아 함대의 스텔스 함정 도입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카스피 해 지역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군비경쟁의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카스피 해 연안 국가들의 군사력 을 상호 비교하고 군비 경쟁이 카스피 해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군비경쟁의 원인에 관련된 이론 을 대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론

약 1100만 년 전까지 아조프 해, 흑해, 지중해를 거쳐 대양과 연결되었던 카스피 해는 오늘날 카프카즈 산맥의 동쪽, 광대한 중앙아시아 스텝의 서쪽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내해이다. 그 길이는 남북으로 약 1,200km, 동서 간 평균너비는 약 320km이며, 면적은 한반도의 약 1.7배인 386,000km²에 달한다.¹⁾

카스피 해는 브레진스키가 세계적인 지정학적 불안정 지대, 즉 ‘유라시아의 발칸’이라고 표현한 유라시아 대륙 서남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지리적, 문명적 교차점에 걸터앉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유라시아의 패권경쟁에 뛰어든 국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목표물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지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더 큰 이유는 거대한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 때문일 것이다. 카스피 해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연안국들은 물론,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려는 강대국들 간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²⁾

그러나 카스피 해는 지난 세기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정학적 안정을 누렸다. 1921년 소비에트와 페르시아의 조약 체결 이후 70년간 카스피 해는 러시아와 이란이 공동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정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이었다.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카스피 해 연안에 맞닿아 세 개의 새로운 독립국들(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민족국가 건설에 나섰으며,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진공상태에 놓인 이 지역에 역외 강대국들까지 개입하면서 복잡한 세력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카스피 해는 연안의 신생독립국가에게 지정학적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카스피 해에 매장된 막대한 에너지 자원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경제를 건설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연안국들 간 경계획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0년 연안국 회의 이후 러시아-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간 합의가 나오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이란은 카스피 해를 호수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한발 뒤로 물러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이란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을 적극적인 파트너로 만들려는 계획 아래 각종 기술 및 산업 이전 제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³⁾

1) 위키피디아 ‘카스피 해’ http://ko.wikipedia.org/wiki/%EC%B9%B4%EC%8A%A4%ED%94%BC_%ED%95%B4 (검색일 2013.11.23)

2) 제성훈, “카스피 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회 제26호, 2009, pp01~03

3) Trend.az “Iranian president: Caspian Sea region home to peace, security“, (2014.2.16.) <http://en.trend.az/regions/casia/turkmenistan/2242535.html>

카스피 해 경제발전 문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접경 국가들 간 소리 없는 군비 경쟁을 엿볼 수가 있다. 카스피 해 연안 개발은 거의 완성된 상태로, 점점 연안에서 먼 지역에서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사적 충돌이 가시화 되면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하여 국가들은 소리 소문 없이 해상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중이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은 독자적인 해군을 창설하였고 러시아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함정을 카스피 해 함대에 배치시켰으며 이란은 최근 구축함을 진수하며 한층 군사력을 강화하였다.⁴⁾

이와 같은 군사력 증강은 이따금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1년 7월 아제르바이잔과 이란해군은 무력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으며, 러시아는 자신의 영해를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면 군사행동을 취하겠다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게 경고한 것이 그 사례이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의 물자 허브로 카자흐스탄의 아크타우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를 이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해군력 증강에 은밀하게 도와주며 러시아와의 힘겨루기에 위 3개 국가를 대리로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군비경쟁 개념 및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카스피 해 지역 내 군사력 비교 및 군비경쟁의 원인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향후 상황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II. 군비 경쟁 분석의 이론적 배경

1. 군비경쟁의 개념⁵⁾

군비경쟁이라 함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적대국 중 일방이 그들의 국가안보 내지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사력이라는 확신 하에 군대를 증강하거나 무기의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무기의 양을 경쟁적으로 증가시키는 일련의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⁶⁾ 한마디로 군비를 확장해 가려는 경쟁으로 전쟁의 억제와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군비경쟁이란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두 개의 국가 혹은 국가 군(群, group)이 갈등적 목표추구나 상호 공포로 인하여 평화 시에 군사력을 점진적이고 경쟁적으로 증강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1백 년간 발생한 80여 회의 전쟁 가운데 10회의 전쟁만이 군비경쟁 뒤에 발생했다”라고 강조했다. 즉, 군비경쟁이 반드시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무기의 수가 증가하고 그것이 우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된다는 면에서 볼 때, 결코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스미스(Theresa C. Smith)는 군비경쟁을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 뚜렷한 경쟁 혹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군비의 양적 혹은 질적 증가”로 정의하며 특히 경쟁기간의 성립 요건으로서 군사비의 증가

4) John CK Daly, "The Caspian's Naval Arms Race"

<https://wdsi.wordpress.com/2012/05/23/the-caspian-naval-arms-race/>, ISN Security Watch

5) 방금철, “한중일 3국 해군군비경쟁에 관한 실태와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2006, pp 10~17

6) 군비경쟁, 민족백과대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Contents?contents_id=E0006628

와 상대국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존재해야 하며 군비경쟁 기간이 최소 4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레이(Colin S. Gray)는 군비경쟁을 “서로 적대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양자 또는 다자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예상되는 상대의 군사, 정치적 행위들에 대비하여 그들의 군비를 급속도로 향상 또는 증가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앤더튼(Charles H. Anderton)은 군비경쟁을 “양자 혹은 다자가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양적 혹은 질적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응으로서 자신의 양적 혹은 질적 군사력을 변화시키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위 학자들이 주장한 군비경쟁의 개념들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상호 경쟁을 유발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 기간은 지속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적대감이나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각 국가마다 실질적 군사력 향상이 보여야 한다는 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군비경쟁이란 2개의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군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무기의 누적적인 확산 또는 생산증가를 초래하고 국가의 안보목적을 위하여 양적·질적 또는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갖추겠다는 확신에 고무되어 군대를 증강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는 2개국, 수 개국 또는 동맹국간 군비증강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2. 군비 경쟁의 원인 분석⁷⁾

군비경쟁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한 국가의 군사적 발전은 외부의 위협 및 공포로 인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국가 내부에서 군사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군사비 책정이 커지면서 군비증강 및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이 있으며 이외에 산업계 및 노동계가 군부랑 결탁하면서 이러한 관계로 인해 군사비가 증가하고 주변국가로 군비 경쟁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우선 외부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널리 통용되고 있는 리처드슨의 작용-반작용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국가안보를 위한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상대국의 군비증강을 자극하여 상호간에 군비를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경쟁을 해야 되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가 군사비 지출을 늘리게 되면 이는 다른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초래하게 되고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비 지출이 자신들의 평화를 지키는데 이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를 자기 안보의 위협으로 생각하게 되는 소위 ‘안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 이론에서의 다른 원인으로는 군사력을 통한 자국의 위상 향상 노력이 있는데, 이는 군사력이 자국의 정치 및 외교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발상에서 시작한다.

그는 연구에서 분쟁에서 전쟁으로 발전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경제적 요인이 분석한 요인 중 가장 현저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전쟁규모를 0~7도로 구분을 하고 1820년부터 1949년까지의 300개 전쟁 중 64개인 21%가 경제적 원인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64개의 전쟁 중 26개인 41%가 일국의 타

7) 김승, “군비경쟁의 기원 : 동북아시아(1998~2008) : 군사비 증강의 원인분석과 리처드슨의 군비경쟁이론의 재고찰”, 고려대학교, 2009

국에 대한 영토적 주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보다 한 국가가 많은 국가와 국경선을 접하게 되면 전쟁에 관계되는 빈도가 높게 되며,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간의 전쟁 가능성은 원거리 국가와의 전쟁 가능성보다 높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세계 최대 접경국인 러시아는 여기에 해당되고, 스위스나 프랑스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아나톨 라포포트의 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⁸⁾ 유명한 수학자인 그는 국제적 갈등상황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타 영역의 학문을 채용할 것을 시도하였다. 그의 저서인 “싸움. 게임. 토론(Fight, Games and Debates)”에서 국가 간 갈등을 다룰 때 심리, 경제학,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규명하였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갈등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성격중심(Personality-centered model) 또는 사회중심모델(Society-centered model)로 지칭된다. 즉, 이들 접근방법은 개인의 태도, 견해, 퍼스낼리티(personality), 행위양식을 통하여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인 측면(개인적 차원)에서 라포포트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원인을 찾으려고 했다.

즉, 어린 시절의 흉터, 양친의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 그리고 욕구불만 등은 개인적으로 공격적인 인간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을 소유한 정치지도자들은 대규모의 공격적인 행위로 국가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았다. 사회과학에서 도입한 인간행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오히려 이러한 개념과 유사한 것이다. 인간의 심성이나 태도, 행위양식은 그가 처해있는 환경과 문화에서 습득하는 것이며 인간의 행태를 형성시키는 사회 환경이 갈등 지향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인간의 본능에는 영토를 소유하고 무리에서의 소유자가 되고 싶기에 부단히 누군가와 싸워야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인격을 소유한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본능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정치에서 궁극적이며 직접적 목표는 힘의 추구에 있으며 여기서 국가의 팽창주의적 경향이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국가 팽창주의적 경향은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체계자체에 가져오는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둘째, 국가내의 체계통합에 실패한 것을 은닉하고 그 대안으로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보상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두번째 경우에서 국가체계내의 갈등을 내부에 국한시켜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적 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체계 외부의 타 국가를 향하여 투사하거나 전가함으로써 내부갈등요인의 방향전환을 꾀하는 사례가 많다. 즉, 집권층과 엘리트 집단은 외적 위협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상징을 정부에 집중시킴으로 외적 갈등을 극대화하고 내적 단결을 도모한다. 이로써 집권층은 그들의 국내 정적들과 국외의 적들을 관련시킴으로써 집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효과적인 동원체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Ⅲ. 카스피 해 역내 해군 군사력 및 군비 경쟁의 과정 분석

1. 러시아

러시아는 현재 총 5개의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작은 규모로 카스피 해 함대를 운용중이

8) 권기수, “국제분쟁 원인에 관한 소고 : 과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다. 2013년 기준 창설 291년이 되었으며 그 크기가 일반적인 함대보다 작기 때문에 소함대 또는 분함대로 분류 되고 있다.⁹⁾ 모항은 아스트라한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임무는 대테러 활동과 교역에 있어서 안전 보장 그리고 원유 산지에서의 국익보장이다. 원래 지휘부와 시설은 독립공화국들과 공유하고 있었으나 1992년 3월 카스피 해 함대 분할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존에 모항으로 사용하였던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아스트라한으로 러시아 함대가 이전하게 되었다.

1992년 분할 합의 이후로 임무 중 하나였던 밀수 방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으나 1997년 중반 카스피 해 함대 전력 증강 및 활동 범위를 늘리기로 결정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09년 러시아 국방부 성명에 의하면 2015년까지 모든 육전대를 최신 무기로 무장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2년 부란 급 초계함 도입 및 2013년 미사일 고속정 배치가 있었고 이외에도 우글리치 급 미사일 고속정과 그라초프급 미사일 초계함 및 세르나 급 상륙정과 예인선도 인도 될 예정이다.

현재는 만재 1930톤 게파트 급 호위함인 <타타르스탄>이 기함이며, 이와 동급인 다게스탄이 같이 운용되고 있다. 550톤의 부란 급 초계함은 총 3기로, 아스트라한, 볼고돈스크, 마하치칼라라는 이름으로 운용 중에 있다. 이외에도 타란툴 급 초계함 3기와 만재 257톤 마트카 급 미사일 고속정 3기, 4기의 포함, 3기의 소냐 급 소해정 및 280톤 두곤 급 상륙정 및 세르나 급 상륙정 5기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 해군에서의 함대는 단순히 군함과 수병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해병대와 같은 육전대를 포함하여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⁰⁾ 카스피 해 함대에 배치되어 있는 세르나 급 상륙정 같은 경우 함대의 탱크 또는 두 대의 보병장갑차를 탑재할 수 있고 보병만 태울 시에는 92명을 태울 수 있다. 이러한 상륙정을 이용하는 육전대는 카스피 해 함대 주둔지 중 하나인 마하치칼라 인근 카스피스크에 제 414 해군 보병 연대가 있으며 모항인 아스트라한에 제 727 해군 보병연대가 주둔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스피스크에 제 46 해안 미사일 대대 및 마하치칼라에 제 137 스페츠나츠 여단이 위치하고 있다.¹¹⁾

2. 이란

이란 해군은 삼군 중 제일 작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1979년 3만 명이던 해군의 규모가 1986년 절반으로 줄었으나 2008년 기준 1만8천명이 되면서 점점 규모의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 총 5개의 작전 구역으로 나뉘서 해군을 운용 중에 있으며 걸프 만에 3개의 구역, 인도양에 1개, 카스피 해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작전구역의 편중의 원인은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만에 있다. 이 구역들은 이란 석유 수출의 필수 통로로 카스피 해보다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카스피 해에도 눈을 돌려 함대의 증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 해군의 카스피 해 모항은 예전에 반다르 에파이발리라 불리었던 반다르 에안잘리이며 소해정과 작은 순찰용 군함이 전부였던 카스피 해 함대는 2012년 1400톤급 자마란-2 구축함¹²⁾이 취역하면서 급

9) 러시아의 함대 구성은 소르레메니급 구축함을 기함으로 하여 통상 20척 이상의 구축함과 호위함으로 구성.

10) Морская пехота России, Википедия ru.wikipedia.org/wiki/Морская_пехота_России

11) Каспийская Флотилия http://warfare.be/db/linkid/2232/catid/321/lang/rus/

12) Navy recognition, Iran Launches news "Jamaran 2" Frigate in Caspian Sea, 2013.3.17
http://www.navyrecognition.com/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937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구축함은 유도 미사일과 어뢰를 장착하였으며 신형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군사 작전의 신속성을 가져가는데 유리하다.

이외에도 이란의 고위 해군 장성은 소형 잠수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카스피 해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구축함 1척을 내년 중으로 취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3. 아제르바이잔¹³⁾

아제르바이잔의 해군은 바쿠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카스피 해 함대의 공동 운영주체였기 때문에 해군 인프라와 다양한 군함을 물려받았으며 2012년 이란의 자마란-2 구축함이 취역하기 전까지 카스피 해 내 러시아 다음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3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함으로 만재 1150톤의 페트야 급 호위함을 1대 보유하고 있다. 이 군함은 미국과 터키에 의해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보유하고 있는 4척의 초경량 잠수함은 아제르바이잔 해군 특수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13대의 어뢰/미사일 고속정과 6대의 상륙정 및 4개의 소해함과 해군 소속으로 3개의 CN-235 수송기와 3대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 12월 아제르바이잔 국방부 장관인 사파르 아비예프는 아제르바이잔 해군을 다양한 크기의 군함으로 총 80척까지 늘릴 것임을 천명하였고 현대화를 주창하였다. 장교 양성 및 수준 향상을 위해 바쿠에 고등 군사 학교와 고등 해군 학교를 만들어서 운용중이다. 군사부분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국가로 2001년 6월 미국으로 부터 2대의 군함을 공여 받았고 2002년 5월 4백만달러의 군사지원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터키와는 2002년 4월 BTC 파이프라인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약을 서명하고 아제르바이잔 장교 교육 및 교환학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소연방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육전대와 함께 해군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1년에 설립된 해군 특수부대는 편제가 터키와 미국의 특수부대의 편제와 비슷하다. 현재 3개의 정찰그룹으로 편성되어있는데 2개는 육상전투그룹이고 1개는 해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룹으로 나뉜다.

4. 카자흐스탄¹⁴⁾

2003년 5월 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카자흐스탄 해군이 창설되었다.

아크타우를 모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 18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 4월 카자흐스탄 제니트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인도된 <카자흐스탄> 미사일 고속정이 가장 최신에 함이다.

이외에 한국에서 척당 100달러에 인도된 참수리급(돌핀) 고속정 3척¹⁵⁾과 러 해군 대공포-미사일 포함

13) Global Security, Azerbaijan, 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azerbaijan/intro.htm

14) Global Security, Kazakhstan naval infantry, Kazakhstan navy
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kazak-naval-infantry.htm
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kazak-navy.htm

(gunboat) 7척이 있으며 4척의 수송선을 운용중이다. 약 2,320km의 카스피 해 해안선을 감시해야 되기에 50척에 가까운 경비정 또한 운용 중에 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분쟁이 일어난 2001년 7월 이후 아스타나에 고등 해군 학교를 만들었고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함정을 공여 받았다. 현재 해군의 인원은 약 3,000명 정도로 함정 승무원보다 육전대 병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자흐스탄 해군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항모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투기와 파일럿이 해군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요청하면 즉시 바로 전투기가 출동할 수 있는 비행장이 해군의 모항인 아크타우에 위치하고 있다. Interfax-Kazakhstan은 2011년에 2기의 Su-27 전투기와 7명의 Su-27 파일럿과 12명의 헬리콥터 조종사가 소속된 제 612 해군 소속 공군기지를 완성했다고 보도하였다.

5. 투르크메니스탄¹⁶⁾

각 보고서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병력이 다르게 추산되고 있다. 최소 500명에서 최대 2천명 또는 3천명까지 추정하고 있다. 현재 카스피 해 연안도시인 투르크멘바시를 모항으로 5척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2008년 러시아로부터 3척의 유도미사일 고속정과 2척의 순찰용 고속정을 구입한 것이 시초이며 이후 초계함 같은 더 큰 군함을 구매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2010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는 2015년까지 카스피 해 함대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해군을 창설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에 의해 명목상 해군이 먼저 창설 되었다.

이후 크기 측면으로 해양경비대에서 해군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2001년 우크라이나에서 10대의 고속정과 4대의 포함(gunboat)을 도입계획을 세웠고 이후 도입수량을 늘리며 개량형도 추가로 들여오기로 합의를 하였다.

2009년 말에는 러시아에서 고속정 2척을 도입 및 2010년 10월에는 2대의 미사일 고속정을 도입하였다. 2011년 타란툴 급 고속정을 2대 도입하였으며 이후 추가 도입을 고려중이다. 투르크멘바시의 해군 기지는 소형으로 2015년까지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 이였으나 계획이 앞당겨진 상태이다.

이러한 급속한 도입 및 공사의 원인은 이란이 제2의 카스피 해 해군 전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따라잡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고 있다.¹⁷⁾

15) 박병진, “우리해군 고속정 카스피 해 누빈다.” (2005.4.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0091214>

16) Global Security, Turkmenistan navy

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entralasia/turkmen-navy.htm

17) Stratrisks, "TURKMENISTAN Quietly Builds Up Caspian Military Might" (2012.7.15)

<http://stratrisks.com/geostrat/6919>

6. 군비 경쟁의 과정 분석¹⁸⁾

해군력 측정에 있어서 국가 간 해군력을 비교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함선의 수 비교 및 함정의 톤수 합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숫자 비교에는 현실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통계상으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 규모가 미군의 해군 규모보다는 크지만 함대의 총 배수량으로는 미국이 미국의 다음 13개 국가들의 총 배수량을 합한 것 보다 크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일 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구도 수학적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조차 분명치 않다. 하지만 카스피 해 연안 5개국의 해군력 비교에서는 위 비교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유로는 명확하게 러시아가 타 국가들보다 해군 군사력에서 절대 우위에 있으며 나머지 4개 국가는 발전하는 추세로 그 차이를 가늠하기 위해 서로가 도입하고 있는 함정을 비교 할 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함 보유량과 총 배수량을 비교 및 국방비 비교로 군비경쟁의 외부적 요인을 분석해 보고 현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추세에서의 대통령 군사 관련 발언으로 내부적 요인을 분석해보자 한다.

<표 1> 카스피 해 연안 국가 전함 보유량 및 총 배수량 비교

국 가	러시아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전함 보유량	23	1+@	24	18	20
총 배수량 (톤)	9,801	1,400+@	6,710	3,450	3,340

출처 : www.globalsecurity.org, russian-ships.info, www.wikipedia.org 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이란의 카스피 해 함대는 현재 러시아에 뒤이어 제 2의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소형 함의 보유 대수에도 기인하나 가장 큰 요인으로 러시아의 전함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전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장 큰 전함은 500톤이 넘지 않으며 아제르바이잔의 기함인 1150톤급 페트야 급이 가장 비교대상이 될 만하다.

페트야 급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76mm 함포 4문이지만 이란의 자마란-2는 76mm 함포와 지대공/지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누어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200km 반경 내 목표를 포착하여 명중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에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¹⁹⁾

이란 카스피 해 전함 보유량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표 1> 에는 작년에 도입한 자마란-2 구축함만 들어가 있다. 나머지 전함의 구성을 추측해보기 위해 전체 이란의 전함 보유량을 조사해본 결과 카스피 해 전함의 대부분은 해안가 순찰용 고속정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기준 이란의 총 전함 보유량은 408대로 중국, 북한, 태국에 이어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287대는 해안가 순찰용 함정이며 잠

18) 제임스 홈즈, 요시하라 도시, "미국과 중국의 해군력 비교", 신동아 (2011.2.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62&aid=0000004271>

19) Naval Technology, "Jamaran / Mowj Class Multi-Purpose Guided Missile Frig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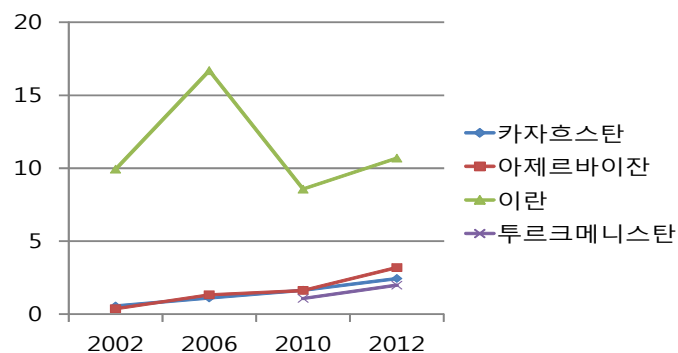
<http://www.naval-technology.com/projects/jamaranmowjclassmult/>

수함과 강습상륙함이 각각 29대, 26대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소형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²⁰⁾

즉, 러시아를 제외하고 500톤 미만 소형 함정이외의 대형 군함이 없던 카스피 해의 판도를 바꾼 것은 바로 이란의 자마란-2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갑자기 영해에서의 안보를 주창하며 2007년부터 건조에 들어간 자마란-2에 대항하여 각 국가들의 군사 지출이 매해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표 2> 카스피 해 연안국 군비 지출 현황 (2002 ~ 2012)

단위 : 10억/\$



단위 : 10억/\$

지출년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2002	0.552	0.364	9.923	
2006	1.102	1.322	16.684	
2010	1.635	1.618	8.565	1.07
2012	2.434	3.186	10.687	1.98

출처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1988-2012를 토대로 필자가 작성

러시아는 2012년 기준 군사비 지출 약 900억 달러로 카스피 해 역내 1위이며 이를 이어 이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에 따르면 GDP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러시아가 4.4%로 제일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3.4%, 투르크메니스탄 2.9%, 이란 1.8%, 카자흐스탄 1.2%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은 GDP 대비 군비 비율은 1998년 이후 최초로 감소한 해로, 0.5%가 감소하였으나 카스피 해 연안 국가들 중 GDP 대비 군비 세계 평균인 2.5%가 넘는 국가가 5개국 중 3개국이며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비춰볼 때 이 지역에서의 군비 경쟁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²¹⁾

또한 각 국가들의 수반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여러 번 열린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경계가 확실히

20) Globalfirepower, Country military strength detail - Iran

http://www.globalfirepower.com/country-military-strength-detail.asp?country_id=Iran

21)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2, SIPRI (2013. 4)

히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성에 기반을 두어 군비증강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연안국가들 모두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다. 그렇기에 군사 및 안보정책의 진행도 대통령의 의지와 생각에 따르고 있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예로 2011년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통령령 161호로 군사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 중 카스피 해에 관련하여 “카스피 해의 해결되지 않은 법적 지위는 군사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소유권 논란에 있는 유전은 역내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꾸준한 군비증강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²²⁾

이란의 이전 대통령인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카스피 해 구축함 진수식에서 “이란의 해군은 우호증진과 모든 국가에게 안보를 제공하며, 카스피 해의 안보를 방해하는 극단주의를 방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의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며 압도적인 전력으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는 숨기고 있는 것이다.²³⁾

즉, 경계 확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 정책의 주체인 각 대통령들은 카스피 해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서로 자극받으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 불안감이 군사 정책에 반영 되면서 군비 경쟁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볼 것인가 호수로 볼 것인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바다로 인정이 된다면 유엔해양법 협약이 적용되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호수로 인정이 된다면 인접국과 협의하여 경계를 나누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바다와 호수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으니 이 지역에 맞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입장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카스피 해 경계확정에 대한 연안국들 간 입장 대립 구도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대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이 되었는데 이러한 구도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과 2003년 5월 14일 수역 공동이용, 바닥 분할 안에 합의하면서 형성이 된 것이다.²⁴⁾

최종 합의가 멀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란에 달려있었다. 이란이 위 3국과 합의만 한다면 다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도 따라올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2장에서 설명한 학자들의 정의로 군비경쟁이라는 용어를 카스피 해 연안 5개국 군비경쟁 상황에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했었다.

22) FMSO, Republic Update - Military Doctrine and Policy of Kazakhstan, 2011, pp15~18

23) Xinhua, "Iran's newly-launched destroyer in Caspian Sea "to guarantee security":

president: (2013.5.18)

<http://www.prisonplanet.com/irans-newly-launched-destroyer-in-caspian-sea-to-guarantee-security-president.html>

24) Trend.az, "Caspian Sea legal status is an important part of Iranian foreign policy", (2014.03.4.)

<http://en.trend.az/news/politics/2249125.html?>

러시아 해군이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개국은 그 군사력의 증가 속도가 빠른 추세이나 아직은 러시아에 비하면 절대 열세기에 군비경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스피 해 제 2의 군사력을 보유한 이란에 주목해보자면, 러시아와의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가장 거대한 군사력과의 마찰은 피하고, 역내 최대 크기 전함 진수 및 잠수함 배치 계획을 발표하며 경계가 맞닿아 있는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두 국가는 이에 맞서 군사력 증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3개국에 러시아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지원으로 나토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즉, 서로 상대방 군사 행동 억지능력 배양에 그 목적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 군비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2년도 이란의 구축함 취역을 발단으로 군비경쟁이라는 용어 사용은 더욱 명확해지게 되었다. 더 이상의 협의보다는 군사력 우위를 통한 지역 패권 싸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선택한 것이 되었으며, 주변국을 경계하고 있는 연안 국가들 간 군비 경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카스피 해에서 해군 퍼레이드 및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의 경계 획정 문제의 진척은 어려워 보인다.²⁵⁾

이해당사자들끼리 풀지 못하는 문제는 중립적인 중재자가 등장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주어야 한 다지만 러시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카스피 해 연안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러시아는 외부의 간섭은 배제한 채 역내에서의 타결을 외치고 있다. 2013년도 9월 외교부 장관급 카스피 해 연안국회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다.²⁶⁾ 2014년도 회의는 4월 1,2일 양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슈가바트에서 열릴 예정이나 이번 회의도 별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²⁷⁾ 이미 환경보존과 같은 기타 이해관계가 얹힌 분야는 합의를 다 마친 상태이고, 가장 핵심인 지하자원의 배분에 있어 서로의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연안 유전의 고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군사적 충돌이 자칫 전 세계의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줄 정도로 카스피 해의 중요성은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매한 경계구역 설정 하에서의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²⁸⁾ 러시아가 이에 따른 군사적 행동을 직접 언급했기에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지금의 합의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파이프라인 합의 상황에 따라서도 각국의 군사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된다.

25) Defense Update, "Iranian, Russian Navies to Launch Joint Naval Wargames in the Caspian Sea" (2013.6.28) http://defense-update.com/20130628_caspian_wargame.html

26) News.az, "Caspian littoral states' working group discusses Caspian status" (2013.9.12) <http://www.news.az/articles/politics/82522>

27) Trend.az "Caspian Sea legal state is an important part of Iranian foreign policy" (2014.3.4.) <http://en.trend.az/news/politics/2249125.html?>

28) 연합뉴스, "EU·투르크멘, '카스피 가스관' 착공 임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610718>

참고문헌

- 제성훈, 카스피 해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슬라브학회 제26호, 2009
- 방금철, 한중일 3국 해군군비경쟁에 관한 실태와 영향 연구, 한남대학교, 2006
- 김승, 군비경쟁의 기원 : 동북아시아(1998~2008) : 군사비 증강의 원인분석과 리처드슨의 군비경쟁이론의 재고찰, 고려대학교, 2009
- 제성훈, 카스피해의 지정학적 의미와 경계획정 문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을 중심으로, 2010
- 권기수, “국제분쟁 원인에 관한 소고 : 과학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 에너지정책연구원, 세계 주요국의 자원 부존 및 수급 분석 - 카스피해 연안국가를 중심으로, 2008
- 요리우리신문사, 권재상 옮김, 최첨단 무기 시리즈 대양함대 - 현대의 해군력, 1993
- 강삼구, 신 거대게임: 미국과 러시아간의 카스피 해 에너지자원 획득 경쟁, 2008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러시아의 안보 정책과 군사 조직, 2001
- 선중률, 남북한 군비경쟁 양상 변화에 관한 연구, 2011
- 김선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러시아의 대응, 2009
- 황재연, 김정환, 현대 해군의 수상전투함, 2007
-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임인수 옮김, 국가의 해양력, 1999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ranian Naval and Maritime Strategy, 2013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Situation Report: The Russian Crisis Update, 2008
- SIPRI,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2, 2013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1988-2012, 2013
- FMSO, Republic Update - Military Doctrine and Policy of Kazakhstan, 2011
- Roger N. McDermott, KAZAKHSTAN'S DEFENSE POLICY: AN ASSESSMENT OF THE TRENDS, 2009
- Jim Nichol, Turkmenistan: Recent Developments and U.S Interests, 2012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 고찰

조문정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목차

I 서론
II 정치체제
III 정당
IV 장기집권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키르기스스탄은 ‘민주주의의 섬’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민주국가이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인 개혁 초기부터 민주주의의 도입, 의회중심제 체제, WTO가입 등의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자원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활용한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위로는 카자흐스탄, 동으로는 중국, 아래로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내륙 국가이다. 수도는 비슈케크로 수도의 인구는 80만 명이다. 전체 인구는 560만 명(2012년 기준)이다. 면적은 198,500km²로 한반도의 0.95배의 크기이다. 주요 민족은 키르기스인 70%로 주요민족이며 우즈베크인이 14.5%, 러시아인이 8.4%, 위구르인이 1%이다.

1993.5 신헌법 채택, Kyrgyz Republic 이라 개명하였고, 1994.1 대통령 신임투표로 아카예프가 96.2% 획득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1994.10 양원제설립 골자 개헌하고 1995년 12월 대통령선거로 아카예프가 재선한다. 2000년 10월 대통령선거로 아카예프는 3선을 하고 2005년 3월 총선부정선거 이후 대중의 소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툴립혁명이다. 이 혁명으로 인해 2005년 4월 아카예프대통령은 실각하고, 바키예프 대통령이 과도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같은해 7월 바키예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6년

11월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헌법을 개정한다.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게 되고 그해 개정 헌법위헌 결정하면서 2003 아카예프 당시 헌법으로 회귀하게 된다. 2007년 12월 신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바키예프 대통령 신정부 출범한다. 그리고 2010년 4월 비쉬켈에서 반정부 시위인 2차 혁명이 일어나고, 바키예프는 실각하게 된다. 바키예프 정권때, 툴립혁명의 의도인 대통령에 비해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 강화, 권력분산을 통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반대로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 더 강화되어 민주주의의 역행하게 된다. 민주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대통령이 또 다른 반정부 시위로 물러나는 아이러니를 보였다.¹⁾ 바키예프가 축출되고, 오텐바예바 과도정부가 출범하는데 2차 재민주화로 보여지는 의원내각제, 새헌법개정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아탐바예바가 야당 지도자 출신으로 중앙아시아 최초로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고 정권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연립정당의 불안이 지속되며 민주주의 고착화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아시아 비교정치 수업을 통해 연구한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요소들 즉, 정치체제, 정당과 선거, 정권요인들을 분석하여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정치체제

키르기스스탄은 총 세 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독립 이후 1993년 첫 헌법개정과 툴립혁명 이후인 2007년, 2차혁명 이후인 2010년의 경우가 그러하다. 세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에서 단원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체제이다.

먼저 행정부로, 대통령의 권한을 신헌법 상에서 보고자 한다.

60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를 대표

61조 총리를 자명할 권리

이것은 의회 권력의 지시 아래 매우 제한적 조건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64조 대법원판사, 검찰총장, 중앙은행 총장을 임명할 권리로 의회의 감독과 제한 하에서의 권리이다.

68조 대통령 유고시 국회 의장이 1순위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총리는 2순위. 이경우 3개월 이내에 새 선거가 시행되어야 함

84조 행정권력으로서의 주요 권한 총리임명. 2) 사실상의 총리선출은 의회에서 이루어진다. 대법관 지명 권한 또한 의회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지방법원 판사 임명조차 ‘판사평의회’의 지명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는 연립정부로 2010년에는 친과도정부정당인 사민당, 아타메켄(조국)당이 의원내각제지지했고, 반과도정부정당인 아타주르트, 아르남이스(존엄)당은 대통령제지지하였다. 2012년, 아타메켄, 아르남이스 탈퇴선언으로 자동

1) 강봉구.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제도 선택”.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2010)

2) CONSTITUTION OF THE KYRGYZ REPUBLIC

해산하였고 2012년 9월 사회민주당, 아르남이스(존엄)당, 아타메켄(조국)당 3개 정당이 새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였다.

입법부는, 2005년 의회선거 후엔 5년의 임기로, 의석은 75석이었다. 이후 2007년 10월엔 90석, 2010년 10월엔 120석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의석수에 이르렀다. 2010년 10월 10일 당시의 의석수 비율을 살펴 보면, 아타주르트당은 8.47%로 28석, 사회민주당은 7.83%로 26석, 아르나미스는 7.57%로 25석, 레스푸블리카는 6.93%로 23석, 아타메켄이 5.49%로 18석이었다. 헌법에 명기된 입법부는 아래와 같다.

70조 국회의원 120명, 임기: 5년, 정당명부식 투표제도를 통해 의석 배분, 한 정당은 120석의 의회 의석 중 최대 65석까지만 허용

74조 헌법수정안 제안, 법안 가결, 국가예산 승인, 국민투표시행 관련 법안 의결, 대통령 선거 결정
81조 대통령이 14일 이내로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의회 의장이 10일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

사법부는 1990년 12월 5일,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주권 선언하였고 1990년 12월 14일 헌법 재판소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5월 5일 헌법 처음 제정하였고 1993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제정하였다. 헌법재판소장, 부소장 각 1인 및 재판관 7인으로 총 9인 구성하고 있으며 재판관 임기 15년이다. 권한은 법률 및 법규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하고 헌법의 효력을 적용하고, 해석 관련한 분쟁 해결한다. 또 헌법개정안 발의하는 권한을 지닌다.

III 정당

2007.10 개정된 헌법에 따라 12월 총선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졌으며,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전국 총계 5% 이상의 득표를 해야한다.³⁾ 광역 행정구역인 6개 지역들(바트켄주, 추이주, 잘랄아바드주, 나린주, 탈라스주, 이식쿨주)과 2개의 주요 도시들(비쉬켄, 오쉬)에서 반드시 0.5%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2007년 선거와 2010년 선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3) 강봉구.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제도 선택”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그림 1. 2007년 선거 결과

Parties	%	Seats
Ak Jol	61.7	71
Ata Meken	11.3	0
SDPK	9.3	11
Turan	7.0	8
Others	10.7	-

자료: European Form for Democracy and Solidarity "Kyrgyzstan"(2013) 재구성

2007년 선거에서 바키예프 정권은 친대통령 선거 연합 악줄(Ak-Jol)이 총선에서 61.7% 득표로 당시 90석중 71석을 차지하였다. 11.3% 득표한 제1야당 아타메켄이 오쉬 시에서 0.5%의 지역득표장벽을 넘지 못하여 개정선거법에 따라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 60%를 조금 넘게 득표한 악줄이 약 80%의 의석을 차지하여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결과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야당세력은 의회 선거에 항의, 두 개의 의회권력이 존재하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야당세력은 때때로 전국적인 연합집회를 조직하곤 했지만, 만성적 정치불안에 지친 시민들의 호응 저조하였다.

2010년 선거에서 역시 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각 정당은 전국적으로 최소 5%를 득표해야 하며 각 지역별(총 7개의 주와 비쉬켈, 오쉬)로 0.5% 이상의 득표를 해야했고 상기 조건을 만족한 정당에 한해 각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120 의석이 배분되었다.

그림 2. 2010년 선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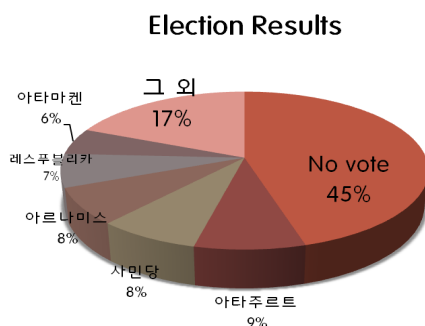


그림 3 . 2010년 정당별 의석

Parties	Votes	% of votes cast ¹	% by eligible voters	Seats
Ata-Zhurt	266,923	16.10%	8.89%	28
SDPK	241,528	14.55%	8.04%	26
Ar-Namys	232,682	14.02%	7.74%	25
Respublika Party of Kyrgyzstan	217,601	13.12%	7.24%	23
Ata-Meken	168,218	10.13%	5.60%	18
Butun Kyrgyzstan	145,455	8.76%	4.84%	—
Akshumkar	78,952	4.76%	2.63%	—
Zamandash	63,435	3.82%	2.11%	—
Other Parties	244,703	14.74%	7.77%	—
Not voting/casting invalid vote			45.14% (not needed)	—
Total		100.00%	100.00%	120
Turnout: 1,679,538 (55.90%)				

자료: European Form for Democracy and Solidarity "Kyrgyzstan"(2013) 재구성

정당별로 조금 더 알아보자면, 1993년 설립한 사회민주당의 현 당수는 알마즈벡 아탐바예프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띠고 있으며 현 의석수는 120석 가운데 26석이다. 1993년 압두가니 에르케바예프에 의해 설립되었고 1999년 아탐바예프로 당수 교체되었다. 1993년 창당되었지만 실제로 1994년 12월에 정당 등록하였다. 2004년 ‘공정선거연합’에 일원이 되어 당시 펠릭스 에섬카노프가 이끈 가장 큰 정당인 EI 당과 합병하여, 2005년 의회 선거 준비했으며 툴립혁명을 주도한 실질적 여당으로 과도정부의 핵심축이다. 의원내각제 지지하고, 혁명 이전부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인다. 당수인 알마즈벡 아탐바예프는 2000년 대통령 선거 출마하였고 2005과 2006 산업, 무역, 관광부의 장이었으나 바키예프의 부패와 개혁억압을 비난하며 2006년 사임하였다. 바키예프의 야당포용공약의 일환으로 2007년 총리직 수행했으나 같은 해 또 다시 바키예프의 씨족주의와 부패로 사임됐다. 바키예프 대통령 축출 후 과도정부 대통령 오투바예바가 아탐바예프를 임시총리와 경제부장관으로 지명하고, 2010년엔 부총리로 당선된 바 있다. 2011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60% 득표하여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안정이 없이는 키르기스스탄에 미래는 없다”라고 말했는데 관세동맹을 주도하는 러시아와의 협력적 관계 지향하며 러시아와 주변국가와의 “공동의 미래”를 지칭한 것이었다. 주요 지지기반은 친러시아적인 북 키르기스스탄이다.

아타메켄은 1999년 창당되었고, 이념은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이다. 오무르벡 테케바예프가 당수인 아타메켄의 현 의석수는 120석 가운데 18석이다. 의회주의와 경제개혁을 추구하였고, 다양한 사회 섹터와 정부기관 사이의 타협을 주고하고 있다. 오무르벡 테케바예프는 2000년 대통령선거 출마하여 14% 득표했고, 2005년 아카예프 축출하고, 새의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바 있다. 2006년 바키예프 임기 시, 개혁당 창당, 바키예프의 비평활동가였으며 오투바예바 대통령 시기에 헌법개혁 담당부처에 임명되었다. 극심한 반대파와 열렬한 지지파 공존하며 다섯 정당 중 가장 작은 정당의 당수로 활동하고 있다.

공산당은 1999년 창당, 사회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2000명의 멤버가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큰 당중 하나이다. 사회민주주의, 다원적 정치 체제와 시장 경제를 허용하고 에너지와 같은 공공자산의 민영화에 강하게 반대한다. 2010년, 마마네이토바는 정부전복을 시도하는 등, 무질서 유발하여 기소되었다. 그의 억류로 의회 선거 활동 할 수 없어서 의석을 얻는데 실패했다.

아타주르트는 2004년 설립되었고 전 대통령인 바키예프 휘하의 고위 인사들이 참여하여 남부지역을 기반으로 한다. 실질적 여당인 사회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반혁명 정당으로 친러 성향을 보이며 강력한 대통령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당수 캄치벡 타쉬예프는 바키예프 전 정권에서 비상부 장관을 역임했고 바키예프 정권이 무너짐으로 유력한 야당 지도자로 등장했다.

아르나미스당은 2005년 제1차 혁명 당시 북부지역을 대표한 펠릭스 쿨로프가 이끄는 당으로 현재 남과 북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대통령제로 정치체제 환원을 주장하며 선거 중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당수인 펠릭스 쿨로프는 아카예프 전 대통령 통치하에 정부의 여러 직책 역임했다. 2000년, 공적 지위(국가통화 감독관) 남용 혐의로 체포되어 2005년 툴립혁명당시까지 투옥되었다.

레스푸블리카당은 2010년 창당했고 현 당수는 오무르벡 바바노프이다. 정치적 이념보다 경제 문제에 집중한다. 사회민주당 출신의 당대표 때문에 범여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당 대표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개인사업을 벌이고 있어 친러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석수는 120석 중 25석이다.

아크숨카당은 2010년 선거에서 2.6% 득표로 의회진출에 실패했다. “민주세력연합”으로 2005년도 설립되었고 당수 테미르 사리에브는 2009년 대통령선거출마하여 당시 득표율 7%을 기록했다. 당의 방향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기 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지향한다.⁴⁾

부툰 키르기스스탄은 남부 키르기스스탄의 지지를 받으며 2010년 선거시 4.8% 득표했다. 부툰의 재검표로 총선 결과 발표를 3주 미루었다. 당수 아다칸 마두마노프는 바키예프 시기,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의장이었다. 아다칸 마두마노프는 신문사와 TV등 미디어매체 경력으로 시작하였고 젊은 미디어 해설가로 탁월한 달변가였다. 키르기스스탄 첫번째 대통령인 아카예프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바키예프 대통령 시기, 국무장관 역임한 이후 의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바키예프 정권의 야당으로 바키예프 축출 이후 창당하게 되었다. “강력한 법”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지지세력은 남키르기스스탄이다.⁵⁾

IV 장기집권

키르기스스탄은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독립 후 첫 정권인 아카예프 정권은 14년 6개월간의 장기집권을 하였는데, 이후 바키예프 정권에도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독재주의 노선을 걷는 행보를 보였다. 이와 같이 키르기스스탄은 정권유지의 이중성이 혼재되어 있다.

아카예프 정권은 1990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4년 6개월의 장기간 정권을 잡았다. ‘민주주의의 섬’으로 불리기까지 했지만,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소수 민족의 대표성을 거부하고 지역주의 강화에 따른 체계적 야당 성장을 저해하였다. 2005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바키예프 정권은 톨립혁명의 의도가 된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 권력분산을 통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는 반대로 도리어 대통령의 권한이 더 강화되어 민주주의가 퇴보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는 상반되는 장기집권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전체주의적 특성을 들 수 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직면한 과제는 정권의 틀을 잡는 것이었다. 기존의 시스템을 민주적, 자본주의적 모델에 따라 재구성하고 민주적 모델의 건설을 추구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아카예프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소수 민족의 대표성을 거부하고 지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야당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펼쳤다. 정치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의회보다 컸다. 의회는 정부 내각에 대해 불신임을 물을 수 없으며 대통령은 의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었다. 대통령은 법안 거부권과 법령을 공포할 수 있는 일종의 입법권을 지녔다. 2006년 11월 3차 개헌안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정당들은 의회 의석 비율에 따라 50%의 정부 내각 구성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이양 받았으나 내각 구성에 대한 의회의 무능력 및 의회 해산이라는 협박으로 인해 그 해 12월 대통령에게 다시 내각 성립 권한이 이양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

4) European Form for Democracy and Solidarity "Kyrgyzstan"(2013). Political Parties. White Falcon (Ak-Shumkar)

5) European Form for Democracy and Solidarity "Kyrgyzstan"(2013). Political Parties. United Kyrgyzstan (Butun Kyrgyzstan)

시키는 도구로 선거, 국민투표 그리고 형식적 정책이 사용되었다. 1994년에서 2003년동안 일련의 국민투표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민들의 올바른 시국 현황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현혹시키는 정부의 형태를 띠었다. 또한 다양한 축제와 기념일 ‘마나스-1000, 오쉬-3000,-2200년의 국가, 키르기스스탄’과 국정운영의 기치로 ‘산의 해’, ‘여성의 해’, ‘공정한 운영의 해’ 등과 같은 형식적인 것들이 사용되었다.⁶⁾ 이러한 행사들이 시작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될수록 어떠한 의식이 없는 그냥 보고서 작성과 불거리들로만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사의 예산은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큰 세금을 과징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끌어 모았는데 이 모금 또한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하루 임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으로 소수의 경제적 이익의 향유를 위해 통제적인 경제 정책을 사용하였는데, 국가 전반의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산업과 금융기관의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접근성이 용이하였다. 상부 엘리트들은 이러한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고 지속하기 위하여 계혁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성은 저하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누적되었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강압적인 방법들을 시행하였는데 바로 무력으로 국민들을 억압한 것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 비즈니스는 대통령에 의해 통제받았다. 아카예프 대통령의 딸인 베르멧 아카예바와 그의 남편은 건설 자재, 술, 오일 비즈니스 등을 손위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공항, 통신, 금광업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곳이면 바로 자신의 사람들과라고 여기는 측근을 배치하여 통제하였다.

세 번째, 무력적 특성이다. 다양한 형태의 무력 집단이 등장하였는데 국가에 의한 공권력의 유지와 국방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 핵심 권력과 결부된 사적인 무력 조직의 존재는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사회적 기반이 약하여 국방력과 경찰 권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 무력 집단이 등장하여 합법적인 비즈니스에서 종사하였다. 이들은 아카예프 정권의 구성원들과 매우 강력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통령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재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이고 합법적인 무력세력을 소유하였다.⁷⁾ 이후 정권에선 또 다른 무력 세력이 등장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각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후보를 지지하였고 정치세력과의 깊은 연관은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였다.

네 번째, 캐서린 콜린즈(Kethleen Collins)가 ‘비공식적인 사회조직으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혈연관계의 폭넓은 관계로 이루어진 신분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씨족주의이다.⁸⁾ 이는 국가 형성 과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 1924년 스탈린이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각 민족의 국경선을 확정하고, 각 민족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혁은 현대적 민족국가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실패하였고, 자신들이 소비에트에 의해 형성된 국가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이 속한 혈연 및 씨족 관계에 더 익숙하게 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시절, 중앙정부는 키르기스스탄의 우수발리예프 같은 혈연 및 씨족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통치한 반면 고르바초프는 집권 후 모두 실각하고, 중앙

6) 양정훈, “키르기스스탄의 국민혁명 -바키예프 정권 전,후의 정치변동-”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 15권 2호, (2011)

7) International Crisis Group, "Kyrgyzstan : After the Revolution", 『Crisis Group Asia Report』 No.97, May, 2005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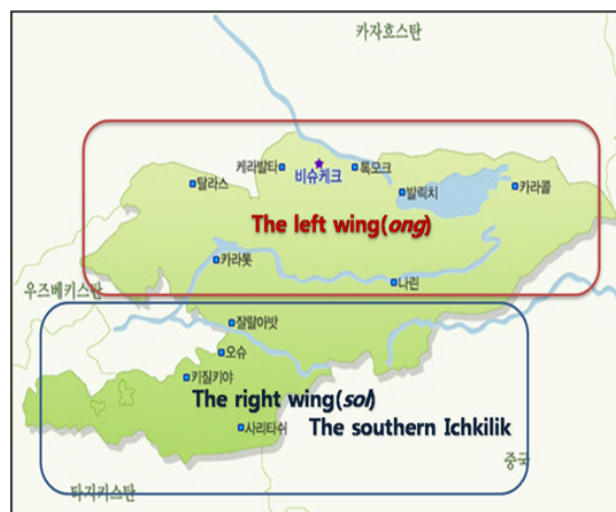
8) Kethleen Collins, "The Political Role of Clans in Central Asia", 『Comparative Politics』, Vol.35, No.2 (2003)

에서 파견한 엘리트로 대신하여 폭동 야기시켜 다시 혈연-씨족 대표 지도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었다. 독립 후, 지배적 민족집단에 근거한 민족국가 건설, 새로운 국기, 국가, 문장의 제정을 통해 통일된 국가의 모습 재건코자 새로운 국가 기념일과 종교 기념일 등 제정, 다수 씨족 언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정치적 지배 권력을 국가의 특정 혈연 집단에 기반한 특정 소수에게 집중된 것이고, 대통령은 이런 권력 피라미드의 최상위점 위치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혈족에 기반을 둔 남부와 북부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이러한 지역주의적 전통은 권력 불균형과 관련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명확히 하게 하였다. 키르기즈 민족은 오래전부터 국가를 남북으로 나눈 산맥의 양 측면에 정착하였는데 산악지형적 특성인 한정적인 접촉은 지역색을 강화시켰고, 주요 계곡지역 문화권인 페르가나, 탈라스, 추이, 이식쿨 그리고 나린은 문화, 언어, 의상, 음식, 심지어 정치 사회적 가치관까지 발전되었다.

Left wing은 키르기스 북/서 지방으로 7개 부족으로 구성되며 Right wing은 1개의 부족(the Adygine)만 존재한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북부와 남부 출신들이 번갈아 요직을 맡아 옴에 따라 두 지방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소비에트 시절의 불균등한 정치 경제적 자원의 배분은 북부와 남부지방을 경쟁의 위치로 만들었다.

그림 4.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따른 씨족 구분



자료: 서유림, 신형곤.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유지와 장기집권의 배경에 관한 연구” 『KIEP-GSIS 중앙아시아 연구 원우논집』 (2005)

여섯 번째, 사회적 측면의 첫 번째는 NGO이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부 구조 영역을 벗어난 사회 안에서의 비공식적, 자율성 있는 사회 운동인데, NGO는 정부와 민간 활동 혹은 대안적인 정치 운동을 감시하는 기능,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부문이다. 키르기스스탄의 NGO는, 정부의 NGO단체 활동 제한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재정력으로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현재 키르기스NGO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며 국제 자원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키르기스스탄 지역 내의 지지기반과 기부자가

부재하게 된다. 두 번째 요소는 언론으로 ‘표현의 자유’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언론은 역사적, 정치적 이유로 다소 억압되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혁명 이전 아카예프 대통령 정권에서 독립 언론의 환경이 악화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반정부 성향의 신문 탄압하였는데, 주로 법적 정당성을 이유로 많은 간섭을 받고, 관련자들 투옥되었다. 혁명 이전인 2000년대 초 Respublica 신문 편집장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투옥, 일정기간 신문발간의 중단되었고 러시아어로 발간되는 독립 언론 Delo No는 2000년 대선 동안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가안보부에 의해 고소되었다. 또한 가장 인기있었던 Asaba 신문은 국가에 대한 허위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벌금을 물며 결국 2001년 3월 폐간되었다. Moya Stolitsa 편집장은 공무원의 명예모독과 도덕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고 2003년 6월 신문 폐간되었다.

V 결론

키르기스스탄에 일어난 툴립혁명을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 이루어낸 “온건한 혁명”과 비교하여 민주화 운동으로 말한다. 하지만 소수의 키르기스스탄 학자들 견해는 달리 해석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기보다는 반대로 키르기스스탄에서 일어난 5월의 사건을 정치적 변혁 및 한 일족의 권력이 다른 일족으로 넘어간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⁹⁾ 민주화 열풍으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새롭게 민주 세력이 들어섰지만 기존 체제의 붕괴를 무작정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민주혁명의 시작과 끝은 매번 새로이 탄생한 정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주혁명을 또 다른 독재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주도한 혁명세력은 정작 뒷전으로 밀리고 구정부의 기성 정치세력이 여전히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과도 대통령(오티바예바)의 임기가 2011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0월 30일 대통령선거를 치루었다. 혁명세력인 사회민주당의 아탐바예프 vs 아타주르트(조국)당의 타쉬예프와 부룬 키르기스스탄당의 마두마로프 후보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것은 북부와 수도권지역의 아탐바예프에 대한 지지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아타 주르트, 부룬 키르기스스탄이 기반을 둔 남부지역의 저조한 투표율을 이유로 들 수 있겠다. 혁명 후 초대 내각의 총리였던 아탐바예프가 당선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요소가 도입된 정치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

키르기스스탄의 “민주주의 프레임”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색깔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당들 또한 강한 사회적 기반이 부재한 상태이다. 정치적 이슈 또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이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정치적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 다분하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과 정치 또한 과거의 전통과 관습인 혈연, 지연, 학연, 인종 및 친족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행위의 반복은 정치적 허약함과 무능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 양정훈, “키르기스스탄의 국민혁명 -바키예프 정권 전,후의 정치변동-” 『한국 시베리아연구』, 제 15권 2호, (2011)

참고문헌

- European Forum for Democracy and Solidarity. "Kyrgyzstan"(2013)
- S. Frederik Starr. "Clans, Authoritarian Rulers and Parliaments in Central Asia" 『Central Asia Caucasus Institute Silk Road Paper』 (2006)
- International Crisis Group, "Kyrgyzstan : After the Revolution", 『Crisis Group Asia Report』 No.97 (2005)
- International Crisis Group. "Political Transition in Kirgizstan : Problems and Prospects" 『Crisis Group Asia Report』 No.81 (2004)
- Kethleen Collins, "The Political Role of Clans in Central Asia", 『Comparative Politics』 , Vol.35, No.2 (2003)
- Кудавиев З. И. "Кыргызстан в цифрах", Бишкек. (2004)
- 외교통상부. 『키르기스스탄 개황』
- 한국무역보험공사. "키르기스스탄 정치, 경제 동향"(2013.7)
- 강봉구. "세계로부터 천산(天山)으로: 키르기스스탄 대외정책 정향의 변화" 『슬라브학보』 . 제 25권 1호. (2009)
- 강봉구.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제도 선택". 『제2차 중앙아시아 국내 학술대회』 (2010)
- 양정훈. "키르기스스탄의 국민혁명 -바키예프 정권 전,후의 정치변동-" 『한국 시베리아연구』 . 제 15권 2호. (2011)
- 주진홍(KIEP). "키르기스스탄 총선에 따른 연립정권 구성 결과와 향후 전망"(2010)
- 박지원.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주요 정책운용방안"(2013)
- 박지원.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성장 전략"(2013)
- 서유림, 신형곤. "키르기스스탄 정권의 유지와 장기집권의 배경에 관한 연구" 『KIEP-GSIS 중앙아시아 연구 원우논집』 (2005)

< 인터넷 사이트 및 기사 >

<http://www.europeanforum.net/>

<http://kyrgyzstan.carnegieendowment.org/2010/11/new-kyrgyz-parliament-represents-fraction-of-the-electorate/>
(검색일 : 2013.10.10)

CONSTITUTION OF THE KYRGYZ REPUBLIC

2014년 한국슬라브학회 연례학술대회

한양대 HK 연구사업단 세션
러시아 대외 정책 및 극동러시아 사회문화

사회자: 정세진 (한양대)

발표 1

강봉구 (한양대)

강대국'으로의 복귀?: 푸틴시대의 대외정책(2000-2014)

발표 2

김영진 (한양대)

러시아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발표 3

이평래 (한양대)

근현대 한국 지식인들의 바이칼 인식
-한민족 기원 논의와 관련하여-



강대국'으로의 복귀?: 푸틴시대의 대외정책 (2000-2014)

강봉구 (한양대)

러시아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김영진 (한양대)

1. 서론

러시아는 소련 말기의 정체로부터 시장경제 도입 후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인 혼란을 경험했다. 그러나 1998년의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경제는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2000년대 들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의 영향에 힘 입어 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연평균 약 7%의 꾸준한 성장을 지속했다.

한편, 명목상 ‘평등 사회’를 내걸었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러시아 사회 내부의 경제 격차는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시장경제화에 따른 자유경쟁의 도입은 빈부 격차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밖에 없지만,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시대에 존재한 사회안전망이 해체됨으로써 격차 확대 경향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2000년대의 경제성장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와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큰 혜택을 제공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불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제격차가 현저하게 확대된 데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간 격차의 확대가 반드시 시장경제화의 필연적인 귀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시장경제 이행 전에 자생적인 사유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과 법제도의 확립이 지체되어 부패의 규모가 확대된 것 등도 경제격차 확대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의 확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연방정부의 강화와 함께 극동지역에서 많은 개발 계획이 실현되었다. 2012년 아시아·태평양 정상회담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발 계획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교통·에너지·광업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인프라의 미정비에 의한 장애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와의 공생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러시아 동부의 상황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푸틴 대통령의 임기 시작 당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푸틴 대통령은 2001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경제정책의 향후 방향전환 대상은 동방이

* 이 글은 미완성 상태의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2002년에는(1987년과 1996년에 이어) 차기 국가프로그램을 승인했다. 그 내용은 극동 러시아 및 자바이칼의 경제력을 2010년까지 두 배로 증가시킨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2013년 3기째 집권을 성공한 후 2012년 12월 향후 10~12년간 러시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극동 러시아 및 바이칼 지역(자바이칼 지방, 부랴트 공화국, 이르쿠츠크주)의 가속적인 발전을 내걸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지금까지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불만과 러시아 동부의 새로운 야심찬 목표의 설정 및 그 달성에 대한 의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5월에는 전문적인 담당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였고 극동개발부는 2013년 3월말 러시아 동부 전역의 발전에 관한 새로운(2014~2018년 및 2025년까지의) 국가프로그램을 수립하게 되었다.

동시에 러시아 국내에서는 재정투자정책 및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었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NPO등의 불만의 이유는 재정자금의 배분을 둘러싼 부패 및 이슬람 인구가 많은 체첸 등 남부지역의 개발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의 고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1년 12월 4일 의회 선거에서 특히 극동지역에서 야당의 득표율이 높았던 것은 이러한 사회 불만의 강도를 나타냈다. 일반 시민과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도 지역개발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Минакир и Прокопало, 2011).¹⁾ 연방정부에 의한 지역개발의 강화와 지역의 정치·경제계의 불만 간의 겹은 왜 확대되고 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재정투자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2절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지리적, 인구적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간 격차의 현황을 검토하고, 극동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3절에서는 지역격차 문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역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4절에서는 러시아 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 및 극동지역에서의 재정투자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극동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하고 그 성과와 한계 및 문제점을 점검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정리하고 2000년대 이후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2. 러시아의 지역간 격차

러시아는 83개 연방구성주체²⁾로 구성되고 이들은 8개 연방관구로 불리는 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여기서는 연방관구별 각 지역의 인구 및 GRP의 추이 및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은 1991년 이후 연방관구별 인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전체의 인구가 감소해 왔기 때문에, 남부 연방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007년의 인구는 1991년보다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991년 이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극동 연방관구이다. 극동 및 시베리아와 같이 전통적으로 인프라 정비가 지연된 한랭지역에서 대량의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1) Минакир, П. и Прокопало, О. Программы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2011, с. 93-104.

2) 러시아연방 성립 직후인 1992년 12월, 체첸·잉구슈공화국을 체첸공화국과 잉구슈공화국으로 분리한 이래, 러시아의 연방은 89개 연방구성주체로 구성되어 있었다. 2005년부터 소수민족의 자치구로 설치되었던 자치구를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현재 연방구성주체의 수는 83개로 되었다.

그 영향이 인구 동향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지역사회의 생활조건 그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

<표 1> 연방관구별 인구 추이(단위 :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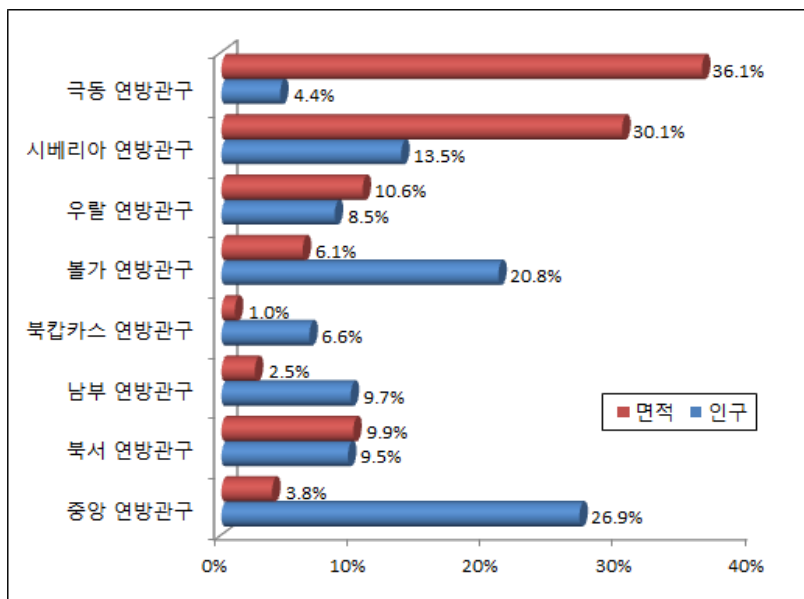
	1991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비중 (2012년)
러시아연방 전체	147,665	148,356	147,539	144,964	143,474	142,221	141,904	143,056	100%
중앙 연방관구	38,155	38,115	38,228	37,947	37,546	37,218	37,122	38,538	26.9%
북서 연방관구	15,311	14,864	14,324	13,949	13,731	13,550	13,462	13,660	9.5%
남부 연방관구	21,018	22,284	22,743	22,892	22,821	22,777	22,902	13,884	9.7%
볼가 연방관구	31,837	32,082	31,703	31,105	30,710	30,346	30,158	29,811	20.8%
북캅카스 연방관구	-	-	-	-	-	-	-	9,493	6.6%
우랄 연방관구	12,748	12,635	12,515	12,361	12,279	12,231	12,255	12,143	8.5%
시베리아 연방관구	21,142	20,962	20,464	20,031	19,794	19,590	19,545	19,261	13.5%
극동 연방관구	8,064	7,518	6,913	6,680	6,593	6,509	6,460	6,266	4.4%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 (<http://www.gks.ru/>)

<그림 1>은 각 연방관구별 면적과 인구의 분포를 보여준다. 면적에 비해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표적인 연방관구는 극동 연방관구와 시베리아 연방관구인데, 특히 극동 연방관구는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36.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4.4%에 불과하다. 이와 대조적인 경우가 중앙연방관구인데, 면적은 3.8%로 남부 연방관구와 북캅카스 연방관구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인구는 가장 높은 26.9%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8개 연방관구와 83개 연방구성주체는 대단히 이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면적, 인구밀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산업구조 및 주요 경제지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징은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추가적인 장애를 조성한다.

3) 러시아는 1995-2009년 동안 지속적인 자연인구의 감소를 겪었다. 출생률은 크게 하락했으며 유입 이주는 자연감소를 대체하지 못했다. 그런데 2007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율은 천천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부터 유입이민의 숫자가 자연감소를 초과했다. 그리고 그 결과 2009년부터 점차적인 인구증가를 관찰할 수 있다. 2010년 러시아연방의 인구는 2009년에 비해 96,5000명 증가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약간의 증가가 관찰되고 있다. Irina Slepukhina, "Regional policy and Urbanization in the contemporary Russia," Oct 2012, <http://www-sre.wu.ac.at/ersa/ersaconfs/ersa12/e120821aFinal00484.pdf>

<그림 1> 연방관구별 면적과 인구의 분포



그러면 각 지역의 경제상황과 그 발전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표 2>는 각 연방관구의 지역총생산(GRP) 및 그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차지하는 GRP의 크기와 그 비중의 변화를 보면, 중앙 연방관구와 우랄 연방관구의 GRP 비중이 상승하고 다른 연방관구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방관구의 GDP 비중의 상승은 수도인 모스크바와 러시아 최대의 유전을 갖고 있는 튜멘주⁴⁾의 GRP 규모가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은 1인당 GRP도 1998년에서 2007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으며, 러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각 연방관구의 지역총생산(GRP) 및 러시아연방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루블)

	1998년	비중	2003년	비중	2005년	비중	2007년	비중
러시아연방 전체	2,251,978	100.0%	10,742,423	100.0%	18,034,385	100.0%	28,254,788	100.0%
중앙 연방관구	634,372	28.2%	3,577,143	33.3%	6,278,359	34.8%	10,305,111	36.5%
북서 연방관구	240,785	10.7%	1,091,027	10.2%	1,799,780	10.0%	2,788,331	9.9%
남부 연방관구	185,005	8.2%	836,255	7.8%	1,288,126	7.1%	2,174,836	7.7%
볼가 연방관구	429,882	19.1%	1,807,987	16.8%	2,799,036	15.5%	4,391,076	15.5%
우랄 연방관구	315,746	14.0%	1,659,322	15.4%	3,091,363	17.1%	4,276,047	15.1%
시베리아 연방관구	302,020	13.4%	1,209,597	11.3%	1,951,299	10.8%	3,027,504	10.7%
극동 연방관구	144,168	6.4%	561,094	5.2%	826,422	4.6%	1,291,882	4.6%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 (<http://www.gks.ru/>)

4) 튜멘주는 시베리아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중심이다.

두 지역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역은 GRP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는 침체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앙, 우랄의 두 연방관구에 대해서도 모스크바시와 튜멘주를 제외한 지역은 성장률이 높지 않거나 정체 경향을 보였다. 또한 다른 연방관구도 1인당 GRP는 증가했지만, 모스크바나 튜멘 주와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표에서도 확인되는데,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나, 1인당 GRP가 높은 지역에 투자가 집중하고 있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상과 같이, 러시아의 지역간 격차는 매우 크고, 더욱이 최근에는 그것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러시아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 왔는가?

3. 러시아의 지역정책: 지역격차 해소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러시아의 지역정책을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중반까지의 탈집권화 및 지역 분리주의가 진행되면서 연방정부와 대립한 시기, 둘째, 1990년대 후반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수준의 평준화(equalization)가 시도되었던 시기, 셋째,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평준화 정책이 권력의 수직통합의 강화와 결합되었던 시기(2000년부터 2005년), 그리고 넷째, 2005년 이후 지방의 다양한 발전을 지향한 시기이다.⁵⁾

여기서는 세 번째 시기와 네 번째 시기의 지역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자에 대해서는 2001년 10월 연방정부가 채택한 연방 특별프로그램 “러시아연방 각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격차 축소(2002-2010년 및 2015년까지)”⁶⁾(이하 “격차축소 프로그램”)를 중심으로, 후자에 대해서는 2005년 6월 지역개발부가 작성한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전략 개념”⁷⁾(이하 “전략 개념”)을 중심으로, 각 시기의 지역정책의 개략적인 내용과 그 특징을 검토한다.

(1) 푸틴 집권 이후의 평준화 정책

광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에서는 소련 붕괴 직전부터 중앙과 지방관계를 어떠한 형태로 규정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 1990년대를 통해 지방의 원심화 경향이 강화되어 중앙은 지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이나 연방법에 저촉되는 법률이 지방에서 허다하게 성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에 집권한 초기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연방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회의(상원) 개혁에 의한 지방 지도자의 중앙 정치에 대한 영향력 축소, 연방

5) Марченко Г., Мачульская О. Инструмент нов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ксперт, № 44(490) 21 ноября 2005г. <http://expert.ru/expert/2005/44/44ex-text4_11564/>

6)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1.10.2001 г. № 717 О федеральной целевой программе «Сокращение различий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2-2010 годы и до 2015 года)».

7) Концепция Стратег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관구의 설치와 대통령 전권대표의 파견에 의한 지방 감독기능의 강화, 대통령에 의한 지방수장 임명권의 사실상 장악 등을 실현했다. 그 결과,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고 중앙·지방 관계에 일정한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

2001년 10월에 채택된 “격차 축소 프로그램”도 이러한 중앙과 지방 관계의 변화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여기서는 기존의 정책 혼선과 일관성의 결여가 비판되고 통일적인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격차 해소의 방안으로는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시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상황

<표 3>에서와 같이, 러시아에서는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통일적인 개혁정책 수행 및 전국적인 시장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의 위기나 지역 갈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것이 시베리아, 극동, 남부의 3개 연방관구이다. 또한 연방관구 내부에서도 호황 지역과 불황 지역이 존재하는데, 불황 지역의 대부분은 변경지역에 집중해 있다. 이 문제는 소련 붕괴 후 지방에 대한 중앙의 재정지원이 감소하고 국내 경제의 분단으로 인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경제 교류가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

<표 3> 지방의 사회경제발전 격차(2000년)

지표	최저	최고	격차
공업제품량(1인당)	알타이 공화국	튜멘	64배
소매매출액(1인당)	칼미크 공화국	모스크바	34배
세입(1인당)	다게스탄 공화국	튜멘 주	50배 이상
고정자본투자(1인당)	다게스탄 공화국	튜멘 주	30배 이상
최저생활비에 대한 수입(1인당)의 비율	잉구슈 공화국	모스크바	8배 이상
대외무역 거래액	카라차이체르케스 공화국	튜멘 주	160배
등록실업자 수준	잉구슈 공화국	오렌부르크 주	29배

자료: “격차축소 프로그램”, Приложение № 1.

2) 목표와 과제

격차 축소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지역과 저개발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지표의 격차를 2010년까지 2/3, 2015년까지 반감시키는 것, 빈곤상태에 있는 국민의 비율을 2010년까지 15%, 2015년까지 2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의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사회경제발전의 기본지표가 평균 이하인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위한 조건 정비
- 기업활동의 촉진과 투자환경의 개선에 적합한 환경 창출
- 연방구성주체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 향상

3) 방안

각 연방구성주체 및 지방자치체는 이 프로그램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 상황을 평가하여 상황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발전무역부에 제출한다. 이 부처는 여기에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획을 선정한다. 선정된 계획을 수행하는 연방구성주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기금에서 자금이 제공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원 총액은 663억 2,330만 루블이며, 그 중 연방예산의 기여가 18.7%(124억 1,330만 루블), 연방구성주체 예산의 기여가 22.9%(151억 6,800만 루블), 기타 자금⁸⁾이 58.4%(387억 4,200만 루블)를 차지한다.

이 기금은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이용된다. 첫째는, 교육, 보건, 장애인시설 지원, 난민·이주를 위한 주택건설 등의 사회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에너지, 수도, 연료, 가스공급 등의 기술적인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경제상황의 악화가 두드러진 변경지역에 대한 투자이다.

4) 총괄

이상과 같이, 격차축소 프로그램은 연방 중앙의 통일적인 관리 하에서(그러나 재정지출은 연방구성주체의 부담이 크다), 낙후 지역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지역간 격차의 해소 및 평준화, 나아가 빈곤의 삭감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투자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집중하고 경제적 후진지역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이 정책은 부유한 지역의 재정자금을 빈곤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의 경제발전을 둔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⁹⁾

(2) ‘개발의 다양화’ 로 지역정책의 전환

2005년 6월 지역개발부¹⁰⁾는 새로운 지역정책으로 “전략 개념”을 발표하여 각료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전략 개념”은 지금까지의 평준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정에 따라, 개발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도모한 것이다. 기존의 ‘평준화’ 정책이 모두 포기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경기부양책을 강화하고, 이러한 지역을 ‘원동력’으로 러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략 개념”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제 상황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관한 문제는 경제 구조적 문제, 사회 문제, 관리·행정의 문제라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제구조상의 문제는 모두 소비에트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

8) ‘기타 자금’에는, 기업자금,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신용, 러시아 정부의 보증에 의한 해외로부터의 차입이 포함된다.

9) L. A. Valitov and V. L. Tambovtsev, “Regional policy priorities in Russia: empirical evidence,” Russian-Europea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CEP), 2005, pp. 2-4.

10) 지역개발부는 2004년 9월 북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으로 벌어진 학교점거 테러사건을 계기로 민족문제나 지방의 사회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부처로 신설되었다.

로는, 인프라의 노후화와 유지비용의 증대, 경제의 자원산업에 대한 특화, 지역 간의 경제적 상호교류의 단절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낳고 사회적 대립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¹¹⁾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할 만큼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전문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인적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 사회의 계층화가 지역간·지역내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메커니즘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기존의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평준화’ 정책은 지방정부의 성장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게 만들어 후진 지역은 연방예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둘째, 행정개혁은 지방에까지 침투되지 않고 관리시스템이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의 각종 발전계획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없다.

2) 정책의 원칙

이상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에 따라 구축된다.

첫째, 분극적(‘중점적’) 발전 원칙이다. 이것은 “성장의 극” 또는 “원동력”이 되는 “기축 지역”에 재정 자금과 인적자원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거기서 경제성장이 타 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평준화 정책으로부터의 큰 전환이다.

한편, “기축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헌법이 정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 번째 원칙으로 “개혁 우선” 원칙으로 불린다.

세 번째 원칙은, 활동일치 원칙(“상승효과(시너지) 원칙”)이다. 이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개혁의 방향을 통일하고 연방 중앙의 상위 하에서 여러 지역의 협력을 가리킨다.

넷째는, 지역정책의 세분화 원칙이다. 러시아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지역이 서로 다른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

다섯째, 보완성 원칙이다. 행정적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권한의 탈집권화가 제안되고 있다.

3) 기본 과제

이상과 같은 원칙에 따라 주민의 복지와 생활수준의 향상, 안정된 경제성장의 확보, 세계경제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점이 우선적인 과제로 꼽힌다.

첫 번째 과제는 “기축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통합하여 규모의 효과와 집적 효과 하에서 ‘성장의 극’을 형성하는 것이다.

수송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역내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성장의 극”은 러시아 경제의 새로운 틀이 되어, 세계경제로의 통합의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러시아 정부는 2007년경부터 인구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육아수당 증액, 의료개혁, 이민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2) “전략 개념에서는 자원지역, 안보지역, 기술이전지역, 혁신지역, ‘국제도시’, 낡은 공업지역, 초기산업화지역으로 분류되어 각 지역의 문제 및 우선적 과제가 열거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과학도시의 건설, 전문교육기관의 “기축 지방”에의 배치 등에 의해 지방을 구성단위로 하는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산업현대화의 조건 정비와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단체의 지원 및 발전이다.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의 다양화나 혁신산업의 확대를 지원하고 수입품의 국산제품에 의한 대체화를 진행시켜 국내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네 번째 과제는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의 유동성 향상과 지방의 고용확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방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정비, 민족·종교 갈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의 형성, 주민의 유동성 향상과 이민 정책 등에 의한 안정된 인구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 기회 및 그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의 개선에 나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지역간 격차가 현저한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개혁과 노동자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

4) 행동 계획

정부의 행동계획은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2005-2006년)는 계획·조사기간으로 “전략 개념”이 내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의 창설, 법률 제정, 문제점의 구체적인 조사 및 계획의 작성이 진행된다.

제2기(2007-2010년)는, 시험 계획·프로그램 기간이며 우선 투자계획의 선발, 제1기에 작성된 계획의 도입, 국가관리 시스템의 창설 등이 진행된다.

제3기(2011-2020년)는 체계적 개혁 기간으로 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제2기 결과를 감안하여 계획이나 법률 등에 대해 필요한 수정이 가해진다.

4. 재정투자와 극동지역 개발

(1) 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

1995년 이후 러시아 연방예산투자는 누계로 1,456억 달러로 되고, 지방재정투자는 1901.9억 달러가 되었다. 2009년 지역내 총생산 약 1조 달러, 고정자산 약 2.7조 달러, 공적 고정자산 약 5,140억 달러와 비교하면, 예산투자는 러시아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

예산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러시아 지역정책 및 투자재원(연방예산과 지방예산)에 따라 달라진다. 2000년대 중반부터 연방예산투자의 목표는 경제성장 촉진, 전국적으로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의 실시,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진 지역(남부지역 및 시베리아·극동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2009년에 연방재정투자의 55.4%는 연방 목적별 투자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시는 연방예산 투자의 지역별 배분의 중요한 수단이다. 2000년대 연방예산의 틀에서 마련된 프로그램 수는 평균 50~60개이며, 2011년 예산에서는 47개의 프로그램이 결정되었다.

1995~2009년의 누계 순위에서 1~2위는 연방구성주체의 지위를 가진 러시아 최대도시 모스크바 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이다. 4위와 10위는 그 도시의 인근지역인 모스크바주와 레닌그라드주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프로젝트의 지역이 나온다. 3위의 크라스노다르 주와 6위의 로스토프 주에서는 2014년에 개최된 소치 동계올림픽이 그 배경에 있다. 11위의 연해지방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2012년에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개발공사의 피크는 2012년과 2014년이므로, 2009년 이후 대상지역의 순위는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위와 7위는 테러대책 관련 군사작전으로 큰 피해를 받은 체첸 공화국과 다게스탄 공화국이다. 8위와 9위는 러시아의 정치제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전 샤이미예프 대통령의 타타르스탄공화국 및 전 로셀 주지사의 스베르롭스크 주이다. 이상 11개 지역의 비중은 45.9%까지 상승하여, 연방재정투자 배분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는 연방재정투자에 비해 균형적이지 않다. 상위 3개 지역인 모스크바와 튜멘주(석유 산지)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비율은 51.3%이다. 다음의 약 20%는 천연자원이 채굴되는 우랄지역 또는 인구가 많은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상위 11개 지역의 비율은 69.3%에 이른다(<표 4>). 지방재정투자의 배분은 지역의 재정능력, 즉 각 지역이 전국의 재정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지방예산투자는 러시아에서의 지역 재원의 배분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러시아의 재정투자의 지역별 분포 및 주요 지역

연방재정투자(순위, 지역, 미 달러 누계액)			지방재정투자(순위, 지역, 미 달러 누계액)		
1	모스크바	14,362.2	1	모스크바	64,929.0
2	상트페테르부르크	11,998.0	2	튜멘 주	22,991.2
3	크라스노다르 지방	6,631.4	3	상트페테르부르크	10,818.1
4	모스크바 주	6,138.1	4	바슈코르토스탄 공화국	6,565.2
5	체첸 공화국	5,569.5	5	타타르스탄 공화국	6,125.0
6	로스토프 주	4,705.4	6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3,587.3
7	다게스탄 공화국	4,053.1	7	사마라 주	3,574.2
8	타타르스 탄공화국	3,767.6	8	스베르롭스크 주	3,371.6
9	스베르롭스크 주	3,324.1	9	첼랴빈스크 주	3,327.5
10	레닌그라드 주	3,183.1	10	모스크바 주	3,219.9
11	연해 지방	3,145.4	11	크라스노다르 주	3,214.8
상기 지역 합계		66,878.0	상기 지역 합계		131,723.9
전체 러시아 합계		145,644.7	전체 러시아 합계		190,191.3

주: 1995~2009년의 누계액, 단위는 백만 달러.

자료: Rosstat,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13.

이 데이터에서 연방예산투자·지방예산투자의 지역별 분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밝혀져 있다. 공통점은 재정투자가 러시아의 최대 도시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점은 연방재정투자가 전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고 지방재정투자는 각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다. 따라서 각각의 재정투자의 경제적인 역할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밝

히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극동지역에서의 재정투자

1990~2000년대에 재정투자의 연방관구별 배분에서는 중앙(모스크바) 연방관구와 우랄 연방관구의 비율은 축소되고, 북서, 볼가, 남부, 시베리아, 극동 연방관구의 비율은 확대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재정자금의 재분배가 활발해진 셈이다. 연방예산에서 시베리아·극동 연방관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 목적별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지역 재정에 의한 투자도 증가했다. 2009년 전체 재정투자에서 시베리아 연방관구의 비율은 9.4%였고(2000년은 6.8%), 극동 관구는 9.5%(2000년은 4.9%)로 나타났다(Rosstat,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3.).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예산투자에 대해 다음 4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재정투자 과정에서 “극동·자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6년에 작성되어 2002년, 2007년, 2010년에 갱신되었지만, 투자 증가는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되었다.¹³⁾ 2007년에 이 프로그램의 하위프로그램으로 2012년의 APEC 회의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협력의 중심으로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발”이 채택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개발에 의해 연방예산투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2009년에 전체 예산투자에서 시베리아·극동지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연방예산투자는 특히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및 자바이칼 지방, 그리고 연해 지방(블라디보스토크 개발), 아무르 주, 사하 공화국(도로건설)에서 증가했고, 지방예산투자는 사하 공화국, 아무르 주, 사할린 주에서 확대되었다. 경제위기의 해인 2009년에 러시아의 83개 지역 중 18개 지역에서 지방예산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아무르 주의 증가율(명목금액으로 2.3배, 전년 동기대비)은 러시아에서 최고의 증가율이 되었다.

셋째,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예산투자는 전국적인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2009년에는 2000년에 비해 시베리아 관구의 연방예산투자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 및 자바이칼 지방의 비율은 20.3%에서 44.3%에 증가했고, 극동 관구의 연해 지방, 아무르 주, 사하공화국의 비율은 22.8%에서 63.4%로 증가했다. 따라서 연방예산투자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예산투자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극동 연방관구의 지방 재정투자에서 연해 지방, 아무르 주, 사하 공화국의 비중은 79.3%에서 62.1%로 감소하고, 사할린 주의 비중은 4.5%에서 16.1%로 확대되었다. 극동지역의 사할린 주는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서 탄생하여, 사할린 주의 경제성장은 지방예산투자의 확대에 이어졌다.

넷째, 재원별 투자구조에 따라 극동 관구의 각 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표 5>).

13) 이 프로그램은 2013년 3월말 이르쿠츠크 주를 포함하는 “극동·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표 5> 고정자산투자의 재원별 구성(1995~2009년, 누계액, 100달러, %)

	민간투자	연방예산투자	지방예산투자	합계
누계액(100만 달러)				
러시아연방	1,344,907.6	145,644.7	190,191.3	1,680,743.6
극동 연방관구	99,565.5	12,431.9	7,927.2	119,924.6
사하(야쿠트)공화국	28,048.1	1,663.8	3,587.3	33,299.2
캄차카 지방	2,340.6	966.3	243.4	3,550.3
연해 지방	11,726.1	3,145.4	848.1	15,719.6
하바롭스크 지방	13,438.5	1,835.9	1,633.7	16,908.0
아무르 주	10,748.7	1,900.2	423.0	13,072.0
마가단 주	1,821.8	919.6	149.0	2,890.4
사할린 주	28,527.6	1,107.7	659.6	30,294.8
유태인 자치주	1,050.5	716.6	87.1	1,854.2
추코트카 자치구	1,863.5	176.4	296.0	2,335.9
누계액(%)				
러시아연방	80.0	8.7	11.3	100.0
극동 연방관구	83.0	10.4	6.6	100.0
사하(야쿠트) 공화국	84.2	5.0	10.8	100.0
캄차카 지방	65.9	27.2	6.9	100.0
연해 지방	74.6	20.0	5.4	100.0
하바롭스크 지방	79.5	10.9	9.7	100.0
아무르 주	82.2	14.5	3.2	100.0
마가단 주	63.0	31.8	5.2	100.0
사할린 주	94.2	3.7	2.2	100.0
유태인 자치주	56.7	38.6	4.7	100.0
추코트카 자치구	79.8	7.6	12.7	100.0

자료: Rosstat,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Москва, 2013.

먼저 사하 공화국과 사할린 주에서는 천연자원 개발이 진행되어, 민간투자의 비율이 러시아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예산투자의 비율은 비교적 낮다. 그 다음, 하바롭스크 지방, 연해 지방, 아무르 주에서는 민간투자의 비율은 러시아 평균에 가깝지만, 연방정부에 의한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방예산투자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캄차카 지방, 마가단 주, 유태인 자치주에서는 민간투자가 특히 적기 때문에, 투자구성에서 연방예산 투자의 높은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서 연방예산투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추코트카 자치구는 예외이다.

(3) 극동지역의 발전 현황

2002년 이후, 전체 러시아의 고정자본투자에서 차지하는 극동 러시아 및 자바이칼의 비중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 투자에서 차지하는 해당 지역의 비율은 5~6%였지만, 2002~2012년의 평균치는 9.1%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약 90%)은 극동연방관구였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국가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2002~2012년 국가프로그램의 (예산으로부터의) 자금 투입은 투자총액 3.4조 루블 중 4,000억 루블에도 미치지 못했다.¹⁴⁾

14) Pavel Minakir, “ロシア極東－現状と見通し,” ERINA Report No. 114, November 2013, pp. 3.

2000~2012년에 러시아의 GRP에서 차지하는 극동·자바이칼의 비율은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 러시아 연방 전체의 GRP성장률은 180%, 극동 러시아에 대해서는 184.3%, 자바이칼 지방 178.7%, 부랴트공화국 166.2%였다.

투자는 주로 에너지 산업과 광물자원 분야 그리고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사할린 I·II,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신규 발전소, 항만의 개보수,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개발, 2012년 APEC 정상회의 관련 시설의 건설, 아무르 주의 우주기지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극동 및 자바이칼의 경제성장을 촉진해 왔다. 그 결과 해당 지역의 GRP 성장률과 러시아연방의 평균치와의 차이는 2010년에 이르러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극동 러시아와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문제는 1990년대만큼 심각하지는 않게 되었다. 2010년에는 양적 지표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제력은 회복하고 있고, 일부 지표는 1990년의 수준을 추월하기도 했다. 비교적 균등한 성장이 계속된 결과, 극동 러시아의 경제력은 2000~2010년에 전체 러시아의 수준에 상당히 접근했다(<표 6>).

<표 6> 러시아연방과 극동연방관구의 경제발전 데이터 비교 (전년대비, %)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2/2009	
	연방	극동	연방	극동	연방	극동	연방	극동
국내(역내)총생산	104.3	106.8	105.4	105.3	103.4	104.0	113.7	116.2
산업생산지수*	108.2	106.5	104.7	108.8	102.6	102.8	116.2	119.1
고정자본투자	106.0	106.1	108.3	121.4	106.6	85.2	122.4	109.7
수송기관 전체에 의한 화물수송량	106.9	122.7	103.4	105.0	101.7	107.2	112.4	138.1
수출	131.5	155.4	130.2	135.6	101.5	103.3	171.5	217.7
국민의 실질화폐소득	105.4	103.5	101.1	101.5	104.8	102.1	111.7	107.3

주: * ‘광물자원 채굴’, ‘제조업’, ‘전력·가스·물 생산·공급’ 업종에 관한 집계생산지수

자료: 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 (<http://www.gks.ru/>)

사할린 석유·가스전의 본격적인 개발 개시와 간선철도를 이용한 동북아 국가와의 중계화물 취급량 증가로 인해 2010년 이후 극동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전체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두드러졌다. 그런데 2012년에 이미 지역에서의 외부 자원을 이용한 포괄적인 성장력을 고갈해버린 징후가 나타났다. 특히 이것은 고정자본투자와 관련한 것으로, 소득 확대에서도 산업 발전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표 6>). 사실상 두 거시지표만이 이 시기 해당 지역의 경제전체의 동향을 지탱했다. 하나는 화물운송으로, 이는 동북아 대상 중계화물 취급량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순수출 증가로, 이는 2010~2011년의 연료계열 품목의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다.¹⁵⁾

해당 지역의 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사실상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것은 경제구조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공업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광업부문의 비율은 2005년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다(<표 7>).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 투자의 축소(약 15% 감소)라는 조건에서 극동 연방관구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주로 광업부문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던

15) Ibid.

것이다. 그러나 2012년에 해당 지역의 광업부문 증가율은 0.5%로 떨어졌다(전체 러시아에서는 1.1%). 광업부문 중 안정적 발전을 보인 것은, 마가단 주의 광산업(채굴량의 성장은 2011년 대비 13.7%, 은은 7.3%, 생산량은 각각 20.7t, 834.7t), 사하공화국(야쿠티야)의 원유생산(22% 증가), 석탄생산(24% 증가), 금 채굴(10% 증가)이지만, 그것으로도 다른 지역의 침체를 상쇄할 수 없었다.

<표 7> 극동 연방관구 제조업의 구조(%)

지역	광물자원 채굴		제조업		전력·가스·물의 생산·공급	
	2005	2012	2005	2012	2005	2012
러시아연방	22.5	23.6	65.1	65.6	12.4	10.8
극동 연방관구	45.5	64.1	30.2	22.3	24.3	13.6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77.6	80.8	9.7	6.9	12.7	12.3
캄차카 지방	12.3	12.7	41.4	63.0	46.4	24.3
연해 지방	9.4	6.4	52.8	67.0	37.7	26.6
하바롭스크 지방	17.4	20.6	56.4	57.5	26.3	21.9
아무르 주	25.0	52.3	27.2	20.9	47.9	26.8
마가단 주	68.9	79.2	12.7	5.6	18.4	15.2
사할린 주	65.8	93.2	21.7	4.1	12.6	2.8
유태인 자치주	6.5	5.2	69.2	41.5	24.3	53.3
추코트카 자치구	41.2	81.2	13.1	1.7	45.6	17.0

자료: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Москва, 2013, p. 473.

러시아연방 국가통계국 (<http://www.gks.ru/>)

제조업은 2010~2011년의 증가율(전체 러시아 20.7%, 극동연방관구 22.1%)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2012년에도 높은 증가율(전체 러시아의 4.1%에 대해 8.7%)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광공업 전체 증가율의 유지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2000년대 후반 높은 성장률을 지탱해 온 양대 요소, 즉 고정자본투자와 순수출은 미래 성장의 주요한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극동 러시아의 고정자본 투자는 국내 전체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 왔다. GRP 대비 투자비율은 2010~2012년까지 38~40%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국가 수준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GRP 성장률로 반영되지는 않았다.¹⁶⁾

그런데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다. 2011년 외국인투자 총액은 약 100억 달러(극동 러시아 경제투자 총액의 28.6%), 2012년에는 136억 달러(42%)가 되었다. 동시에 대륙붕 석유·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 덕분에 외국인투자의 78% 이상이 사할린에 투입되었다. 사하 공화국은 외국인투자 전체의 11%를 받아들였다. 즉, 외국인 투자의 약 90%는 이 두 지역, 더욱 정확하게는 이 지역의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것이다.

16) 2000~2012년의 GRP의 투자탄력성은 0.15~0.17 이하로 되어 있다. 이것은 역내 총수요가 고정자본투자의 증가에 미미한 정도밖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 경제 전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극동 러시아에서 그것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전 러시아의 GRP의 투자탄력성은 0.5, 극동 러시아는 0.15~0.17). Pavel Minakir (2013), p. 4.

5. 결론

러시아는 1998년 이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달성했지만, 대부분은 석유 등 천연자원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정부도 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국내 제조업기반의 확립과 육성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다. “전략 개념”은 이러한 경제정책 전반의 방향성에 입각한 것으로, 우선적인 국가프로젝트 추진 및 경제특구의 창설 등 푸틴 정권 제2기(2004년부터 2008년)에 진행된 다른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전략 개념은 지역격차의 해소를 강하게 내세우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성장지역의 육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개발 지역의 성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축 지역’의 성장이 다른 지역의 경제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평준화’ 정책이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지역정책은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한 후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축 지방’의 성장 촉진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지역정책은 이처럼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역간 격차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재정투자 과정에서 “극동·자바이칼지역 경제사회발전 프로그램”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였고, 특히 2009년에 전체 예산투자에서 시베리아·극동지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극동지역의 여타 지역 간의 경제 격차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예산투자는 특정 지역 및 특정 개발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방예산투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즉, 연해 지방, 아무르 주, 사하 공화국에 대한 연방예산투자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지방예산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극동지역의 각 연방구성주체는 산업구조와 개발프로젝트의 차이에 따라 연방예산투자와 지방예산투자의 비율이 달리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러시아의 전체 고정자본투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러시아의 전체 GR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어느 정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과의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 문제는 1990년대만큼 심각하지는 않게 되었으며, 2010년 이후 극동지역의 경제성장은 전체 러시아에 비해 확실히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에 들어 고정자본투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2000년대 후반 극동지역의 높은 성장률을 지탱해 온 양대 요소, 즉 고정자본투자와 순수출이 약화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이후 극동지역에서 이루어진 고정자본투자의 대부분은 외국자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약 90%는 사할린과 사하 공화국의 천연자원 채취와 관련된 부문에 투자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00년대 들어 러시아 극동지역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간의 격차는 해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극동지역 내 연방구성주체 간의 지역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극동지역에서 형성된 고정자본투자의 구조는 그 증가가 역내 총수요의 증가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지배적으로, 특히 극동개발부의 설치 후에 강화된 공공 인프라관련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에 의한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현실에서는 지역의 발전보다 오히려 중앙집권화된 사회자원의 분배 메커니즘의 재현으로 연결될 수 있

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극동 러시아의 중요한 현실적 과제는 역내 거래에서도 지역간 거래에서도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역내의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경제성장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극동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동부에서도 안정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정대상 분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경제성장은 기초적 자원과 비교적 안정된 거대한 외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내 거래가 일정한 자율성을 가진 역내 순환을 형성하는 것, 즉 최적 수준의 경제구조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Марченко Г., Мачульская О. Инструмент нов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Эксперт*. № 44(490) 21 ноября 2005г. <http://expert.ru/expert/2005/44/44ex-text4_11564/>
- Минакир, П. и Прокопало, О. Программы и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No. 5. 2011, с. 93-104.
- Barabanov O. & Bordachev, T. “Siberia and the Far East as a Path to Russian Globalization.” *Russia in Global Affairs*. 28 December 2012.
- Belov, A. “Public Investment in Russia and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CEAKS Discussion Paper Series*, No. DP 2012-J-003. May 2012.
- Benini R. & Czyzewski, A. “Regional disparities and economic growth in Russia: new growth patterns and catching up.” *Economic Change*. No. 40. 2007, pp. 91–135.
- Blyakhman, A. “Features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modern economic framework in Russia.” *Regional Science Policy and Practice*. 10 MAR 2014. DOI: 10.1111/rsp3.12033.
- Busygina, I. “Development of Russia’s Regions: Curr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Modernisation.” *ISPI Analysis No. 145*. November 2012, pp. 1-6.
- Galetsii, V. F. “The Russian Far East: Searching for a Demographic Development Strategy.” *Studies on Russian Economic Development*. Vol. 17, No. 6. 2006, pp. 655–661.
- Granberg, A. G. et. al. “The Impact of the Global Crisis on the Strategy of Spatial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ional Research of Russia*. Vol. 1, No. 1. 2011, pp. 2–14.
- Lane, D. (2013) “Dynamics of Regional Inequality in the Russian Federation: Circular and Cumulative Causality.”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39*. 18 November 2013, pp. 2-8.
- Lee, R. “The Russian Far Eas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rbis*. Vol. 57, No. 2. 2013, pp. 314–324.
- Litvinenko, T. V. “Post-Soviet Transformation of Natural Resource Utilization in Eastern Russia.” *Regional Research of Russia*. Vol. 1, No. 3. 2011, pp. 217–227.
- Markevich, A. and Mikhailova, T. “Economic Geography of Russia.” New Economic School(Moscow).

February 2012.

- Minakir, P. “ロシア極東－現状と見通し.” *ERINA Report No. 114*. November 2013, pp. 3-8.
- Oksnes, L. S. “Regional Development of Russian Industry.” *NUPI Working Paper 757*. 2009.
- Popov, V. “Reform Strategie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Russian Far East as Compared to Other Region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Vol. 43, No. 4. Winter 2001, pp. 33-66.
- Slepukhina, I. “Regional policy and Urbanization in the contemporary Russia.” Oct 2012.
<http://www-sre.wu.ac.at/ersa/ersaconfs/ersa12/e120821aFinal00484.pdf>
- Thornton, J. A.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Working Papers Serie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Washington). July 2011.
- Treisman, D. “Inequality: the Russian experience.” *Current History*. Vol. 111, No. 747. October 2012, pp. 264-269.
- Troyakova T. and Wishnick, E.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Challenges for the Russian Far East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Russian Far East Today: Regional Transformations under Globalization* (Hokaido: Slavic Research Center, 2003.12), pp. 1-37.
- Valitov, L. A. and Tambovtsev, V. L. “Regional policy priorities in Russia: empirical evidence.” Russian-Europea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CEP). 2005.
- Vishnevskii D. S. and Demyanenko, A. N. “Russian Far East: Macroeconomic Zoning.” *Regional Research of Russia*. Vol. 2, No. 2. 2012, pp. 116–124.
- Zubarevich, 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Policy in Russia During Ten Years of Economic Growth.” *Journal of the New Economic Association*. Issue 1-2. 2009, pp. 161-174.

근현대 한국 지식인들의 바이칼 인식

-한민족 기원 논의와 관련하여-*

이평래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1. 머리말

이 발표는 근현대 한국 지식인들의 바이칼 인식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그중 특히 우리 지식인들이 한민족 및 한국 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바이칼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발표의 중심 주제다.

한민족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한국 문화의 특정 부분이 어느 지역과 관련이 있는가를 논할 때 빠지지 않은 곳이 바이칼이다. 논자에 따라 시베리아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북방이라 통칭하기도 하는데 그 중심지로 언제나 바이칼이 언급된다. 한국 지식인들이 언제부터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는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20세기 초기부터 이른바 ‘바이칼 기원설’이 등장한다. 그 후 20세기 내내 그리고 현재까지 바이칼은 한민족의 시원의 땅 또는 한국 문화의 발원지로 얘기된다. 학문 분야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주로 고고학자들과 민속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펴다가 문인들이나 재야 학자들로 확장되고, 최근에는 유전학자들까지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중에는 물론 수용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적지 않다. 외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주장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술적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그 이유는 민족의 기원이라는 주제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지만 주로 논자들의 선입견에 기인한다. 언제부터 인지는 모르지만 바이칼은 대다수 연구자들에게 민족의 기원지로 인식되어 왔고, 그들의 논의는 사실상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모아졌다. 그런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바이칼 기원설’의 원인 제공자의 설은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된 상황이다. 따라서 잘못된 문제제기에 근거한 바이칼=민족의 기원지라는 인식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오늘 발표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 이 글은 미완성 상태의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바이칼을 다녀 온 사람들

우리 문헌에 정확히 바이칼을 지칭하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리 쉽지도 않다. 설령 누군가 바이칼에 대해 썼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바이칼이라 하지 않고 한자로 표기했을 터이니 추적하기도 지난하다. 따라서 이 문제는 후일로 미루고 확인 가능한 20세기 전 후부터 이야기하겠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20세기 이전 바이칼을 다녀온 사람은 구한말 관리 조중응(趙重應, 1860-1919)이다. 조중응은 1878년 성균관 유생으로 출발하여 관료의 길을 걸었는데 1883년 서북면계조사위원에 임명되어 만주(滿洲), 몽골, 러시아, 바이칼 지방을 둘러보고 돌아왔다고 한다. 1907년에는 이완용 내각의 법무대신이 되고 작위까지 받았으니 진성 친일파다.¹⁾ 1907년 한 잡지에 실린 외국지리 난에도 중앙아시아의 카스피 해를 세계 최대 호수이자 염호(鹽湖)라 하고, 그 동쪽의 담수호로서 바이칼과 중국의 동정호를 소개한 내용도 보인다.²⁾ 그러나 이 글만 보고는 저자가 바이칼을 다녀왔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인들이 최초로 러시아(연해주)로 이주한 시기는 공식적으로 1863년인데 1910년 국권 박탈 후 연해주를 넘어 러시아 전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즈음 연해주에서 자바이칼(Zabaikal)에 이르는 극동 전역에 20만 명 정도의 한인이 살았다는 추정도 있다.³⁾ 아무튼 1910년 이후 한인들의 시베리아 진출은 급증했다. 대부분 생계를 위한 이주였지만 애국지사나 문인, 여행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 혁명 이후 현지 이주민 중에는 사회주의운동에 투신한 이들도 많았다. 연해주에 비하여 수도 적고 활동도 미미했으나 바이칼 호 동서 지역에도 여러 단체가 생겨났다. 1920년에 울란우데와 그 동쪽 치타에서 고려공산당과 한족공산당이 성립되고, 같은 해 이르쿠츠크에서도 한인공산당이 창립되었다. 바이칼 호 동서지역은 말하자면 초기 한인 사회주의운동의 거점이었던 것이다.

바이칼을 다녀오고 글을 남긴 사람도 있었다. 이광수(1892-1950)가 대표적이다. 그의 소설 『유정』은 서울과 일본, 만주, 시베리아 등 당시 한국 지식인들이 활동한 전역을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시작과 끝은 바이칼이다. 이광수는 23세인 1914년 울란우데 동쪽에 있는 치타에서 7개월 정도 머물렀다. 그 해 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신한민보>의 주필로 초청되어 유럽을 경유하여 도미하려고 치타에 체류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미국행이 좌절되었다. 여비가 떨어져 미국에서 여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때 이광수는 바이칼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모양이다. 이 경험이 『유정』을 탄생시켰을 것이다.

유정은 인품 있고 존경 받고 명망 있는 교장 최석의 부인이 그가 자식처럼 키운 친구의 딸(남정임)과 불륜 관계라고 오해하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내용이다. 부인이 퍼뜨린 소문으로 그는 직장(학교)을 그만두고 집을 나와 무작정 시베리아로 떠난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가 절친한 친구 N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다. 병든 남정임과 최석의 딸 순임은 그를 찾아 시베리아로 떠난다. 그리고 정임이 도착하기 직전 그가 세상을 떠난다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다. 최석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2014. 3. 14일 방문)

2) 한명수, 「외국지리」, 『태극학보』 제6호(1907년 01월 24일).

3) 임경석, 『한국사회주의 기원』, 역사비평사, 2003, p.50.

믿는 벗 N형!

나는 바이칼 호의 가을 물결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오. 나의 고국 조선은 아직도 처서 더위로 땀을 흘리리라고 생각하지마는 고국서 칠천 리 이 바이칼 호 서편 언덕에는 벌써 가을이 온 지 오래오. 이 지방에 유일한 과일인 ‘야그드’의 핏빛조차 벌써 서리를 맞아 검붉은 빛을 띠게 되었소. 호숫가의 나불나 불한 풀들은 벌써 누렇게 생명을 잃었고 그 속에 울던 벌레, 웃던 가을꽃까지도 이제는 다 죽어 버려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오직 성내어 날뛰는 바이칼 호의 물과 광막한 메마른 풀판뿐이오. 아니 어떻게나 쓸쓸한 광경이고.

남북 만리를 날아다닌다는 기러기도 아니 오는 시베리아가 아니오? 소무나 왕소군이 잡혀 왔더란 선우의 땅도 여기서 보면 삼천리나 남쪽이어든 당나라 시인이야 이러한 곳을 상상인들 해 보았겠소?

이러한 곳에 나는 지금 잠시 생명을 붙이고 있소. 연일 풍량이 높은 바이칼 호를 바라보면서 고국에 남긴 오직 하나의 벗인 형에게 나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소. 지금은 밤중. 부랴트족인 주인 노파는 벌써 잠이 들고 석유 등잔의 불이 가끔 창틈으로 들이쏘는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소. 우루루탕 하고 달빛을 실은 바이칼의 물결이 바로 이 어촌 앞의 바위를 때리고 있소. 어떻게나 처참한 광경이오?

가을의 바이칼 풍경이다. 이광수의 유려한 필치와 문학적 감수성과 유식함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인 대목이다. 바이칼 호 서편이니 이르쿠츠크에서 가까운 곳이라. 그곳 거주민이 부랴트족도 등장한다. 소무(蘇武)는 전한(前漢) 때 한 나라 관리다. 기원전 100년 그는 특사로 적국인 흉노에 파견되는데 흉노에 연금되어 귀순을 강요받지만 끝내 거절한 충신의 표상이다. 흉노는 오늘날 몽골 고원에 있던 유목 국가인데 군주인 선우(單于)는 그의 뜻을 꺾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써 보지만 듣지 않자 마침내 몽골 북쪽에 있는 북해(北海)로 추방한다. 북해가 바로 바이칼 호다. 왕소군(王昭君)은 전한 때 흉노와 화해를 위하여 군주인 호한야(呼韓邪) 선우에게 시집간 비운의 주인공이다.

바이칼은 선우의 땅보다 삼천리 먼 북쪽에 있건만 최석은 평소에도 바이칼 호를 그리워했다. 소설 속 최석은 전에 바이칼을 간 적이 없다. 바이칼 호를 그리워한 소설 속 최석은 젊은 시절 이곳에 머문 이광수 본인일 것이다. 그러나 1933년 『유정』의 조선일보 연재에 즈음하여 한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그는 22, 23세 때의 청년시대로 돌아가 마음껏 정열을 뽐내면서 글을 써 보겠다고 하고, 주인공 최석과 남정임의 모델은 없고 모두 가공인물이라고 쓰고 있다.⁴⁾ 그러나 실제로 그는 『유정』을 쓸 무렵 제자뻔 되는 여류 문인과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소문으로 마음이 편치 않을 때이니 그의 말을 100% 믿기도 어렵다.

몽양 여운형(1886-1947)도 바이칼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몽양은 1922년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원동피압박민족대표자대회⁵⁾에 참석했다. 나중에 그는 상해(上海)를 출발하여 울란바토르와 울란우데와 이르쿠츠크를 경유하여 모스크바에 이르는 전 여정을 잡지 『중앙』(1936년 3-7월)에 연재했다.⁶⁾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읽어볼만하다. 조국 해방 그리고 좌와 우를 아우르는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헌신했지만 비운에 간 몽양의 삶과 인생철학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다음은 몽양이 울란우데에서 이르쿠츠크로 가던 열차에서 바라본 바이칼 풍경이다.

4) 이광수, 「유정을 새로 쓰면서」, 『삼천리』 5권 10호(1933년 10월 01일).

5) 1922년 1월 21일-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국제대회. 극동의 피압박민족 문제를 다룬 회의로 중국, 한국, 일본, 몽골, 자바 등지의 대표들이 참가했다. 한국대표단은 23개 단체 대표 52명으로 구성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948&cid=829&categoryId=829>(2014년 3월 14일 방문).

6) 몽양여운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편, 『몽양여운형선생전집 1』, 한울, 1991, pp.39-83.

음울한 북극 겨울의 황혼이 어슬어슬 땅을 덮기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여행객들의 “바이칼”, “바이칼” 하는 환호의 소리에 멀리 차창 밖으로 마치 바다의 원경처럼 아득히 보이기 시작한 유명한 바이칼 호수를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들도 “아! 바이칼!” 하고 거의 무의미하게 남들의 환성에 화하였다. (중략) 실로 가슴이 열리는 듯하다 유쾌하고 시원스러운 조망이었다. 오래 동안 바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단조하고 우울한 대륙 풍경 속에 질식할 듯 한 우수의 압박을 무의식중에 느끼면서 긴 여행을 하여온 우리의 눈앞에 이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연히 나타나 그 광활한 푸른 가슴을 겨울 아침의 젊은 태양 아래 벌려 놓고 우리를 맞아주는 이 바이칼 호수는 마치 넓은 바다 같았다. 감벽의 호면에는 연파가 아침 미풍에 춤추고 등실등실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는 그것이 이 자유롭고 유쾌하게 몸부림치고 춤추고 아양 부리는 보드라운 수면을 무감각하고 침묵한 한 장의 얼음판으로 변하게 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경쾌하게 물결 사이에 부동하며 태양의 반사에 이따금 다시 없이 고은 광선의 희롱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흰 돛을 단 어선의 미혹은 벌써 이 호수를 차지하기 시작한 겨울 앞에 그림자를 숨긴지 오랜 뒤였으나 그래도 하얀 갈매기의 나지막한 보드라운 울음소리는 그 펄럭펄럭 떠도는 흰 날개의 깨끗한 빛과 아울러 고단한 나그네의 감회를 정답게 어루만져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일부 맞춤법 조정)

평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국땅을 전전하던 몽양의 애환과 문필가로서의 그의 호방한 필치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문장이다. 그가 상하이를 출발한 것이 1921년 늦가을이고, 몽골에 도착한 것이 11월 하순이니, 지체 기간을 고려하면 아마도 12월 초순의 바이칼 풍경일 것이다. 물 가에는 이미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인적이 끊겨 을씨년스런 텅 빈 바이칼이었지만 몽양에게는 더 없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상해에서 출발한 그의 여행길은 “단조로운 구름과 살풍경한 스텝과 음울한 밀림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상하이 출발 때부터 일제 밀정의 미행에 시달렸고 사실상 노숙을 하면서 몽골에 들어오고, 다시 불편한 마차 편으로 울란우데에 왔으니, 바다 같은 호수가 주는 자유롭고 광활한 전망은 고단한 그의 몸과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단재 신채호(1880-1936)도 1920년에 진록성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얼빈, 북만주, 바이칼 일대를 답사했다⁷⁾고 하지만 그가 바이칼에 대하여 남긴 글은 확인하지 못했다. 최남선(1890-1957) 역시 1938년에 발표한 장문의 시에서 “홍안령 뒤편에 걸닌(걸린) 해 보고/바이칼(바이칼) 가람 속에 잠긴 달 보며/저 무는 날 새는 날 들에 지내기 몇 날이나/ 어언간 우랄산이라”⁸⁾고 노래한 것을 보면, 바이칼을 다녀왔음에 틀림없다. 또한 1949년에 이지택도 바이칼 감상기⁹⁾를 남겼는데 잡지의 해당 호의 결본으로 보지 못했다. 당시 사정으로 미뤄 더 많은 사람이 바이칼을 다녀오고 더 많은 글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이 안 된다. 역설적이게도 바이칼에 관한 글이 쏟아진 것은 1990년대 이후다.

3. 현대의 방문자들

주지하듯이 냉전기의 바이칼은 금단의 땅이었다. 필자가 바이칼을 처음 간 1994년만 해도 한국인 방

7)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OrgData/OrgList.jsp?tid=do&id=9-SH0009-042>(2014년 3월 14일 방문).

8) 육당, 「세계일주가」, 『삼천리』 제10권 제8호(1938년 08월 01일).

9) 이지택, 「바이칼의 경수(외지에서 맞은 여름)」, 『민성』 제5권 제7호(1949년 06월 30일).

문자가 거의 없었다. 아마도 199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2000년대에 들어와 본격화되었던 것 같다. 지금은 인천에서 이르쿠츠크까지 항공편도 열려 오가는 데도 편해졌다. 여행은 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지지만 겨울 바이칼을 찾는 사람도 더러 있다. 어느 신문사에서 매년 바이칼을 포함한 시베리아 답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바이칼이 이제 한국인의 관광명소가 된 느낌까지 든다.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1년에 3000명 정도가 바이칼을 여행하고,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난다고 한다. 평소 톨스토이를 흠모한 이광수가 러시아에 산 지 100년이 되는 2014년 바이칼 호에 『유정』 기념비 건립이 추진되고 이와 함께 러시아어 번역본도 나온다고 한다.¹⁰⁾

그래저래 바이칼에 관한 책과 소개 글도 많이 나왔다. 아직은 여행기와 문학작품과 신변잡기가 주를 이루지만 학술 논문도 드물지 않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아도 여기저기 여행기와 사진이 올라와 있다. 그 숫자도 적지 않다.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된 글을 보면 방문자들의 직업을 알 수 있다. 외형상 지식층으로 통칭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다수다. 시인, 소설가, 기자, 학자(고고학자, 인류학자, 민속학자, 역사학자, 해양학자, 기타), 환경운동가가 많고, 간혹 일반인도 보이지만 이 경우는 대개 지인 또는 가족의 일행으로 더불어 간 사람들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관광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어쩌면 이것이 바이칼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는지 모르겠다.

최근 20여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발표된 바이칼 관련 글(시, 여행기, 소개서, 산문, 학술논문, 학술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한민족과 한국 문화의 시원 등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시원’에 관한 것이다.

바이칼,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오고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그리워한 곳
오래오래 꿈꾸어도 물결소리
들리지 않으면
영혼이 머물 수 없는 곳

우리는 허공으로 숨 몰아쉬고
높은 데로 오르고 오르다가
수심으로 푸르게 숨 쉬면서
그대 눈으로 알흔 섬을 보고
내 눈으로 후지르를 생각하고
한 영혼이 되어 호수를 건넜습니다

시인 신대철의 『바이칼 키스』(문학과 지성사, 2007)에 나오는 바이칼 찬가다. 알흔 섬은 바이칼 호에서 가장 큰 섬으로 무당 바위의 소재지다. 후지르는 그곳의 부랴트족 마을이다. 시인에게 바이칼은 태초부터 우리 모두가 그리워한 시원의 땅으로 보였던 모양이다. 시원은 곧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아닌가? 그래서 최석이 마지막 귀착지로 시베리아 타이가 숲 속의 바이칼을 택하고, 박광숙 시인은 바

10) 이광수/최종고 편집, 『유정』, 푸른생각, 2013, pp.219-220.

이칼을 “붉은 물 똑똑 떨어지고 서라도/하늘이라야 흔들 수 있는/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¹¹⁾라고 노래했던 모양이다.

바이칼을 수차례 답사하고 아름다운 수필 문학 『바이칼』(문학동네, 2002)을 남긴 소설가 김종록은 “나는 다시 또 이 북방의 물의 나라에 와서 내 몸과 영혼을 씻었다. 성욕(聖浴)이다. 이로써 죄는 죽고 새로운 영혼이 탄생한다. 그러므로 바이칼은 거듭난 내 영혼의 피정지(避靜地)이며 거룩한 자궁이다”고 바이칼을 영혼의 피정지로 묘사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작가의 본성 탓이었을까? 무엇이 그토록 바이칼을 예찬하게 만들었는지, 아니 영혼이 씻김을 받고 새 영혼이 태어났다고 할 만큼 큰 감동을 주었는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필자는 겨우 바이칼의 환상적인 경관에 매료되고 고비와 바이칼의 차이라는 엄연한 자연의 법칙을 깨달았을 뿐이다. 작가는 ‘영혼의 씻김의 현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에게 바이칼은 아예 우리 민족이 시원한 땅이었다.

바이칼 호수는 살아 숨 쉬는 신화다. 찾을 때마다 새로운 비밀스런 생명력 앞에 외경을 느낀다. 일반 삼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하해온 본향(本鄉), 즉 바탕골이며 몽골리안의 시원지인 그곳에서 내 영혼을 씻으면서 나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는 책 서문에서 민족과 민족 문화의 시원을 찾아 만주로 시베리아로 바이칼로 답사 여행을 떠났다고 쓰고 있다. 그의 책 제목도 <우리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민간문화답사팀을 조직하여 여러 차례 바이칼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정신세계사, 2003)라는 책으로 묶어낸 정재승도 서문에서 바이칼의 의미를 그와 비슷하게 적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steppe)지대를 생활무대로 삼던 유목민족의 인종적 갈래는 대부분 몽골로이드 형인종이며 오늘날 한반도에 정착한 한국사람들 또한 같은 혈통의 북방 몽골로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기원과 그 형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바이칼 호는 연구의 중심축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국학자였던 육당 최남선 선생과 봉우 권태훈 선생 등 선학들이 바이칼 호수 일대를 우리 민족 문화의 발상지로서 주목한 바 있다.

답사에 참여하고 본서에 글을 기고한 학자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답사팀은 서문 그대로 민족과 민족 문화의 시원을 찾아 바이칼로 떠났다. 실제로 책의 편집자인 정재승은 “바이칼 호 일대의 토착원주민인 부리아트 몽골족의 정신적 뿌리인 샤머니즘과 우리나라 무속신앙의 유사성, 여러 가지 전통 풍속상의 동일성 등을 보더라도 바이칼 지역이 우리 문화의 뿌리와 밀접한 문화사적 의미를 적잖이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이칼을 한국 문화의 뿌리와 관련지어 이야기한다. 이러한 인식, 그러니까 바이칼을 정신적 측면이든, 민족 기원이든, 민족 문화의 뿌리든 그 어느 것의 본향 또는 시원의 땅으로 인식하는 것은 현대 방문자들의 주요 특징인 것은 분명하다. 이어서 언급하겠지만 각 분야 전문가 중에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자기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고, 일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스

11) 박광숙, 「바이칼」, 『문예운동』 96, 2007.

럽게 접근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 한국인의 바이칼 인식은 조금 전 언급한 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4. 바이칼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시원지인가?

학술적 측면에서 처음으로 바이칼을 한국 문화와 관련지어 얘기한 사람은 일본 학자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다. 그는 도쿄대학을 졸업하고 1922년 조선총독부고적조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경성(서울)에 온 후 조선사편수회 회원과 경성제국대학교수를 역임했으며, 초대 일본고고학회 회장까지 지낸 고고학계 거물이다.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후지타는 2년간 유럽 각국을 돌며 당시 유럽 고고학 현황을 조사하고 박물관의 유물들을 견학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핀란드 박물관 창고에서 시베리아 출토의 빗살무늬토기를 보고, 이것이 북유럽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주장을 폈다. 그중 특히 프리바이칼(바이칼 호 서부)의 ‘세로보(Serovo) 문화’¹²⁾가 한반도 빗살무늬토기의 기원지로 지목되었다.¹³⁾

주지하듯이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그리고 신석기시대는 오래 동안 현재 한반도 주민의 형성기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후지타의 의도와 관계없이 바이칼은 한민족의 기원지의 하나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의 주장은 1950년대 이후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현재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세로보 문화를 비롯한 바이칼 호 주변에서 출토된 토기와 한반도 토기는 빗살무늬라는 큰 특징은 공유하지만, 문양 요소와 기형 등이 다르고, 시기도 동북아 지역이 앞선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바이칼 지역의 토기는 밀이 동글거나 뾰족하지만, 한반도가 속한 아무르 강 동쪽의 동북아 토기는 밀이 평평한 이른바 평저(平底)라는 것이다.

한반도 빗살무늬 토기의 바이칼 기원설은 외형상 폐기되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지금도 한민족 기원을 논할 때마다 바이칼이 거론이 된다. 끈질긴 생명력이다. 필자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①후지타의 견해가 학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연구서와 개설서에서 반복되었다는 것, ②일부 학자들이 한국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 출토된 밀이 뾰족한 토기와 바이칼과의 관련성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③고고학계의 논의와 별개로 다른 부문의 연구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바이칼이 민족 시원지로 굳건히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 시원지로서 바이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1992년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문제를 풀기 위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다. 이 연구에는 고고학, 언어학, 민속학, 종교학, 체질인류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994년 4월 주제별 학술회의 열고 그 결과물을 두 책(『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상/하)』, 도서출판 소화, 1996)으로 묶어냈다. 여기서도 후기구석기시대인 기원전 1만 년경 몽골로이드(황인중) 일부가 한반도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견해를 빼고는 시베리아를 민족의 시원지로 보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바이칼 전래설이 건재

12) 기원전 5000년기-2000년기에 존속한 바이칼 서부의 유적 이름. 정석배, 『쁘리바이칼 지역의 신석기문화』, 『한국시베리아 연구』 12권 2호, 2008.

13)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96, pp.37-40; 최몽룡, 이현중, 강인옥,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도서출판 주류성, 2003, pp.462-465.

함이 거듭 확인된 셈인데 이는 한편으로 ‘바이칼의 추억’이 그 만큼 뿌리가 깊음을 말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이 문제가 영구 미제로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토기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이칼의 추억’을 논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민족 계통 분류와 이동에 관한 연구인데 이를 통하여 일부 학자들이 신판(新版) 바이칼 기원설을 제창했다. 복잡한 유전학 용어를 빼면 그들의 주장은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의대 교수를 지낸 이홍규의 견해를 정리해 본다. ①지금부터 1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다. ②5-7만 년 전 그들이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고, 빠른 속도로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로 퍼졌다. ③이들 중 일부가 북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마지막 빙하기인 5만 년에서 1만 5천 년 전까지 시베리아 지역에서 살았는데 2만 5천 년 전 그곳에 매우 추운 빙하가 닥쳤을 때 바이칼 호는 주변에 온천이 많아 고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④이때 이들은 평평한 얼굴, 낮은 코, 두꺼운 눈꺼풀, 가는 눈 등 추위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을 얻었다. ⑤빙하가 녹고 대홍수가 나자 주민들이 그곳을 탈출하여 한반도 등 여러 지역으로 갔다. ⑥이들이 현대 한국인의 70%를 차지하는 직계 조상이다.¹⁴⁾

생물학자 김욱도 현대 한국인이 남방계와 시베리아의 북방계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그는 “최근 Y 염색체 DNA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 집단은 동북아시아인 중에서도 중국인 집단과 가장 유사한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중국 남부 및 일부 동남아시아인 집단과도 유사한 유전적 변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하여 남방계에 방점을 찍고 있다.¹⁵⁾ 참고로 이홍규의 연구는 김욱과 달리 흔히 ‘분자시계’로 불리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에 의한 것이다. 이들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석기를 통한 바이칼과의 관련성 문제를 검토한 학자도 있다. 그에 따르면 바이칼 거주민들은 최종 빙하기가 극에 달했을 때 혹독한 추위를 피해 점진적으로 이동했지만 이로 인하여 동북아 주민의 교체가 일어났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했다.¹⁶⁾ 한민족의 주류가 바이칼에서 왔다는 이홍규의 견해에 회의적인 셈이다. 결국 유전자 분석을 통한 민족 기원 연구도 여전히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바이칼에 주목한 또 한 명의 학자는 남창 손진태(1900-?)다. 그는 한국 민속학의 태두로 불릴 만큼 민속학 전 분야에 걸쳐 출중한 업적을 남겼다. 6.25 당시 서울 문리대 학장 재직 중 납북되었다. 특히 그는 중국, 만주, 시베리아 등 주변 문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고, 설화연구에서 발생과 전파 과정을 밝히고 우리 설화의 특질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기원을 바이칼 호 주변의 부랴트족 설화에서 찾고자 한 것이 그 한 사례다.¹⁷⁾

어떤 사냥꾼이 하루는 새를 잡으려고 나갔을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호수 쪽으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백조를 보았다. 사냥꾼은 백조를 따라갔다. 백조들은 물에서 나와 날개옷을 벗더니 여자로 변했다. 그리고 그녀들은 호수에서 헤엄을 쳤다. 이 세 마리의 백조는 에세게 말란(Esege Malan)의 딸이었다.

14) 이홍규, 「유전자로 찾는 한민족의 뿌리」,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정신세계사, 2003. 고고학자 최몽룡도 13,000년 전인 바이칼을 떠난 집단이 한반도에 정착했다고 하여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바이칼을 민족의 시원지로 보았다. 최몽룡, 『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고고기행』, 학연문화사, 1997, p.55, 57-58, 81.

15) 김욱, 「한민족 형성과정의 유전자 분석」, 『바이칼, 한민족의 시원을 찾아서』, 정신세계사, 2003.

16) 이현중, 「현생인류의 출현과 한민족의 기원」, 위와 같은 책.

17) 손진태, 「조선민간설화의 연구-민간설화의 문화사적 고찰(2)-」, 『신민』 29호(1927년 09월 01일).

사냥꾼은 백조 한 마리의 날개옷을 훔쳤다. 그 백조는 물에서 나왔을 때 언니들과 함께 날아갈 수가 없었다. 사냥꾼은 아가씨를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그들에게 자식이 여섯 태어났다. 어느 날 에세게 말란의 딸은 독한 타라순(tarasun)을 증류해서 남편에게 마시게 하고, 자신의 날개옷을 달라고 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날개옷을 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백조로 변해서 연기 구멍¹⁸⁾을 통해서 날아갔다. 타라순을 빚고 있던 딸이 엄마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엄마의 다리만 잡았을 뿐이었다. 딸의 더러운 손은 백조의 다리를 검게 만들었다. 그래서 부랴트족 사이에서 신성한 새 백조는 양다리가 검다고 한다. 엄마는 공중을 돌다가 말소리가 들리는 거리를 두고 딸에게, “초승달이 뜰 때마다 나에게 마유(馬乳)와 차를 따라주고, 붉은 담배를 뿌려다오”라고 말했다. 에세게 말란의 딸인 이 백조로부터 모든 트랜스 바이칼의 부랴트족이 나왔다고 한다.(현대식 표기로 수정)

생업과 생활무대의 다름에서 비롯된 차이를 빼면 이야기 구조는 어린 시절 읽었던 나무꾼 이야기의 판박이다. 물론 이런 유형의 이야기는 중국, 일본, 만주, 시베리아 등 주변 지역은 물론, 동쪽으로 베링해에서 서쪽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으로 뉴질랜드에서 북쪽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광역적 설화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그 기원과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만주, 시베리아의 자료를 비교한 후 한국설화가 부랴트족 설화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된 손진태의 설은 지금도 인용되는 타견이다. 남창이 바이칼을 한국 문화의 시원지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는데 중국을 벗어나 그 범위를 시베리아 등지로 확장한 것은 그의 일련의 글을 통하여 확인된다. 아무튼 그가 부랴트족의 백조설화를 나무꾼 이야기의 기원으로 본 점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도 딱히 바이칼이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문화를 만저우와 시베리아를 포함한 북방에서 찾고자 한 노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민족사 복원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다 여순(旅順)감옥에서 병사한 단재는 이들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민족의 기원을 논했다. 그는 파미르 고원과 몽골을 인류의 발생지로 보았던 당시 인류학자들의 가설을 받아들여 파미르 고원이나 몽골에서 이주하여 불함산(不咸山, 백두산)에 정착한 사람들이 조선족(한민족)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조선족에서 선비, 여진, 몽골, 통구스 등 북방민이 분화했다¹⁹⁾는 주장을 폈다. 최남선도 우리 문화의 본질인 불함문화가 중국, 만주, 시베리아, 바이칼 일대로 퍼졌다는 유명한 글²⁰⁾을 발표했다. 그는 그 근거로서 한국의 솟대와 만주의 신간(神竿, 한국의 당산(堂山)과 몽골의 오보(Ovoo),²¹⁾ 부랴트족의 게세르 신화와 단군신화의 관련성 등을 들었다. 전파 또는 이동의 방향은 다르지만 한민족과 민족 문화를 바이칼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 기본 열개는 같다.

그렇다면 지난 한 세기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한민족 및 한국 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이른바 북방지역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중에서도 바이칼이 운위되는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18) 손진태의 번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몽골족의 전통 가옥인 ‘게르(ger)’에는 천정에 채광 및 공기 순환 구실을 창이 있는데 흔히 지붕창 혹은 천창이라 번역한다.

19) 단재 신채호 원저/박기봉 옮김,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2013, pp.88-89.

20) 최남선 지음/정재승, 이주현 역주, 『불함문화론』, 우리역사연구재단, 2008.

21) 몽골을 대표하는 신앙대상물. 돌무더기 위에 버드나무가 꽃혀 있고 거기에 천이 걸려 있다. 교차로나 산정 또는 성소에 소재하고 중요한 오보에서는 정기적으로 오보제를 지낸다. 일찍이 손진태는 한국의 서낭당의 기원을 몽골의 오보에서 찾았다.

5. 북방으로 뚫려진 바이칼

지난 한 세기 동안 논의된 사항만 보아도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형성에 북방적 요소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굳이 과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지리적 위치로 보아 남북 양쪽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문화가 유입되었을 거라는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상식에 속하는 문제를 두고 북방과 시베리아가 계속해서 애기되는 데는 그 나름의 곡절이 있을 터인데 필자는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일본학자들의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언급한 후지타의 영향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 그 전형이다. 1930년대에 일본의 저명한 고고학자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893-1983) 등이 불순한 목적에서 제기한 학설, 즉 한국 청동기의 북방 기원설 역시 과장된 채 여전히 우리 학자들의 머리를 지배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학자들은 한국 고대사의 독자적인 발전을 부정하여 소위 ‘금석병용기’라는 희한한 시기를 설정하고 금속기의 발생을 중국 한나라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 각지에서 비(非)중국계 청동기가 출토되면서 그 기원을 한나라 이전 전국시대의 시베리아에서 찾게 되었다. 이는 중국 계통이 아닌 청동기는 한국의 독자적인 제작이 아닌 또 다른 지역에서 전파되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론이었다.²²⁾ 우리나라의 청동기 및 철기에서 그리고 역사시대의 일부 유적과 유물에서 이른바 스키토-시베리아 문화²³⁾적 영향이 확인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연구자²⁴⁾의 지적처럼 이런 것들은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위신재(威信財)”로서 사용 층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수한 사례도 그 계통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우리 문화의 뿌리를 북방에서 찾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무리다.

둘째 일제강점기 한국 지식인들의 북방 인식도 한국 문화의 북방 기원설에 한몫을 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당시 우리 지식인들이 민족 문화의 뿌리를 북방에서 찾으려고 한 데도 몇 가지 정치 사회적인 이유가 있었다. ①만주와 극동 연해주는 우리의 고토(古土)에 해당하고, ②20세기 초기 이래 만주와 연해주, 몽골, 바이칼 등 시베리아 일대는 이주민과 독립지사 및 여행가들의 생활터전이자 활동무대였으며, ③식민지 지식으로서 중국을 벗어난 민족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고, ④실제로 북방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종교와 신앙, 민속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문화의 특정 부분이 북방 어디에서 들어와 토착화 과정을 거쳐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고 대중매체들은 이를 새로운 발견처럼 보도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이러한 문화전파 과정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런 점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필자는 그 이유를 식민시대 이후 우리 내면에 잠재된 열등감에서 찾아 본 적이 있다.²⁵⁾

일제가 물러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건만 이런 인식과 이런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22) 최몽룡, 이현중, 강인욱,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도서출판 주류성, 2003, pp.466-467.

23) 흑해 북쪽 연안에서 만주에 이르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초기 철기시대에 공통으로 보이는 유물을 갖는 문화를 통칭하는 용어. B.C. 7~3세기경 초기 철기시대에 해당되지만 생활도구와 무구는 청동기가 사용되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40215&cid=4644&categoryId=4644>(2014년 3월 14일 방문).

24) 강인욱, 「시베리아 고고학연구의 성과와 과제-한국, 중국동북지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선사고고학보』 12권, 2006.

25) 이평래, 「한-몽 문화교류를 보는 시각」,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소나무, 1999.

최근 한 신화연구자²⁶⁾는 일본 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인 <날개옷 이야기(羽衣說話)>가 과거 고구려에서 해로를 따라 일본 서해안으로 전파되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근거는 날개옷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신격이 고구려와 관련이 있고, 그 당시 한국 이야기의 주요 무대인 금강산 일대(고구려 영토)에서 일본의 날개옷 이야기의 주요 전승지인 도야마(富山)와 돗토리(鳥取)로 건너가는 해로가 존재했음을 들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한국 설화의 원형을 손진태의 설을 수용하여 부랴트에서 찾았다. 이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필자가 방금 언급한 북방→한반도→일본으로의 전파라는 도식의 전형이다. 여기서도 논점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20세기 초 우리 지식인들 머릿속의 한국 문화 인식의 추억이 깊게 배어 있음이 재차 확인된다.

그러나 과거 우리 지식인들이 그리는 북방은 참으로 애매했다. 남북만주, 내외몽골, 극동연해주, 시베리아, 알타이 일대가 모두 북방으로 통칭되었다. 이처럼 하나로 통합된 ‘북방 묶음’ 속에 바이칼이 자리하는데 현대 학자들과 문필가들 역시 바이칼을 얘기할 때 북만주, 시베리아, 심지어 몽골까지 포함시킨다. 예를 들면 한 문학 연구자²⁷⁾는 한국 근대기의 저명한 시인 백석(1912-1996)의 시에 나타난 북방 인식을 다루면서 <한국 현대시 속의 북방, 슬라브, 시베리아 공간 역사인식>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무려 10여 쪽에 걸쳐 우리 문화 속의 북방적 요소와 관련성에 대하여 장황하게,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얘기들을 소개한다. 문제는 본인이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한 백석의 시 무대가 기껏해야 만주와 오늘날 내몽골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가 통칭 ‘북방파’ 시인이라고 부른 김동환, 이용악 등의 시 무대도 백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러 문학 속의 바이칼>이라 이름 붙인 그의 또 다른 논문²⁸⁾에서도 이 점이 반복된다. 물론 후자에서는 이광수의 유정을 소개하는 등 바이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지만 바이칼의 공간을 시베리아 전체로 확대하고 있음은 전자와 다르지 않다.

필자는 이처럼 한 세기 이상 지속된 북방 문화와 한국 문화와의 관련성, 민족 시원지로서의 북방, 그러나 그 범위가 애매하게 규정된 북방이, 1990년대 이후 바이칼로 뒤바뀐 것이 현재의 민족 기원지로서의 바이칼, 민족 문화 시원지로서의 바이칼 인식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정작 바이칼과 한국의 관련성을 말해주는 실증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에 유행하는 유전자 분석도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가? 이것도 결국 민족 기원 문제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남는 의문은 북방이 하필 바이칼로 변신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이에 답변할 만한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무리한 추측이 허용된다면 너무나 청정하고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광활한 바이칼의 신비로움에게 압도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바이칼을 사랑한 시베리아의 작가 발렌틴 라스푸틴(Valentin Rasputin, 1937-)이 “어떤 이는 신비로움에 감탄하여/어떤 이는 아름다움에 감탄하여/어떤 이는 실제적인 도움에 감사하여/바이칼을 보면 사람들은 정신이 멍해지네”²⁹⁾라고 노래했던 것도 바이칼의 경이로움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적어도 필자가 본 바이칼은 신앙인이란 신과의

26) 김화경, 「일본 날개옷 설화의 연구-〈한국의 나무꾼과 선녀 설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고찰-」, 『어문학』 85집, 2007.

27) 이길주, 「한국 현대시 속의 북방, 슬라브, 시베리아 공간 역사인식-백석의 낙원회복의 꿈과 고대사 공간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 연구』 15집 2권, 2011.

28) 이길주, 「한·러 문학 속의 바이칼-광야의 위용과 아름다움, 유토피아적 구원의 상징-」, 『한국시베리아 연구』 7집, 2004.

29) 김종록, 앞의 책, pp.7-8.

합일을 이룰 수 있고, 문학도라면 문학적 상상력을 충전할 수 있고, 억눌린 자라면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없고, 오만한 자라면 자신의 보잘 것 없음을 깨칠 수 있고, 타락한 자라면 그 물에 들어가 정화하고픈 욕망이 생길 만한 곳이다.